

즐거로운 마을생활

주민들이 들려주는 우리마을 이야기



즐거로운 마을생활

주민들이 들려주는 우리마을 이야기

슬기로운 마을생활

주민들이 들려주는 우리마을 이야기

CONTENTS

들어가는 말	04
한눈에 보는 강원도 마을공동체 사업	06
2020년 강원도 마을공동체 지원사업 현황	08

교육지원형 마을공동체

춘천 꿈마루도서관	12
원주 구름마을 손끝놀이터	17
홍천 새끼줄	24
홍천 함께 자라는 작은숲	30
동해 초록사랑방	35
평창 북모꼬지	41
속초 들꽃향기 작은도서관	46

환경정비형 마을공동체

춘천 뉴시티코아루아파트	54
원주 마을안전 서포터즈	60
강릉 입암1주공아파트	64
정선 예미1리 마을발전추진위원회	69
삼척 구공탄 새뜰마을	74

소득사업형 마을공동체

홍천 구만리 콩마을 영농조합법인	80
강릉 솔내마을	87
동해 동문산 새뜰마을 주민협의회	92
평창 산야초 꽃차연구회	98
고성 해상1리 마을회	104

복지봉사형 마을공동체

원주 나누리	112
강릉 포남2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117
태백 삼수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122

문화예술형 마을공동체

홍천 맹글청소년교육사회 협동조합	130
정선 레몬트리 협동조합	136
인제 아미띠에	140

편집후기	146
------	-----



들어가는 말

안녕하십니까? 강원도 마을공동체 종합지원센터입니다.

마을은 사회를 이루는 기본단위로 다양한 공동체의 활동을 통해 유지됩니다. 그러나 최근 저출산·고령화 등으로 인해 마을인구가 감소하면서 마을소멸 위기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마을공동체의 쇠락은 이웃 간 관계 및 소통을 단절시키고, 마을의 자생력을 감소시켜 마을소멸을 가속화시키게 됩니다. 따라서 마을의 자생력 확보 및 마을소멸 예방을 위한 새로운 대안으로 마을공동체 활성화의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마을을 살리기 위해서는 가장 기본적으로 공동체가 활성화되어야 합니다. 마을공동체의 활성화는 다양한 방법으로 가능합니다. 한 마을에서는 마을이 가지고 있는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서 공동체를 구성하기도 하고, 한 마을에서는 마을이 가지고 있는 장점을 활용하여 마을의 생기와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공동체를 형성하기도 합니다.

마을공동체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먼저 주민들이 마을의 장점과 문제점을 공유하고, 마을의 긍정적인 변화에 대한 적극적인 참여와 공감대가 형성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공감대 형성이 공동체 활성화의 기반이 됩니다. 주민들 스스로 공동체를 형성하여 스스로 발전 방안을 모색하는 것! 이것이 바로 주민자치의 실현입니다.





마을공동체 지원사업은 단순히 1회성 사업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속가능해야 합니다. 하나의 공동체가 다른 공동체와 연계하고, 마을이라는 공간에서 여러 공동체가 공동의 목적을 위해 통합되면서 공동체들은 더욱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을 것입니다.

강원도는 주민 간 관계를 회복하고 공동체를 복원하고자 마을공동체 지원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2014년부터 지원하여 상당수의 공동체를 발굴하고 지원하였습니다. 「슬기로운 마을생활」 사례집은 그동안 지원 사업을 통해 마을공동체가 활성화되고 지역 내 긍정적 변화를 이끌어내기 위해 고군분투 했던 강원도 내 마을공동체의 이야기가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이번 사례집이 공동체와 마을 그리고 강원도의 변화와 발전을 이끄는 지침이 되어 더 많은 마을공동체가 발굴되기를 희망하며, 향후 공동체를 형성하려는 주민들에게 좋은 길잡이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강원도 마을공동체 종합지원센터



한눈에 보는 강원도 마을공동체 사업

강원도 마을공동체 지원사업 현황

- 주민주도 방식 (상향식) 을 통한 공동체 활동 활성화 및 자립형 마을육성 기반을 구축하고자 마을공동체 사업 지원

- 주민들이 마을의제와 지역 현안문제를 발굴하여 함께 해결해 나가는 과정을 통하여 마을 활력 증진 및 주민 자치 실현
- 주민들이 공동체를 구성하고 마을에 필요한 사업을 제안하는 등의 공동체 활동을 단계별로 지원 (발아단계 ▶ 성장단계 ▶ 개화단계)



〈강원도 마을공동체 사업 지원체계〉

- 현재까지 609개소 마을공동체에 약 36억 지원

- 2014~2018년까지는 지속적인 신규공동체 발굴을 통한 양적성장 달성
- 강원도 마을공동체 종합지원센터 설립·운영된 후 주민주도 마을공동체 활성화 기반 마련

- 강원도 마을공동체 지원사업 현황 ('14~ '20)

- 총 지원규모 : 609개소, 약 36억원 지원



강원도 마을공동체 지원사업의 성과와 과제

- 강원도 마을공동체 지원사업 설문조사 개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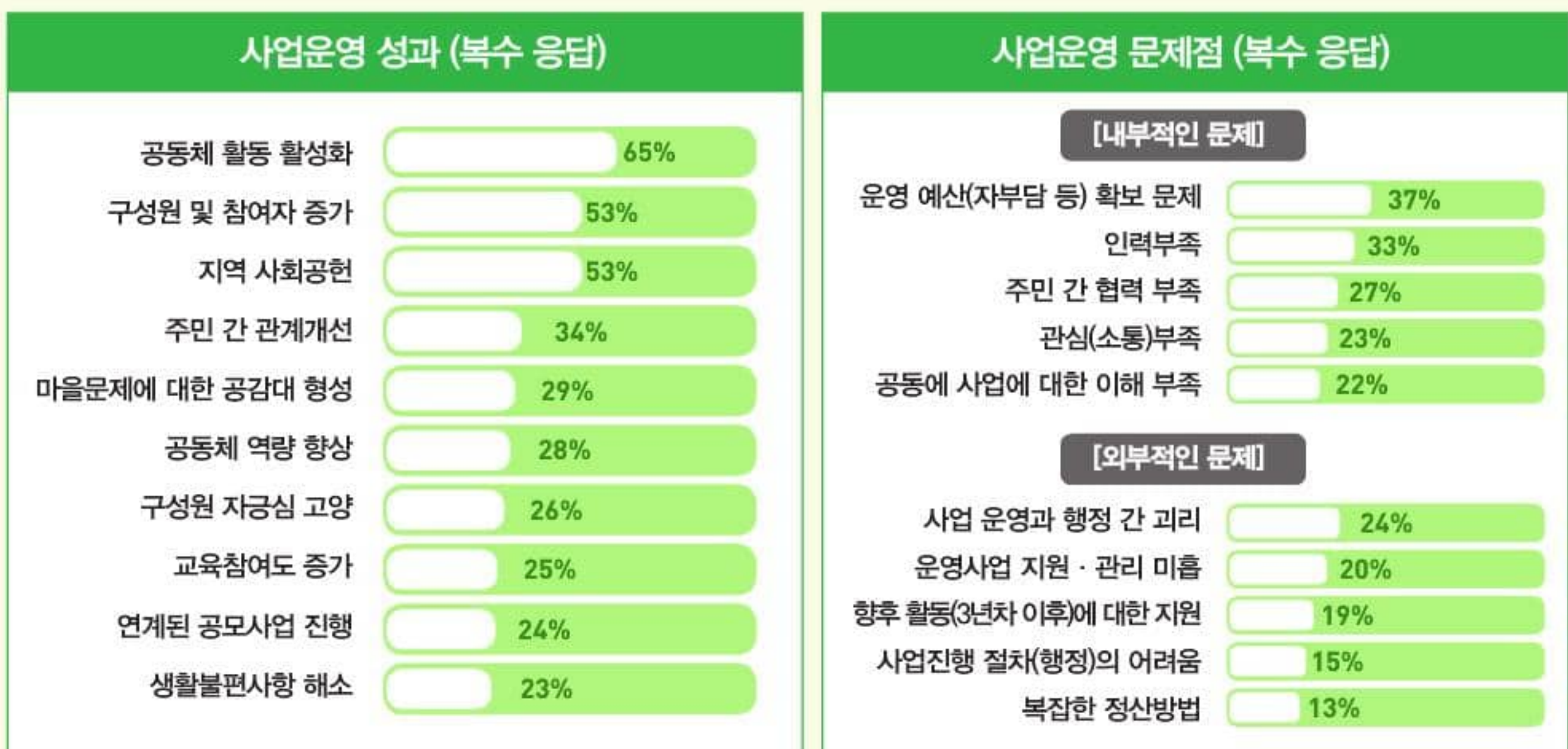
- (대상) 2018년 기준 사업이 종료된 158개소 대상, 117개소 응답(74%)
- (내용) 마을공동체 현황, 사업운영 성과, 문제점, 건의사항 등

- 마을공동체 운영을 통해 공동체 활동 활성화에 긍정적 기여

- 공동체 사업 지원성과 조사결과 공동체 활동 활성화, 구성원 및 참여자 증가, 지역사회 공헌, 주민과 관계 개선 등의 긍정적 인식 확산

- 운영예산과 인력부족, 사업운영과 행정 간의 괴리 등이 문제점으로 도출

- 내부적으로는 운영예산 확보 문제, 인력부족의 문제, 주민 간의 네트워크 부족, 마을 주민의 관심 부재가 문제점으로 나타남
- 외부적인 문제점은 사업운영과 행정 간 괴리, 운영사업 지원·관리 미흡, 3년차 이후에 대한 지원부재, 사업진행 절차의 어려움이 나타남



- 마을공동체 지원사업 추진과제

- 예산 및 지원 인력 확보 등 체계적인 지원체계 마련 필요
- 공동체와 행정 간의 괴리를 좁히고 지속적인 사업관리를 위한 시·군 중간지원조직 설립 필요
- 마을공동체 생태계 조성 및 지속가능한 사업 추진을 위한 연계사업 발굴 필요

2020 강원도 마을공동체 지원사업 현황





총 146개 공동체





교육지원형

춘천 꿈마루도서관

원주 구름마을 손끝놀이터

홍천 새끼줄

홍천 함께 자라는 작은숲

동해 초록사랑방

평창 북모꼬지

속초 들꽃향기 작은도서관

춘천시

꿈마루도서관

주민이 함께 하는 마음의 쉼터



- 📍 **지 역** 강원도 춘천시 사농현대아파트
- 📁 **프로그램** 주민이 함께 하는 마음의 쉼터
- 📅 **지원기간** 2018년 ~ 2019년
- 👥 **참여인원** 아파트 주민, 운영위원, 재능기부자, 자원활동가 24명



공동체 형성 과정

문제 해결을 위한 문고 활용

층간소음, 쓰레기 배출, 흡연, 주차문제 등 아파트 단지에서 자주 발생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 대부분의 아파트 단지가 그렇듯 우리가 사는 사농현대아파트도 이와 같은 문제로 주민들 간 갈등을 겪었다. 서로 자신의 권리만 주장하는 상황이 되풀이되는 현실에서 이러한 문제를 풀어내는 것이 입주자 대표회의 가장 큰 고민이었다. 이에 대한 우리의 자가처방 결과는 아파트 내 문고를 활용한 공동체 의식 형성과 공동체 활동의 활성화가 필요하다는 것이었다. 현재 춘천에서 500세대 이상 사는 아파트 단지 중 문고를 작은 도서관으로 운영하는 곳은 겨우 열 군데에 불과하다. 우리는 방치되어 있던 문고를 새롭게 탄생시켜 주민들과 소통하고, 마을공동체 회복을 위한 장으로 만들어 보고자 2018년 4월 13일 작은 도서관을 개관했다.



공동체 활동내용과 성과

2,300명의 발걸음

로제토 마을에서 공동체의 따뜻한 관계가 심장병을 예방하듯 꿈마루도서관도 마을의 관계를 회복하고, 이웃 간의 벽을 허물어 공동체를 되살리자는 의미를 추구하고 있다. 2018년에는 도서관을 세우는 일과 인지도를 높이는 일에 몰두했다. 문화 프로그램과 독서 MVP를 통해 어린이들의 독서를 권장했고 벼룩시장, 북 콘서트 등을 통해 작은 도서관이 우리 지역에도 있음을 알렸다. 더불어 소통과 관계회복을 통해 주민들에게 어떤 변화를 끌어낼 수 있을

지 고민했다. 2019년에는 도서관 이용자를 늘리고, 주민들의 행사 참여도를 높일 수 있도록 다양한 홍보 활동을 전개했다. 단지 내 프로그램 참여 방송, 인터넷 문자발송을 통한 안내와 이웃 아파트홍보, 지역 어린이집과 연계한 참여자 모집을 했다. 또한, 재능기부자들의 나눔과 자원봉사를 통한 주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는 공동체 활동이 성공적으로 운영될 수 있게 한 원동력이 되었다. 이러한 활동을 통해 2018년 8월부터 연 2,300여 명이 꿈마루도서관을 찾았고 이걸 정말 상상 그 이상의 성공적인 결과였다.



수많은 관계를 만들어가는 끊임없는 시작

우리 꿈마루도서관은 11명의 운영위원과 12명이 넘는 재능기부 강사, 정규 자원봉사자들과 함께 계속해서 활동을 이어나가고 있다. 지역자원 활용방안 측면에서는 5개 이상의 지역 시민사회단체와 연계·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재정적 측면에서는 정기후원 확대를 통해 공동체 활동이 안정적이고 지속 가능하도록 노력하고 있다.

2019년 우리의 가장 큰 활동은 마을 사람들과 함께 할 수 있는 동아리를 만든 것이다. 지역 주민이 주체적으로 희망하는 동아리를 만들면 장소 제공과 한 달 1회 강사비를 지급했다. 그 결과 동아리에서는 도서관을 더욱 자주 이용하고 마을 행사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선순환적인 모습이 나타났다. 이로 인해 주민들의 생활 속에 깃들어진 도서관이 될 수 있었고 주민들과 돈독한 유대감을 형성하며 소통하는 장소로 자리 잡았다.



이외에도 아이와 부모가 함께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을 진행했다. 먼저 도서관 전체 행사였던 개관 1주년 기념식, 타일벽화 그리기, 북&콘서트, 베틀시장 등을 운영하였다. 이는 온 주민들이 참여한 소중한 시간이었고, ‘책으로 하나 된다’는 말을 실감케 하는 계기가 되었다. 교육강좌로는 육아 심리상담 교실, 인형극, 어르신 건강교실 등 11개 강좌를 운영했다.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 제공을 통하여 유아부터 어르신들까지 모든 연령층에 우리 작은 도서관을 톡톡히 알릴 수 있었다. 또한, 5개의 재능기부 나눔 강좌를 통해 함께하는 공동체가 무엇인지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다. 마지막으로 다양한 여름 방과후교실과 특강은 아이들을 맡길 곳이 없는 맞벌이 부부들에게 더없이 큰 힘이 되어줄 수 있었던 참된 시간이었다. 이를 통해 도서관을 더욱 알리고, 도서관을 중심으로 소통하며, 도서관 안에서 삶과 행복을 만들 수 있었다.



공동체 향후 계획

뿌리 깊은 꿈마을 도서관 만들기

어느덧 강원도 마을공동체 활동을 한 지 2년 차에 접어들었다. 사실 그동안 ‘작은 도서관이 어떻게 하면 자생력을 갖출 수 있을까?’에 대해 많은 고민을 했다. 우리는 재능기부자 발굴을 통한 문화프로그램 진행으로 도서관을 먼저 널리 알렸다. 그다음엔 주민참여를 위한 동아리를 조직해 주민 간의 소통과 참여, 자원활동가 발굴을 적극적으로 구상했다. 더 나아가 CMS(통장 자동이체 정기후원) 후원자 모집을 통해 재정적으로 안정을 찾았지만, 마음 한편으론 ‘꿈마루도서관이 작은도서관으로 제대로 가고 있는 것이 맞나?’라는 생각이 들 때도 있었다. 이에 그간 우리의 공동체 활동을 돌아보며, ‘꿈마루도서관이 가고 있는 길이 맞다!’라는 결론을 내리게 되었다.

그동안 정말 원 없이 많은 활동을 해왔지만, 가장 중요한 건 바로 지금부터이다. 이에 꿈마루도서관은 이제까지 해왔던 것을 양분 삼아 뿌리를 깊이 내리는 일을 하려고 한다. 자생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시스템을 더욱 활성화 시켜 주민이 하나 되고 소통하는 마을, 마음의 짐을 얻고 갈등을 해소하는 마을, 주민이 주인이 되는 마을을 만들어보려고 한다. 이에 우리는 첫 번째, 운영위원회 관리, 두 번째, 동아리 활성화, 세 번째, CMS 정기후원자와 재정의 안정화, 네 번째, 재능기부자 발굴을 통한 프로그램 안정화, 다섯 번째, 실무의 안정화, 마지막으로 적극적인 공동육아를 도모하고자 한다. 나의 아이, 이웃의 아이, 우리 마을의 아이들이 작은 도서관에서 함께 배우고 성장할 수 있다면 주민들의 참여와 활동에 더욱 큰 동기를 줄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올해도 함께 하며 미소 짓던 주민들의 모습이 생생하게 기억난다. 보람 있고, 뿌듯하고, 행복해하던 주민의 모습... 그들의 웃음과 따뜻함이 지속되어 온 주민에게 퍼져 나가길 바라며 다시 한번 마음속으로 다짐해본다. 꿈마루도서관 파이팅~♥



원주시

구름마을 손끝놀이터

친환경 놀잇감 만들기와 공동육아



- 📍 **지 역** 강원도 원주시 판부면 서곡리
- 📁 **프로그램** 친환경 놀잇감 만들기와 공동육아
- 📅 **지원기간** 2019년
- 👥 **참여인원** 10명



공동체 형성 과정

내 아이, 우리 아이를 위한 첫 걸음

2018년 겨울 어느 날, 판부면 서곡리에 사는 엄마들 세 명이 한 집에 모였다. 같은 어린이 집에 다니며 육아라는 힘든 일상 속에서 ‘아이를 어떻게 키우면 좋을까?’에 대한 고민을 나누기 위해서였다. 한 엄마가 우리 아이들이 쉽게 접하는 플라스틱 장난감의 유해성에 관한 이야기를 꺼냈다. 아이를 낳고 더욱 자연 친화적인 생활을 실천하고자 노력하는 엄마들이었기에 문제의 심각성과 대안의 필요성에 대해 공감하게 되었다. 그렇게 만난 자리는 <구름마을 손끝놀이터>가 만들어지게 된 첫걸음이었다.

부족한 실력이지만 직접 아이들을 위해 친환경 놀잇감을 만들어주자는 의견을 모았다. 조금씩 돈을 모아 뜨개 재료를 사고 한 공간에 모여 육아의 고충을 나누기도 하며 놀잇감을 만들기 시작했다. 그러던 중 <강원도 마을공동체 지원사업>을 접하게 되었고 구름마을 손끝놀이터라는 공동체를 구성하게 되었다. 구성원들은 모두 영유아 자녀를 둔 부모들로 우리 자녀뿐만이 아니라 마을 아이들에게도 함께 나누고 육아에 대해 같이 고민하고 배우는 것을 목표로 활동을 시작했다.



공동체 활동의 시작

우리 손으로 만들어가는 우리 마을 공동체

서곡리는 시내에서 떨어져 있는 작은 시골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마을공동체 및 교육 공동체가 활성화돼있다. 하지만 관심 대상이 주로 노인층이다 보니 서곡초등학교 운동장 외에는 아이들을 위한 공간이나 환경은 매우 열악한 상황이다.

그나마 서곡에는 공동육아를 목적으로 하는 소꿉마당 어린이집이 자리하고 있어 생태 활동과 인성 교육을 중요시하는 부모들의 드나들이 많다. 서곡초등학교가 혁신학교로 주목받으면서 부모들의 유입이 늘었지만 친목 형태의 영유아 부모 모임은 없었다. 시내만 나가도 아이와 부모가 함께 할 수 있는 공간과 모임이 많이 있지만 자가용으로만 이동할 수밖에 없는 어려움이 있다. 이처럼 마을에 사는 주민이자 부모인 구성원들의 모임과 활동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바탕으로 우리는 모이게 되었다. 모임을 시작으로 지역 현실 속에서 새로운 마을공동체 모델을 시도해 보는 것에 의미를 두고 우리가 가진 역량을 발휘해 함께 할 수 있는 역할이 무엇인지 고민하기 시작했다.

공동체 활동내용과 성과

놀잇감 만들기를 통해 함께 하는 세상을 배우다

우리는 친환경 놀잇감 만들기와 공동육아라는 타이틀을 내걸었다. 아이들에게 만들어주었던 친환경 놀잇감을 중심으로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을지에 대해 고민했고 가장 먼저 정기적으로 모일 수 있는 공간을 지정하는 것부터 시작하였다.



구성원들은 매주 만나 수공예로 친환경 놀잇감을 만들었다. 아이들이 직접 만지고 입에 닿는 놀잇감이다 보니 엄마인 구성원들이 가장 적극적인 모습을 보였다. 처음에는 코바늘 잡는 법도 몰랐지만, 친환경 놀잇감에 대해 공부를 하고 서로 배워가며 결과물을 만들었다. 가장 쉬운 바구니 만들기부터 채소, 과일, 소꿉놀이 용품 등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놀잇감들을 만들었다. 수작업으로 만들면서 때로는 지루하고 고되게 느껴질 때도 있었지만 작품들을 모아 마을 아이들에게 나눠주면서 더없이 큰 보람과 행복함을 느꼈다.

특히 마지막 한 달간 진행했던 애착 인형 만들기는 여러 가지 의미에서 구성원들에게 좋은 경험이 되었다. 처음에는 3세 미만 영아들에게 문어 애착 인형을 만들어주는 것에 그쳤지만, 구성원 중 공개 입양을 통해 둘째 아이를 키우고 있는 한 엄마가 애착 인형의 의미가 정말 좋은 것 같으며 힘들어도 뜻깊은 나눔을 해보는 것은 어떻겠냐는 제의를 했다. 긴 논의 끝에 공동체 활동의 의미를 확장하여 엄마의 손길이 필요하지만 받을 수 없는 아이들에게도 나눔을 하면 좋겠다는 의견을 한데 모았다. 그렇게 우리는 성가정입양원에 문어 애착 인형을 만들어 전달하기로 했다.



성가정입양원은 약 30명의 신생아부터 유아기 어린이들이 입양 가족을 기다리고 있는 곳이기 때문에 더욱 의미가 컸다. 내 아이와 마을 아이들, 입양을 기다리는 아이들에게 이르기까지 친환경 놀잇감을 나누면서 엄마들은 자부심과 큰 보람을 느꼈다. 한 아이의 부모이자 사회구성원으로서 공동체의 중요성을 경험을 통해 배우게 되었고 함께 하는 세상을 고민하는 좋은 기회가 되었다.



소통하고 교류하고 성장하는 부모

“독서모임이라는 거창한 이름에 구속되지 않은 편안한 분위기가 좋았다.”

“육아하면서 독서 할 시간을 충분히 못 냈는데, 책을 읽을 수 있다는 자체만으로도 좋았다.”

“나만 하는 고민인 줄 알았는데 고민을 나누면서 함께 육아 스트레스를 많이 날릴 수 있었다.”

“책의 내용을 공유하고, 때로는 책을 추천도 해주는 일련의 과정 모두가 즐거운 경험이었다.”

“정체된 것 같은 생각에서 벗어나 나를 위한 시간을 가지고 배울 수 있어 좋았다.”

단순 장난감 만들기뿐만 아니라 부모교육과 독서모임을 통해 부모들의 역량을 키우는 활동도 진행했다. 책을 읽고 독서모임 시간을 가지는 것은 어렵다는 점을 잘 알기 때문에 부담감을 주지 않기 위해 노력했다.

부모교육은 공동육아, 건강과 안전, 아동 인권이라는 세 가지 주제로 진행되었다. 진정한 공동육아란 무엇인지, 아이들과 부모의 건강·안전은 어떻게 지킬 수 있는지, 아이들이 누려야 할 기본적인 인권은 무엇인지에 대해 배우는 시간이었다. 특히 요즘 교육 현장에서 가장 뜨거운 이슈인 <공동육아>에 대한 관심은 서곡초등학교 학부모들을 비롯하여 서곡 교육공동체에 속해 있는 부모들의 관심과 참여로 이어져 보다 의미 있는 시간이 되었다.

독서모임에서는 육아 및 교육과 관련된 책들을 읽고 우리가 함께 겪고 있는 육아의 고충과 고민을 공유하였고, 공부하고 싶은 영역의 책들을 읽고 알게 된 내용이나 느낀 점 등을 자유롭게 이야기하였다. 이렇게 다른 부모들과 육아 정보를 공유하고 교류하며 삶의 고민에 대해 나눌 수 있는 시간은 구성원들에게 힘든 육아와 현실 속 삶의 활력소가 되었다.



모두 함께 나누는 자리

우리는 친환경 놀잇감 캠페인 활동과 더불어 우리 공동체 소개의 목적으로 판부면 서곡리의 대표 행사에 모두 참여하였다. 2019년 공동체 활동을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 구성원들

이 조합원으로 참여하고 있는 서곡 공동육아 소꿉마당어린이집 이름으로 축제에 참여할 수 있었다.

엄마들이 직접 만든 어린이용 액세서리와 작은 소품을 아이들에게 나눠주며, 부모들을 대상으로 플라스틱 장난감의 유해성과 친환경 놀잇감의 중요성에 대한 캠페인 활동을 벌였다. 캠페인을 통해 생각보다 많은 부모가 친환경 놀잇감의 중요성 및 필요성에 대해 공감하고 있으나 현실적인 어려움으로 포기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또한, 마을 주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행사에 참여하여 캠페인 활동과 더불어 서곡에 사는 영유아 부모들에게 친환경 놀잇감 만들기 활동을 하는 공동체가 있다는 것을 알리고 참여를 유도하였다. 지역 축제에 직접 참여하고 다양한 활동을 함으로써 마을 구성원이라는 소속감을 느끼는 기회가 되었고 모임구성원 외에 마을 사람들과 소통할 기회를 가질 수 있는 좋은 경험이었다.



공동체 향후 계획

다같이 하나~들~셋! 슬로우 고고~!!

구름마을 손끝놀이터가 생각한 2020년 목표는 ‘슬로우 고고~!!’이다. 마을공동체 활동 및 지속가능성에 대한 부담감을 내려놓고, 묵묵히 제 갈 길을 가는 거북이처럼 집 안에서나 밖에서나 느리더라도 변화를 이뤄나갈 수 있도록 실천하자는 의미이다. 친환경 놀잇감은 주로 엄마들이 만들었다면 올해는 아빠들이 힘을 모아 직접 놀이터를 만들어보려고 한다. 멋지고 훌륭한 시설은 아닐지라도 자연 속에서 아이들이 뛰어놀 수 있는 공간을 만든다는 것만으로도 벌써 기대가 된다.

사실 마을공동체도 잘 모르던 엄마들이 만든 구름마을 손끝놀이터 활동은 어떤 변화와 성과가 있었는지 꼬집어 말하기가 쉽지 않지만, 우리가 활동하는 모습을 지역 시의원과 마을 리더들이 보고 공동육아의 필요성에 대한 의견을 표했다는 점은 주목할 만한 일이다. 마을

공동육아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인식하고 있었지만, 실제 시작된 활동이 없었기에 우리가 마을공동체의 새로운 시작으로 출발했다는 것은 의미가 있다고 본다. 무엇보다 엄마들 스스로가 활동을 통해 에너지와 재미, 의미를 찾아내기 시작했고 성장하게 되었다는 점이 가장 긍정적인 변화라 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그간 잔뜩 기합이 들어갔던 어깨에 힘을 빼기로 했다. 단 몇 사람뿐이지만 부담을 내려놓고 즐거운 마음으로 공동체 활동을 이어가려고 한다. 앞으로 내 아이에게, 우리의 아이에게 도움이 되는 것이라면 무엇이든 해주기 위해서 모두가 어우러져 살 수 있는 마을을 만들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다.



홍천군

새끼줄

텃밭 콘서트, 영귀미 복새통



- 📍 **지 역** 강원도 홍천군 동면
- 📁 **프로그램** 영귀미 복새통
- 📅 **지원기간** 2018년 ~ 2019년
- 👥 **참여인원** 마을 주민 전체



공동체 형성 과정

새끼줄 공동체의 시작

홍천군 동면은 홍천읍과 인접해 있는 곳이지만 문화적으로 소외된 지역이기도 하다. 문화적인 혜택은 읍내로 나가서 충족될 수 있기 때문에 동면 내에서 이루어져야 할 문화공간이 상대적으로 줄어들었다. 동면에는 2개의 분교가 있는 속초초등학교와 동화중학교가 있지만 마을과 연계된 작은 학교의 좋은 교육 혜택을 누리지 못하고 오히려 방치되었다. 속초초등학교의 도서관이 활용되지 못하고 안타깝게 문이 잠긴 것을 본 어느 학부모의 의견에서부터 우리 활동이 시작되었다. 도서관의 문을 켜주고 독서를 활성화하자는 취지로 학부모 독서동아리가 만들어졌다.



학부모들은 당번을 정해 매일 점심시간에 도서관을 개방하고 책을 대여하는 사서 봉사 일과 좋은 책을 선정하여 읽어주는 책 놀이 수업을 진행했다. 이 활동을 통해 아이들이 책과 친숙해질 기회를 제공하는 한편, 학부모들이 양서를 추천하여 읽고 토론하는 독서모임 활동도 했다. 모임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면서 현재 아이들이 누릴 수 있는 것이 너무 부족하다는 의견이 나왔고 독서동아리 형태보다 학부모와 학교, 마을을 연계한 교육공동체의 필요성을 느끼게 되었다. 일반적으로 교육공동체가 학교에서 출발하여 학부모, 마을로 확장해 갔던 것에 반해 새끼줄은 학부모가 주축이 되어 학교와 마을로 확장해 나갔다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다. 학교가 주축이 되었을 경우 담당했던 선생님이 전근을 가게 되면 공동체가 와해되는 경우가 있지만 학부모가 주축이 된 경우에는 더 건실한 기초 위에 공동체가 세워지고 발전할 수 있기 때문이다.

공동체 활동의 시작

마을을 새끼줄로 엮어내자

우선 마을에 숨어있는 선생님들을 찾아보기 시작했다. 놀랍게도 미술, 음악, 공연, 독서, 교육 등 전 분야에 걸쳐서 마임니스트, 연극배우, 문화예술 기획자, 오페라 연출가, 약사, 명상,

동양화가, 서양화가, 기타연주가, 피아노 연주가, 조형 예술가, 목수, 제빵 제과 전문가, 바리스타, 영어교사 등 다양한 마을 선생님들이 있었다. 우선 마을 선생님 모임을 통해 활동의 취지를 설명하고 공동체의 뜻을 모았다. 처음에는 우리의 힘만으로는 부족했기 때문에 더 많은 마을주민과 만남을 통해 활동의 기반을 다졌다. 만남을 더해갈수록 지역 어르신들의 도움도 많아졌고 마을 선생님들의 재능으로 좋은 프로그램을 아이들에게 제공할 수 있겠다는 확신이 들었다.



드디어 새끼줄 첫발 뛰기 행사를 했다. 아이들, 학교 선생님, 마을 선생님, 면장님, 마을 이장님, 노인회장님 등 마을 분들이 모여 축하해 주셨다. 모두가 팽과리와 북을 치고 동네를 한 바퀴 돌면서 마을 구석구석 새끼줄의 시작을 알렸다. 또한, 활동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 우리는 다방면으로 발품을 팔았다. 노력한 만큼 우리는 지원자격이 되는 다양한 사업들을 찾을 수 있었고 <강원도 마을공동체 지원사업>을 할 수 있는 행운을 얻었다.

공동체 활동내용과 성과

아이들과 함께한 시간, 그리고 마을 콘서트

2018년 봄부터 새끼줄 프로그램을 운영했다. 격주로 토요일마다 진행되는 전통무술 택견 강습과 텃밭 수업, 로빈슨크루소 프로그램, 음악 교실, 생태학습 등 하나하나 나열하기 어려울 정도로 많은 프로그램을 진행했다. 그만큼 눈코 뜰 새 없이 바쁘고 힘들었다. 처음이라 많이 서툴기도 했지만, 아이들이 즐거워하는 모습을 보면서 마음이 따뜻해지는 보람이 있었다. 마을에서는 공동체 프로그램의 운영 장소로 노인회관을 선뜻 빌려주었고, 동면 방범대에서는 차량을 지원하여 아이들의 참여와 귀가를 도와 프로그램을 수행하는 데 큰 도움을 주었

다. 2019년도에는 질풍노도의 시기를 보내고 있는 사춘기 중학생 친구들과 마을 삼촌들이 함께하는 마을 방송국, 인문학적 소양을 높이기 위한 ‘깨어있음’ 프로그램 등 공동체 역량 강화 수업을 통해 구성원들이 각자의 다른 점을 이해하고 나의 욕구를 표현하는 방법을 배우는 시간을 가졌다.

이처럼 많은 프로그램을 진행했지만 그중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은 단연 ‘텃밭 콘서트’라 할 수 있다. 처음에는 텃밭 수업에서 아이들이 직접 심고 가꾼 식물들이 잘 자라기를 기원하며 노래를 불러 주자는 취지로 기획했는데, 진행이 거듭될수록 아기자기한 생각들이 모여 마을 행사로 크게 발전되었다. 첫해에는 아이들이 직접 개사하여 만든 텃밭송을 시작으로, 아빠와 딸의 오카리나 연주, 선생님과 학생의 플루트 연주 등으로 막을 내렸다. 어쩌면 서툰고 미숙한 부분들이 있기에 더 재밌고 정감을 느낄 수 있는 행복한 시간이었다. 두 번째 텃밭 콘서트는 전년도의 경험이 바탕이 되어 더욱 업그레이드되었다. 귀촌한 오페라 연출가인 이해동님을 중심으로 만들어진 <동동가족합창단>, 속초초등학교 6학년 학생으로 구성된 아카펠라 동아리 <컨츄리 앨리스>가 참여하였다. 또한, 학생 수가 적어 폐교가 논의되지만 웃음을 잃지 않는 좌운분교 학생들과 선생님의 리코더 연주, 아빠와 딸의 오카리나 연주, 아이들이 직접 작사 작곡한 동요, 동네 청년으로 이루어진 젊은 밴드 <동네 문화살롱> 등 전년도 보다 마음도 더 풍성해지는 무대였다.



텃밭 콘서트는 모두 함께 만들어가는 축제이다. 공연 연출부터 무대감독, 기획, 안전도우미까지 마을 사람들이 한 자리씩 역할을 맡아 구성원으로서 참여했다. 공연 장소, 의자 등 물품은 면사무소에서 기꺼이 내주었고, 공연장 한편에서는 초등학교에서 제공한 팝콘 기계와 재료로 초등친구들이 재료가 떨어질 때까지 자리를 지키며 팝콘을 튀겨내었다. 백여 개의 객석 의자는 아이들의 손길로 하나하나 옮겨졌으며, 중학교 마을 방송국 팀원 12명은 처음부터 끝까지 콘서트의 현장을 촬영하여 실황중계를 하기도 했다. 이외에도 일손이 필요할 때마다 수고를 마다하지 않는 마을 삼촌과 이모들, 목소리 높여 응원해주시고 손뼉 쳐주시는 동네 어르신들, 텃밭 콘서트는 이렇게 만들어졌다. 모두가 손을 보탤고, 모두가 행복한 시간이었다.



공동체 향후 계획

마을, 공동체, 새끼줄의 남은 숙제

2년 동안의 활동은 실로 엄청난 양의 일이었다. 약 200회의 수업을 진행하다 보니 마을이 변화해 나가는 것을 확연히 느끼게 되었다. 아이들은 마을 곳곳에서 뛰놀게 되면서 아이들의 울타리는 학교를 넘어 마을로 확대되었다. 또한, 새끼줄에 대하여 좋은 평판이 생기면서 위상도 높아졌고 여러 잡지와 신문에도 소개되었다. 하지만 일을 하면서 끊임없이 머릿속에 ‘어떻게 하면 새끼줄을 지속적으로 유지할 수 있을까?’라는 질문이 맴돌았다. 또한, 아무리 좋은 일도 너무 열심히 하면 지치고 몸이 축나게 되니 일하는 속도의 중요성도 느끼게 되었다. 새끼줄의 활동이 하나의 직업으로 자리매김하지 못하면 구성원들은 생업에 종사해야 하므로 참여가 저조할 수밖에 없는 것도 해결해야 할 하나의 숙제로 남게 되었고, 구

성원 간 편안한 만남을 통해 편안한 관계가 형성되어야 불필요한 감정의 낭비가 생기지 않는다는 것도 알게 되었다. 지속가능한 공동체를 만든다는 것은 공동체의 목표를 ‘열심’으로 성취해 내는 하나의 일이 아니라 공익, 경제적 이익, 개인의 즐거움이라는 여러 개의 과제가 균형을 이루어야 하는 섬세한 일이다. ‘지속 가능한가?’라는 하나의 질문은 구체적인 세 가지의 질문으로 분화된다.

‘새끼줄은 공익적 가치를 추구하는가?’

‘새끼줄은 경제적 이익을 줄 수 있는가?’

‘새끼줄은 행복과 즐거움을 주는가?’

많은 사람이 공익적 가치를 위해 뜻을 모으고 일을 시작한다. 그러나 두 번째, 세 번째 질문의 벽에 부딪혀 좌초되기도 한다. 오늘도 새끼줄은 이런 숙제를 두고 지속가능성에 대해 고민하고 있다. 이 질문에 대해 모두가 머리를 맞대고 답을 찾아가며 해마다 멋있게 변화하는 새끼줄을 기대해본다.



홍천군

함께 자라는 작은 숲

어린이 배움터 운영, 마을 선생님 모임



- 📍 **지 역** 강원도 홍천군 서석면
- 📅 **프로그램** 어린이 주중 · 주말 배움터 운영, 마을 선생님 모임
- 📅 **지원기간** 2018년 ~ 2020년
- 👥 **참여인원** 마을주민 25명



공동체 형성 과정

우리의 시작은 귀농·귀촌

도시에 살다가 2010년 홍천으로 귀촌을 했다. 토박이 씨앗으로 농사도 지어보고, 시골에서 직장도 다니면서 시골살이에 적응해갔다. 그러다 귀촌에 뜻이 있는 배우자를 만나서 결혼도 하고 아이도 태어났다. 홍천 서석면에는 귀촌한 젊은 부부들이 많은 편이다. 시민단체인 생명 평화연대 회원으로 알고 지내다가 가까운 곳으로 귀촌한 이도 있고, 홍천 체류형 농업 창업 지원센터에서 1년 교육을 받으며 지내다가 서석면에 정착한 이도 있다. 이처럼 다양한 이유로 귀농·귀촌한 젊은 부부들이 많았고, 그사이에 태어난 양띠 아이들이 유난히 많았다. 아이들이 3살이 되면서 또래 아이들과 한 번씩 만나는 시간을 가졌다. 온종일 아이와 보내는 시간이 대부분이었는데 함께 만나니 아이들보다 부모들이 훨씬 좋아했다. 또, 아이들끼리 만나고 놀면서 서로 배우는 것도 많았다. 이러한 만남을 이어오던 중 한 엄마가 ‘우리도 품앗이를 해보자’ 하고 먼저 제안을 했다. 사실 가까이 살면서 이미 일상이 품앗이인 집들도 있었지만 좀 더 체계적으로 해보자는 것이었다. 그렇게 우리는 <함께 자라는 작은 숲>이 시작되었다.



공동체 활동의 시작

이모 엄마, 삼촌 아빠

엄마와 아빠가 선생님이 돼서 품앗이를 짜기 시작했다. 아침 일찍 모여 하루를 시작하였고, 함께 산책도 하고 돌아가면서 반찬을 싸 와 같이 밥을 먹기도 했다. 7명이나 되는 4~5살 아이들을 함께 힘을 모아 낮잠을 재우기도 하고, 공유할 수 있는 공간을 빌려서 육아를 하고 집집이 돌아가며 품앗이를 해보기도 했다. 다양한 공동체 활동을 하면서 지금 돌아보니 3살 아이의 육아 품앗이는 참 손이 많이 갔다. 화장실을 가는 것부터 밥을 먹는 것 모두 부

모의 손길이 필요한 나이였다. 아이들이 4살이 되면서 조금씩 스스로 할 수 있는 게 생겼고, 아이들끼리 어울려 놀 수 있는 놀이도 만들어갔다. 꾸준히 품앗이하며 아이들을 만나다 보니 ‘내 아이’에서 ‘우리 아이들’로 크고 있었다. 가장 중요한 건 우리도 내 아이만의 엄마가 아닌 모두의 이모 엄마가 된 것이다. 아이들이 함께 자라는 모습을 지켜보는 행복은 정말 컸다. 그리고 내 아이에게 나 말고 다른 이모 엄마, 삼촌 아빠가 생겼다는 게 참 든든했다.



공동체 활동내용과 성과

품앗이에서 배움터로

품앗이를 하다 보니 ‘공동육아를 해볼까?’, ‘작은 분교의 유치원에 가볼까?’ 등 여러 고민이 시작됐다. 형제자매를 둔 집에서는 서석 온마을 배움터와 연대하여 분교와 유치원에 보내기도 했다. 보통 5살이 되면 각자 때에 맞게 아이들을 유치원에 보냈다. 그래서 2018년에는 유치원이 끝나고 방과 후 학교 운동장과 마을회관에서 엄마들이 선생님이 되어 수업했다. 일주일에 두세 번 방과 후 배움터를 연 것이다. 아이들은 그저 운동장에서 마음껏 뛰어노는 것만으로도 좋아했지만 유치원이라는 장을 넘어 마을 산책, 절기살이를 알려주면서 배움의 폭을 넓힐 수 있도록 도왔다.

아이들이 꾸준히 만나고 마을 교육을 전할 수 있어서 좋았지만, 유아 어린이에게 방과 후 시간에 무언가를 한다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었다. 그러다 2019년에는 유치원 안에 들어가 수업을 진행할 기회가 생겼다. 유치원과 함께 연대했기에 가능한 일이었다. 일주일에 한 시간씩 학교 텃밭에서 텃밭 수업을 했다. ‘하늘땅살이’ 라는 이름을 가지고 사계절 동안 텃밭 활동을 한 것이다. 씨를 심고, 거두고, 먹어 보고, 흙에 살아가는 생명을 관찰하기도 했다. 열심히 텃밭 수업을 하다 운동장에서 신나게 뛰어놀기도 했다.

수업하다 보니 과연 우리의 수업에 대해 유치원 선생님들은 어떻게 생각할까 궁금하기도 했다. 한 학기를 마칠 때쯤, 텃밭 활동은 유치원에서 진행하기 어려운데 빈 부분을 채워줘서 고맙다면서 방학에 수업을 하나 더해줄 수 있는지 물어왔다. 그래서 여름에는 텃밭 수업, 천연염색 수업, 옛이야기 수업을 꾸려갔다. 그렇게 봄, 여름, 가을, 겨울을 보내고 난 후 아이들과 그린 그림에는 우리가 함께 보았던 새싹과 곤충뿐만 아니라 함께 한 놀이와 거두어 먹은 음식들이 그려져 있었다. 우리의 노력이 아이들의 마음에 간직되었다는 게 너무 감사한 순간이었다. 우리는 여기서 멈추지 않고 주말 배움터를 열어 계속해서 마을 교육 활동을 했다.

귀촌하고 가장 좋은 것은 어딜 가나 숲이 가까이 있다는 것이다. 주말에 만나서 그림책 이야기를 듣고, 흙과 모래로 자연 놀이를 하고 아이들끼리 자유시간을 마음껏 보냈다. 품앗이 부터 유치원과 배움터로 나아가며 아이들은 쑥쑥 성장하고 있었다. 사진만 봐도 지난 시간 아이들이 얼마나 자랐는지 알 수 있고, 부모들끼리도 커뮤니티가 형성되어 서로를 더욱 끈끈하게 연결하는 관계망이 만들어졌다.



활동을 마치며

함께 자라는 마을 선생님, 온 마을이 배움터!

우리의 활동 목적은 더불어 만들어 가는 마을교육과 다양한 참여계기 마련을 통한 결속력 있는 '마을공동체 실현'이었다. 1년 동안 육아 품앗이를 통해서 아이들을 돌보고 교육할 기회를 얻었고, 아이들과 부모들의 유대감 형성으로 결속력을 다질 수 있었다. 그런 의미에서 2020년은 마을 선생님들이 공부하는 시간으로 채워보려고 한다. 이야기 수업, 텃밭 수업, 요리 수업 등 부모들이 좋아서 하는 수업을 만들고, 아이들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내려고 하니 부모도 전문적인 교육이 필요하다는 것을 느꼈다. 부모 모두 자기만의 전문 분야가 있지만, 육아를 할수록 새로운 분야에 관한 관심과 열정이 커져 배움에 대한 욕심도 커졌다. 우리는 그래서 부모도 함께 공부하려고 한다. 본인의 주체를 형성하고 자기 터전에 배움 공간을 마련해서 아이들을 초대하고 꾸준히 만나고 싶다. 이런 마음이 생기다 보니 '공간에 대한 고민, 앞으로 학교와 어떻게 협력할 수 있을까, 우리가 아이들에게 전수하고자 하는 교육철학은 무엇일까, 그것을 어떤 장에서 펼칠 수 있을까, 유년기 다음 초등과정에 대한 준비...' 등 굵직한 과제들이 이어지고 있다. 하나하나 풀어가는 과정들이 쉽지 않겠지만 아이들과 함께 성장하고 마을에서 배움 숲을 잘 이루어 가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



동해시

초록사랑방

자녀들을 위한 체험놀이, 활동 및 부모들의 교육모임



- 📍 **지 역** 강원도 동해시 천곡동 · 평릉동
- 📁 **프로그램** 자녀들을 위한 체험, 놀이 활동 및 부모들의 교육 모임
- 📅 **지원기간** 2016년 ~ 2018년
- 👥 **참여인원** 마을주민 30가구



공동체 형성 과정

'좋은 가정'이라는 공감대

2015년 따뜻한 바람이 불어오던 무렵, 동해시 천곡동에 있는 초록도서관에서는 공동 육아 나눔터의 유아 자녀 프로그램이 진행되고 있었다. 그 활동에 참석하고 있던 젊은 엄마들은 활동을 마치면 자연스레 고민과 걱정들을 나누게 되었다. 그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던 대화 주제는 바로 자녀 교육이었다. 아이들의 방과 후 활동의 부재와 그에 따른 사교육비 부담에 대한 문제가 가장 큰 이슈였다.

사실 천곡동은 동해시 내에서도 공공기관과 상업시설, 주거생활이 복합적으로 형성된 생활 중심지이다. 그러나 어린 자녀들이 직접 참여하고 이용할 수 있는 교육적인 시설과 안전한 공간, 그리고 교육 프로그램이 부족한 실정이다. 게다가 부모들의 교육열의 편차가 매우 큰 편이다. 인구가 밀집된 곳은 자녀들을 밤늦게까지 소위 학원 뽕뽕이를 돌리는 가정도 많았지만, 방과 후에는 갈 곳이 없어 방치된 어린 자녀들도 많다. 여러 주변 상황과 환경에 예민할 수밖에 없는 어린 자녀들이 마음 놓고 적응을 하는 기회가 필요한 실정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함께 모인 젊은 부모들은 자녀 교육에 관한 깊은 이야기들을 나누게 되었다. 마음을 나눌수록 단순히 교육을 넘어서 '좋은 가정 만들기'라는 공감대를 형성하게 되었다. 자녀들을 위한 유익한 활동뿐 아니라 부모들을 위한 교육의 필요성도 공감하고, 구체적인 대안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공동체 활동의 시작

함께 배움, 함께 성장, 함께 나눔

작은 도시에서 좋은 가정 만들기라는 공감대를 가진 우리는 공동체의 이름을 <초록사랑방>이라 명명하고, 함께 기획하고 운영하는 교육 활동들을 함께 배움터라는 이름으로 시작하게 되었다. 자녀들의 교육 문제로 공동체 활동이 시작되었지만, 부모들도 자녀들과 함께 배워야 한다는 모두의 생각이 반영되었다. 이렇게 구체적으로 발걸음을 내디딜 수 있었던 것은 우연한 기회로 <강원도 마을공동체 지원사업>에 대하여 알게 된 것이고, 우리에게 새로운 도전을 할 수 있는 커다란 동력이 되었다. 하지만 여럿이 함께 모인 공동체의 첫걸음이 완벽할 리가 있을까? 초록사랑방 공동체도 여러 부침이 있었고 서로 간의 이견과 갈등도 있었다. 그러나 그것은 시작에 있어 당연한 과정임을 수용하면서 조바심 갖지 않고, 느리지만 함께 걸어가야 한다는 마음을 가졌다. 우리는 효율성을 지표로 삼는 ‘기업’이 아니라 ‘공동체’이니까!

‘함께 배움, 함께 성장, 함께 나눔’이라는 초록사랑방의 비전은 늘 꽃대가 되었다. 모두가 함께 배우고, 그 배움으로 함께 성장하고, 많은 사람에게 좋은 것들을 함께 나누고 싶은 마음이 있었다. 그래서 자녀들에게만 배움을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부모들도 함께 교육받을 기회를 마련하고 있다. 또 ‘우리 공동체만!’이라는 폐쇄성을 경계하면서 비슷한 고민을 하는 모든 사람에게 초록사랑방의 교육 활동의 문을 열었고, 지금까지도 공동체 회원뿐 아니라 일반 시민들까지도 참여할 수 있도록 운영하고 있다.



공동체 활동내용과 성과

작은 활동이 쌓아 올린 성과

지난 3년간 운영되는 동안 참여자들의 피드백을 반영하면서 조금씩 변화된 발자취들이 있다. 기본적으로 초록사랑방의 함께 배움터는 유익하고 대안적인 교육 프로그램을 전 세대에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삼아 운영된다. 가장 활발하게 운영되는 토요일 놀이터는 아이들이 학교에 가지 않는 토요일 오후에 2~3시간을 함께 모여서 다양한 체험 활동, 놀이 활동, 독서 활동, 만들기 활동을 진행한다. 공간의 제약으로 선착순 15명 정도의 초등 자녀들이 참여하게 되는데, 처음에는 그 인원을 채우기조차 쉽지 않았다. 하지만 좋은 커리큘럼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운영한 결과 지금은 SNS 홍보를 시작하면 10분 이내에 선착순이 마감될 정도로 활성화된 프로그램이 되었다. 방학이 되면 1~2주간 날마다 만나는 방학 놀이터도 있다. 친구들을 자주 만날수록 아이들의 관계는 더욱더 친해진다는 것을 느낀 시간이었다. 비정기적으로는 주중 방과 후에 자원봉사자들과 아이들이 함께 만나서 책을 읽어주는 독서 활동이 있다. 혼자서 책을 읽지 않는 아이들까지 적극적으로 참여하였던 매우 유익한 시간이었다.

이러한 프로그램은 학교나 학원에서는 경험할 수 없는 대안적인 교육 활동과 안전한 공간을 제공하며, 부모들에게는 마음 놓고 아이들을 맡겨 놓을 수 있는 유익한 공간을 제공할 수 있었다. 아무래도 각종 대안적인 체험, 놀이 교육이다 보니 부모들의 손이 많이 가는 것도 사실이다. 자녀들이 누리는 배움터에 더 좋은 간식, 더 좋은 활동을 지원하고픈 부모의 마음도 한껏 담겨 있다. 한 해를 마무리하며 정산을 하다 보면 자녀들을 위한 함께 배움터의 경우, 1년 동안의 연인원이 약 800~1,000여 명 정도가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 우리의 작은 활동들이 모여서 쌓아 올린 성과에 놀라기도 한다.



함께 성장하는 부모

최근 가정에서 수많은 문제가 양산되고 있음은 언론매체를 통해서도 쉽게 확인할 수 있다. 이는 자녀들의 문제라기보다 부모들이 좋은 부모가 되기 위한 스스로 성찰이 부족했고, 충분한 교육이 없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우리는 이러한 사실을 인지하고, 자녀들만 맡겨 놓는 공동체가 아니라 자녀와 가정을 위해 부모가 자발적으로 배워가고 성숙해져 가기를 꿈꾼다.

다양한 분야의 책을 읽으면서 자신의 가정과 삶에 적용해 의견을 나누기도 하며, 공동체의 방향성에 대해 토의를 하기도 한다. 그로 인해 부모들은 더욱 적극적으로 함께 배움터에 관심을 가지고 의견을 내는 긍정적인 변화가 있었다. 소통 전문가를 모시고 소통 강좌와 비폭력 대화 세미나 등을 열었고, 유쾌한 맘이라는 프로그램을 통해서 육아 스트레스에 시달리는 젊은 엄마들이 취미활동을 함께하며 다른 엄마들과 자연스러운 수다를 통해 스트레스를 해소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활동 모두 자발적으로 참여하였다. 부모들은 열정적으로 소통을 했는데, 때로는 눈물이 흘렀고 때로는 웃음이 가득했던 시간이었다. 부모를 위한 각종 세미나와 독서모임, 그리고 지역단체들과 연대하여 기획한 온 가족이 함께 즐길 수 있는 문화공연과 강좌들을 통해 매해 200여 명이 함께 배움터라는 우물을 공유하였다. 단순 수치보다 더욱 중요한 점은 그러한 과정 중에 동참했던 모든 공동체 구성원들이 즐겁고, 행복했었다는 것이다.



공동체 향후 계획

초록사랑방이 나아갈 곳

초록사랑방을 처음 구성했을 때부터 커다란 변화나 성과를 기대하지는 않았다. ‘함께 모인 우리만이라도 행복해지고 느리게 가더라도 함께 가고 바르게 가자!’라는 마음가짐이었다. 이러한 진심이 주민들에게 조금씩 전달이 되었는지, 3년이 지난 지금까지 함께 배움터에 동참하는 가정들이 점점 확장되고 있다.

우리는 ‘마을이라는 땅에 뿌리를 내린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든다. 한 걸음 더 나아가 장기적인 청사진을 그려야 할 때가 되었다고 모든 구성원이 생각했다. 뜬구름 잡듯이 구상만 하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준비를 해야만 했다. 논의 끝에 몇 가지 커다란 변화를 뒤보기로 하였다. 먼저, 함께 배움터의 무대였던 초록도서관이라는 단체에 소속되어 연대하기로 했다. 그로 인해 더욱 큰 공신력을 갖게 되었고 동해 지역에 대외적으로 홍보할 수 있는 기반과 더욱 안정적이고 체계적인 지원과 교육을 제공할 수 있는 역량을 보이게 되었다. 또한, 연회비를 책정했다. 공동체는 궁극적으로 외부 지원에만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자립을 향해 나아가야 한다. 초록사랑방에 속한 가정들도 함께 배움터의 가치에 대하여 자긍심이 있으며, 이는 앞으로 장기적으로 지속하는 데 큰 힘이 될 것이다. 그리고 교육 프로그램들의 일관성을 위해 비효율적인 프로그램들은 과감하게 정리하였다. 사업 초기에는 여러 사람의 바람과 열망을 되도록 많이 포용하려고 하다 보니 큰 나무에 잔가지가 많았다고 한다면, 이제는 적절한 가지치기를 통해서 비바람이 몰아치는 상황에서도 크게 흔들림이 없는 공동체를 확립하고자 한다.



‘함께 배움, 함께 성장, 함께 나눔’이라는 비전은 거창하게 보이지만, 애초에 우리가 꿈꿨던 것은 ‘작은 배움, 작은 성장, 작은 나눔’이었다. 작은 발걸음 하나라도 떼어보자는 것이었다. 그래도 지금까지는 느리지만, 함께 그리고 바르게 나아가고 있는 듯하다. 그렇게 한 걸음씩 나아가다 보면 어느새 꽃밭이 저만치 보이지 않겠는가. 다시 한번 처음 마을을 되새긴다. 처음 마음에 욕심의 거품이 스며들지 않기를 바라면서.

평창군

부모교차지

독서 · 영화 토론 및 지역아동센터, 경로당 봉사활동



- 📍 **지 역** 강원도 평창군 대관령면
- 📁 **프로그램** 독서 · 영화 감상 토론, 지역아동센터 및 경로당 봉사활동
- 📅 **지원기간** 2019년
- 👥 **참여인원** 농촌주부 12명



공동체 형성 과정

'강원도 마을공동체' 희망의 불씨가 날아들다

우리는 주부들이 모여 창의적인 활동을 한다거나 자기개발을 위해 무엇을 해볼 만한 엄두도 나지 않았고, 무엇보다 활동공간 마련이 어려운 상황이었다. 어느 날은 여담을 나누다 의미 있는 모임을 만들자는 이야기가 나왔다. '어떤 의미 있는 활동을 할 것인가?' 그 당시 모였던 주부들은 대부분 적십자 봉사라던가 여성소방대, 농가 주부 등의 봉사단체에 가입하여 활발한 봉사활동을 하고 있었으나, 새로운 시작으로 차별화된 봉사활동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모았다. 대부분 평소에 책을 좋아하고 즐겨 읽는 취미가 있다는 공통점을 가지고 4월 23일 '책의 날'을 맞이하여 6명의 농촌 주부들의 책 읽기 동아리인 <북모꼬지>를 결성하게 되었다. 다음 달에 이야기 나눌 지정도서 선정과 읽은 책에 대한 다양한 생각을 공유하며 스스로에 대한 자존감이 높아졌고 긍정적인 에너지의 반란이 일어났다.



바쁜 삶 속에서 허덕이면서도 자신을 위한 작지만 소중한 일을 함께하기 바라는 마음으로 열심히 북모꼬지를 꾸려갔다. 그러나 2017년 활발했던 활동은 2018년 동계올림픽과 패럴림픽이 열리는 동안 소강상태로 접어들었고, 올림픽의 열기가 사라진 뒤에도 여전히 꺼져가는 불씨는 되살아날 기미가 보이지 않았다. 또한, 동아리 활동과 병행되길 바랐던 자발적 봉사활동은 단 한 번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었다. 이는 봉사활동에 필요한 자원을 마련하기 위한 또 다른 활동이 요구된다는 점을 간과한 계획이었고, 무엇보다 시간을 내는 것이 가장 큰 어려움이었다. 그렇다고 개개인이 봉사활동을 위한 자금을 기부하는 것도 결코 쉬운 일은 아니었다. 그렇게 흐지부지해가던 동아리에 어느 날 갑자기 희망의 불씨가 날아들었다. <강원도 마을공동체 지원사업>으로 우리의 활동을 이어가게 된 것이다.

공동체 활동의 시작

자신을 위해 찾은 의미 있는 삶과 봉사활동

<강원도 마을공동체 지원사업>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어떤 활동을 할까 많은 고민을 했다. 우선 그동안 진행했던 독서 후 토론 활동과 마을 소외계층 아동 돕기, 경로당에서 책 읽어드리기 등의 봉사활동과 체험프로그램을 계획했다. 우리는 사업에 선정되지 않더라도 ‘북모꼬지 활동’을 열심히 하자고 의지를 다잡았다. 비록 봉사활동을 위한 자원마련은 어렵겠지만 독서 활동이라도 열심히 하면서 봉사활동에 대한 계획을 세워보자는 것이었다. 그러던 중 마을공동체 지원사업에 선정되었다는 희소식이 전해졌다. 우리는 즐거운 마음으로 공동체 활동에 대한 강력한 불씨를 품은 채 모였고, 각자 해야 할 일들을 스스로 찾아내어 역할분담을 시작했다. 예전에 책을 읽고 난 후 이야기 나누기 활동에서 소극적이셨던 분들이 만나 싶을 정도로 적극적으로 변한 것이다. 자신들이 할 수 있는 일을 찾아냈고, 그 일에 책임을 지고 공동체 활동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



구성원들은 정기적인 독서 활동과 독서 토론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지역주민으로서의 역할을 강화했다. 지역 영화관에서 영화 관람 후 영화 내용 토론 활동을 통해 지역의 애乡심을 고취 시켰고, 소외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봉사활동과 독서 후 문집 제작 등의 활동으로 농촌 주부들의 지역 활동 참여의식도 높여나갔다. 역량 강화를 목적으로 프로그램을 계획했던 북모꼬지는 <강원도 마을공동체 지원사업>에 선정되어 프로그램을 시작하면서 목표로 했던 변화와 성과가 바로바로 나타나고 있다.



공동체 활동내용과 성과

멋진 엄마, 기특한 며느리, 자랑스러운 대관령 주부들

두 시간 중 한 시간은 책에 대한 다양한 생각들을 나누고, 한 시간은 동화책으로 독서토론 시간을 가졌다. 동화책으로 하는 독서토론시간은 다양한 놀이와 재미있는 토론기법을 이용해 수업의 집중도가 높았고, 아이들과 함께하면 효과가 더욱 좋겠다는 의견이 모였다. 또한, 매월 1회 영화를 보고 독서와 영화감상에 관한 토론을 함께하였으며, 경로당 어르신들을 찾아뵙고 무료 봉사의 그림동화 수업도 진행하였다. 무엇보다 보람 있었던 것은 매주 일요일 마을과 아동센터 어린이들을 만난 것이다. 체험학교 운동장에서 놀기도 하고, 자신의 엄마, 혹은 친구의 엄마들과 함께 책을 읽고 이야기를 하며 가끔은 맛있는 간식을 나눠 먹기도 했다. 함께 보고 싶었던 영화도 보고 감상 후기도 나누면서 아이들이 즐겁게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했다. 여름방학 중에는 아이들이 평소보다 더 많이 나올 것이라 예상했지만 각종 행사와 외부 체험 등의 이유로 오히려 수업에 나오는 학생이 줄어들었다.

더구나 8·9월에는 북모꼬지 회원들이 바빠서 참석률이 떨어지기도 했다. 활동에 위기가 오는 것이 아닌가 하는 걱정이 들기 시작하면서도 경로당 어르신들과 함께 활동하는 시간 동안 행복해하시는 모습을 보고 힘을 냈다. 고맙다고 하시면서 손을 잡아 주실 때는 감동도 있었지만 내 어머니와 함께 영화를 보러가지 못한 송구함에 얼굴이 붉어지기도 했다. 그럴 때면 부모님, 시부모님도 우리 구성원 같은 사람들이 주변에 있어 같은 행복을 느낄 수 있길 조용히 바라기도 했다. 우리 북모꼬지 회원들은 <강원도 마을공동체 지원사업>을 진행하면서 자녀들에게는 멋진 엄마였고, 마을 어르신들에게는 기특한 며느리들이었으며, 스스로에게는 자신의 삶을 소중히 여기고 자랑스러워하는 ‘대관령의 주부들’이었다.



공동체 향후 계획

꿈, 기쁨, 행복한 삶의 의미

2019년 1년 동안 우리 주부들이 참 많이 변한 것 같다. 바쁜 시간을 쪼개어 아이들과 놀아 주고 어르신들께 책도 읽어드리고, 영화도 보러 갔다. 그전까지는 시간이 날 때만 참여했다면, 공동체 활동을 하면서는 일부러 시간을 만들어 참여했고 서로 맡은 바 책임을 다했다. 아이들은 대관령이 살기 좋은 동네라고 말하며 엄마가 멋있어 보인다고 했다. 어르신들은 겨우 경로당에 나가서 화투를 치거나 어찌다 운영되는 프로그램에 인원수만 채우고 시간을 보냈는데 다 같이 영화도 보고 무엇보다 책 읽어주는 시간이 좋았다고 말씀하셨다. 특히 대관령면 플라마켓 행사장에서 어르신들이 쓰신 시로 '마음으로 보는 시화전'부스를 운영하였는데 이것이 가장 기쁜 일이었다고 회상하셨다. 대관령지역의 농촌 주부들은 독서 활동, 토론 수업을 통한 역량 개발과 영화 관람 등의 문화 활동 경험, 그리고 활동의 경험을 이웃과 함께 나누었다.



북모꼬지 회원들 스스로 삶의 질 향상을 목적으로 <강원도 마을공동체 지원사업>을 시작했다. 마을공동체 활동을 통해 위의 목적 달성은 물론이고, 지역의 아동과 마을 어르신들의 삶에도 행복을 전달하는 역할을 아주 훌륭히 해냈다고 자부한다. 2020년 경자년은 2019년 <강원도 마을공동체 지원사업>을 한 단계 끌어올려 독서 활동과 영화감상 토론을 더욱 심도 있게 운영할 것이다. 어르신들을 모시고 뮤지컬이나 난타 공연 관람 프로그램을 준비하여 좀 더 다양한 문화 활동의 기회를 제공할 계획이다. 그리고 무엇보다 아이들과 어르신들이 함께 한 공간에 모여서 아이들이 어르신들께 책을 읽어드리거나, 어르신들이 아이들에게 들려주는 옛날이야기 수업 시간도 계획하고 있다. 이것은 우리 북모꼬지 회원들이 대관령의 어린이들과 어르신들을 이어주는 가교자의 역할을 하는데 매우 중요한 마을공동체 활동이 될 것이라고 확신한다.

속초시

들꽃향기 작은도서관

재능기부 수업, 마을잔치, 외국어교실, 통기타교실 등



📍 **지 역** 강원도 속초시 영랑로

📁 **프로그램** 재능기부 디딤돌프로젝트, 여름애(愛)마을주민과 함께 식사, 가을애(愛)마을나눔잔치, 겨울애(愛)나눔다리 이웃과 함께 식사, 겨울애(愛)가족과 함께 쿠키, 마실방 마실나들이, 일본어교실, 영어프리토킹, 통기타교실, 일러스트 드로잉

📅 **지원기간** 2019년

👥 **참여인원** 마을주민 80명



공동체 형성 과정

누구나 모이고 소통하는 공간 만들기

들꽃향기 작은도서관은 시내와 떨어져 어르신들이 많고 상가가 적어 속초에서 조용한 곳에 속한다. 근처 초등학교가 있지만, 초등학교 이외에 여러 가지 행사가 이루어지는 것을 별로 찾아볼 수 없었다. 세미나나 마을 모임 등은 발전된 옆 동네에서나 있을 수 있는 것으로 간주했고, 교육에 관심 있는 주민들은 아이들이 성장함에 따라 다른 동네로 이사 가곤 했다. 몇 년 동안 지켜본 결과 서로에게 큰 이익이 되지 않으면 협조하거나 마음을 모으는 것은 힘들고, 조그만 불이익에도 서로에게 험한 말을 하곤 했다. 보이지 않는 의사소통의 벽이 너무 높은 것이었다. 교육적인 부분에는 관심이 없었고 노인들과 어려운 가정, 개발되지 않는 힘든 동네라는 인식이 박혀있었다. 지난해엔 개발에 관한 이권 때문에 다툼이 많았고, 소외되는 주민도 있었다.

지역을 변화시키기 위해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사람들이 모여 소통할 수 있는 장소와 도서를 함께 나누는 방법을 고민하다가 마음이 맞는 몇 명과 함께 누구나 편하게 모이고 소통하는 작은 도서관을 만들게 되었다. 몇 개의 작은 도서관을 찾아가 보았지만, 아동센터거나 거의 활동을 하지 않았고 주변에서는 작은 도서관을 만드는 것에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기존 도서관 관계자들은 염려스러운 말로 이름만 작은 도서관인 곳을 만드는 것 아니냐며 걱정하기까지 했다. 하지만 우리는 도서관이 세워지기 이전부터 책, 나눔, 만남을 좋아했고 다른 사람을 돕기 위한 모임을 해왔기에 앞으로도 지속해서 활동을 이어나갈 확신을 가지고 계속 추진하기로 했다.



공동체 활동의 시작

디딤돌 프로젝트를 시작

우리 도서관의 가장 큰 역할은 마을 사람들을 이어주는 것이다. 대표적인 활동이 디딤돌 프로젝트이다. 도서관이 만들어진 후, 정리와 청소 등 잔잔한 일들이 많아 주변 학생들의 도움을 받고 있었다. 1년 정도 지내다 보니 학생들의 봉사활동은 일반적으로 청소나 정리와 같은 단순 봉사였다. 자신이 가지고 있는 열정과 잠재력이 매우 풍부하고 하고 싶은 것과 할 수 있는 것들도 다양했지만 단순 봉사활동만 하고 있던 것이다. 그러던 중 학교 이외의 곳에서 전문적이지는 않지만 다른 사람을 위해 자신의 재능을 쓰고 싶어 하는 학생들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학부모들은 아이들이 참여할 수 있는 새로운 프로그램들이 생기길 바라고 있었다.

이를 계기로 자신이 가지고 있는 무언가를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어 줄 수 있도록 재능기부 프로그램인 '디딤돌 프로젝트'를 시작하게 되었다. 수업을 진행하기 위해 재료비 명목으로 조금씩 걷는 적은 회비와 기부를 가지고 할 수 있는 일들은 많지 않았다. 그래서 주변 분들의 도움을 통해서 하고 싶은 것들에 대한 의견을 조사하고 함께 계획했다. 그런 와중에 시기적절하게 <강원도 마을공동체 지원사업>을 알게 되었고, 우리의 취지와 부합하여 사업을 신청하고 공동체 활동을 본격적으로 시작했다.



공동체 활동내용과 성과

들꽃처럼 모여 향기를 내라

마을공동체 지원사업은 6월부터 12월까지의 짧은 기간이었지만 여러 가지 활동을 통해 도서관에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다주었다.

첫 번째는 통기타교실이다. 청소년부터 성인까지 모임을 통해 통기타를 배웠다. 재능기부 선생님은 직접 피크를 만들어 오시기도 하고, 기타 수리 등 수강생들의 열정을 북돋우기 위해 최선을 다하셨다. 수업 중 미니콘서트를 열기도 하고, 실력이 조금 더 늘면 버스킹과 연주회를 열어 봉사를 계획 할 정도로 모두 애착을 가지고 활동을 했다.

두 번째는 일러스트 드로잉교실이다. 색연필로 드로잉을 배우고 달력이나 엽서에 자신의 그림을 담아 주변 사람에게 선물할 수 있도록 했다. 참여주민 중 자신의 꿈이었다고 말하면서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오시는 분, 사업을 접고 속초로 내려와서 지내던 중 자녀들의 권유로 참여하신 분 등 다양한 사연으로 만날 수 있는 새로운 장이었다.

세 번째는 여름, 가을, 겨울 애(愛)이다. 계절마다 연령층에 상관없이 마을 분들을 모시고 식사도 하고 부스를 열어 다양한 활동으로 주민참여를 이끌었다. 식사 준비는 주민분들은 재료를 가져오기도 하고, 밑반찬이나 간식을 가져오는 등 모두의 참여로 만들어졌다. 이는 자신이 나눌 수 있는 것들을 통해 함께 돕고 만들어가는 과정을 배우고, 한 사람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 잔치를 통해 여러 사람이 생각과 마음을 맞추는 시간이었다.



네 번째는 마실 나들이다. 자녀들과 떨어져 사시거나 자녀들이 바빠서 십여 년 동안 마실 구경 한번 못 가신 분들이 계셨다. 도서관에 모여 이야기를 하는 것도 좋았는데 마실 나들이까지 함께할 수 있어 감사하다고 하시며 밥을 사시기도 하시고, 시장에서 사 온 옛날과자를 나누어 주시기도 하셨다. 봄에는 라벤더를 구경하러 가고, 여름에는 계곡물에 발을 담그고, 가을에는 정선 아리랑 공연과 정선 장을 돌아보기도 했다. 시간이 안 맞거나 몸이 아프셔서 못 가는 바람에 아쉬워하시는 분들이 많아 정선에는 두 번 방문을 한 적이 있을 정도로 행복한 시간이었다. 이처럼 <강원도 마을공동체 지원사업>을 통해 나이와 대상이 다양하고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을 다른 사람과 공유하고 나눌 수 있다는 점은 우리에게 너무나 큰 행복이 되었다.



활동을 마치며

언제나 타리가 되어주는 들꽃향기 작은도서관

작은도서관이 처음 만들어질 때 책만 대출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 분들도 있고 ‘생각은 알겠는데... 과연 될 수 있을까?’라고 의구심을 품고 바라보던 시선들도 있었다. 우리는 하루아침에 일을 벌인 것이 아닌 좋아하는 것들과 그것을 향해 지속해서 해오던 것들을 마을공동체의 의미와 형성에 더해 조금씩 확대하여 나아갔다. 가장 큰 변화는 도서관과 마을공동체에 대한 관심 및 회의 참여도가 늘어났다는 점이다. 회원 수도 40~50명에서 현재는 120여 명을 넘어 계속 늘어나고 있다. 재능기부의 질도 점점 높아져서 아이들과 부모님의 참여도가 올라가고 재능기부를 하려는 분도 많아졌다. 또한, 참여하신 분들은 이런 도서관이 없었다며 도서관 밴드에 새로운 알림이 올라오기만을 기다리신다. 미미하지만 조금씩 사람들에게 알려지고 있는 것이다. 언제든 올 수 있고, 배고플 땐 다 함께 밥을 먹을 수 있고, 함께 삶의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공간이 되어가고 있다.

우리는 여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가족들의 활동공간을 넓히고 부모교육 공동체의 의미로 함께 배워 자녀에게 나누어 줄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만들어가려고 한다. 또한, 만남과 소통으로 마음의 문을 여는 자리를 마련하고, 쉽게 접하지 못했던 다양한 교육을 시도할 것이다. 공동체 활동을 통해 관계 속 이해의 폭을 넓히며 함께하는 기쁨을 느낄 수 있도록, 사람과 사람의 마음이 이어져 지속해서 마을공동체를 형성해 나갈 수 있으면 하는 바람이다. 들꽃처럼 저마다 다른 많은 사람의 모습과 향기가 조화롭고 아름답게 퍼져나가는 도서관이 되었으면 한다.





환경정비형

춘천 뉴시티코아루아파트

원주 마을안전 서포터즈

강릉 입암1주공아파트

정선 예미리 마을발전추진위원회

삼척 구공탄 새뜰마을

춘천시

뉴시티코아루아파트

행복나눔 텃밭분양



- 📍 **지 역** 강원도 춘천시 사농동
- 📁 **프로그램** 텃밭 분양 및 관련행사
- 📅 **지원기간** 2019년
- 👥 **참여인원** 아파트주민 81명



공동체 형성 과정

옆집은 있어도 이웃은 없는 아파트

춘천 강북 외곽지역에 자리한 우리 아파트는 463세대가 거주하고 있는 아담하고 조용한 아파트 단지이다. 대부분의 입주 아파트가 그렇듯이 이곳 역시 입주 초에는 기대에 못 미치는 하자보수로 인해 입주자 대표회의에 대한 입주민들의 불신이 깊어지고 있었다. 아직 개발되지 않은 주변 환경과 생활시설 미비로 인한 불편함 등을 비롯해 층간소음, 흡연문제 등 다양한 문제로 날카롭게 대립 되어 하루하루가 어수선했다. 이에 갈등을 일으키는 불만을 완화 시키고 혼란과 불신에서 벗어나 살기 좋은 마을로 변화시킬 방법을 고민해야 했다. 가장 먼저 해결해야 할 것은 입주 초기라는 상황 때문에 서로를 잘 몰라 소통이 어렵다는 점이었다. 아파트는 이웃들과 가까이 아래 위로 모여 살지만, 옛날의 이웃보다 더 멀리 느껴진다. 이웃과 사소한 다툼이 서로 감정대립으로 불거지면서 악화되는 경우도 많다.

아파트 내 분쟁의 양상을 보면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 서로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대화보다는 오해로 갈등을 키운다. 이러한 분쟁을 조금이라도 예방할 수 있는 길은 이웃 간에 안면을 트고 소통하며 함께 살아가는 공동생활을 이해하는 것이다. 평소 소통하고 인사하며 지냈던 관계라면 조금 더 조심하고 양보하는 마음으로 상대방을 배려하였을 것이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입주민들이 자발적으로 만나 함께 시간을 보내며 지속해서 소통할 수 있을까에 초점을 두고 방법을 찾기 시작했다. 주민이 스스로 문을 열고 나와 이웃과 함께할 수 있으려면 사람들이 원하는 물리적 시설과 프로그램 등 환경이 갖춰져야 한다고 생각했다. 입주민들이 자발적으로 모일 수 있는 공간을 찾기 시작하자 맨 처음 보인 것은 아파트 주변의 쓰레기로 가득한 비어있는 땅들이었다. 우리에게 뜻이 생기자 길이 보이기 시작했다.



공동체 활동의 시작

텃밭에서 시작된 '우리'

아파트 주변 빈 자투리땅의 소유주는 우리 아파트 시행사이다. 시행사와 협의해 일부 땅은 기증을 받기로 하고 약 700㎡를 일구어 입주민들에게 텃밭으로 분양하기로 합의했다. 2014년 3월 텃밭을 만들기 위해 유희지의 쓰레기를 청소하고 돌을 골라내고 텃밭으로 일구어 38두락을 만들었다. 텃밭 분양신청을 공고하자 신청세대가 110세대를 넘어 3:1의 경쟁률을 보이며 입주민의 관심이 집중되었다. 그렇게 즐거움과 기대로 가득 차 아파트에 활기를 띄기 시작하며 첫해 농사가 시작되었다. 그러나 농사를 시작한 입주민들은 대부분 한 번도 농사를 지어본 적 없는 도시민이라 어찌할 바를 몰라서 경로당 어르신들과 연세 드신 입주민들께서 많은 도움을 주셨다.



시행착오는 있었지만 텃밭은 여름내 풍성하고 싱싱한 먹거리를 밥상에 올리고, 어르신들에게는 취미생활을 하는 놀이터이자 몸을 움직이게 만드는 운동장이 되었다. 또한, 이웃과 이야기꽃을 피우는 커뮤니티 가든, 농작물을 자랑하는 경연장, 이웃과 수확물을 나누는 따뜻한 초록마을이 되었다. 이것뿐만 아니라 식탁에 올릴 먹거리를 준비하기 위해 아이들을 데리고 텃밭에서 채소를 수확하는 가족의 모습은 보는 사람의 마음까지 행복하게 했다. 그렇게 텃밭을 오가며 다정한 안부 인사를 나누고 다음에는 어떤 작물을 심을지 의견을 나누는 등 이웃 간에 이야기가 있는 마을로 서서히 변화했다. 텃밭에서 시작된 이웃과의 소통이라는 작은 고리가 사슬처럼 엮여 '우리'라는 공감대를 만들어가기 시작했다.

공동체 활동내용과 성과

텃밭에서 불어온 나비효과

텃밭으로 인해 단지 분위기는 화기애애해졌지만 농사를 짓고 이웃과 나눈다는 것 외에 공동체의 의미는 더 이상 확장되지 않았다. 분위기 전환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 무렵인 2019년에 <강원도 마을공동체 지원사업>에 선정되었다. 텃밭에서 씨를 뿌리고 키워낸 공동체 의식이 입주민 전체에게 나비효과를 가져온 계기가 되었다. 우선 텃밭 환경개선사업을 통해 두락마다 번호 꽃말을 설치했고 텃밭과 인도 경계에 길이 60m의 목재 담장을 설치해 꽃밭을 만들었다. 여름내 루드베키야와 접시꽃이 가득 피고 가을엔 꽃 범의 꼬리와 구절초가 피어 농작물과 어울려 계절감을 듬뿍 느끼게 했다. 그리고 6월 초 햇살 좋은 날 입주민을 초대해 직접 수확한 쌈 채소와 삼겹살을 함께 나눠 먹으면서 입주민 재능기부 공연을 관람하는 텃밭 가든파티를 열었다. 경작 회원들은 텃밭에서 가꾼 야채를 준비하고 경로당 어르신들과 자원봉사자들의 도움을 받아 삼겹살 등의 음식을 준비했다. 춘천시장님, 신사우동장님 등 외부 손님을 비롯한 약 400명 이상의 입주민이 참여한 가든파티는 대성황을 이루었고 함께 나누고 즐기며 모두가 행복하고 풍성한 하루가 되었다. 11월에는 텃밭에서 수확한 김장 채소로 경로당에서 김장 나누기 행사를 마치고 활동에 대한 최종 평가와 2020년 계획에 대한 간담회를 가졌다. 더 살기 좋은 마을을 만들기 위한 지속적인 활동방안과 다양한 프로그램을 모색하였고 1년간 서로의 노고에 대한 감사로 마무리되었다.



이웃 간의 상호교제, 연로한 입주민의 적극 참여와 소일거리 제공, 무농약의 건강한 식자재를 밥상에 올리는 보람, 아이들에게는 흙을 만지며 자연과 교감할 수 있는 정서적 지원 등 효과는 다양했고 참여자의 만족도도 매우 높았다. 실제로 연로하신 어르신들의 텃밭에 대한 애정은 매우 컸다. 어르신들은 계절별로 다양한 농작물을 재배하시며 매일 매일 정성스럽게 농작물을 돌보신다. 콩을 수확해 된장도 담그시고 옥수수, 고구마, 땅콩, 호박 등을

심어 이웃과 나누어 먹고 가을에는 배추, 무를 심어 김치도 담그신다. 우리는 텃밭이라는 물리적 공간이 있었기 때문에 공동체 활동이 지속적으로 이어질 수 있었다. 앞으로는 공동체 활동이 전체 입주민에게 끼치는 긍정적 영향에 대해 인식하고 다양한 공동체 활동을 시도해보고자 하는 노력이 더 필요할 것 같다. 2014년 텃밭농사로 시작된 공동체 활동이 나비의 작은 날갯짓이었다면, 2019년은 그 날갯짓이 전체 입주민의 공동체 의식에 바람을 불러온 한해였다.



활동을 마치며

살기 좋은 우리 마을공동체, 소통이 답

우리가 바라는 것은 살기 좋은 마을을 만드는 것이다. 살기 좋은 마을의 가장 기본은 사람 사이의 관계이다. 다양한 계층의 사람들이 모여 사는 아파트는 각자의 기호와 가치관이 혼재하고, 물리적으로 가까운 거리 때문에 상호 간 갈등의 요인이 많은 곳이다. 오해는 오해를 키우고 불신은 불신을 키우는 악순환이 되풀이되며 신뢰 부족은 공동체를 황폐화 시킨다. 잘되는 공동체와 그렇지 않은 공동체의 차이는 바로 소통에 의한 신뢰 여부라고 생각한다. 가끔 이렇게 묻는 사람들이 있다. “몇 사람이 모여 활동을 한다고 해서 크게 달라질 것이 있나요?”. 공동체 활동의 효과에 대해 회의적이고 부정적 시선이 저변에 깔려있다. 그렇다고 해서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면 변화도 발전도 기대할 수 없다. 공동의 관심사를 함께하며 긍정적인 영향을 넓히다 보면 그것이 공동체의 문화로 성장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공동체를 활성화 시키려면 현실적으로 여러 가지 원동력이 있어야 한다. 우선 소명의식을 갖고 공동체를 이끌어줄 리더가 있으면 좋겠지만 그러한 역량이나 열정을 가진 리더를 만나기란 쉽지 않은 일이다. 또한, 지속적으로 구성원들의 참여를 확대할 수 있는 콘텐츠와 재원 마련도 과제이며 자칫 안 하느니만 못한 결과를 도출할 수도 있다. 그렇지만 세상을 변

화시키는 것은 늘 소수의 사람과 의견으로부터 시작된다. 누군가 먼저 황량한 들판의 잡초와 돌을 들어내고 꽃밭을 일궈내기 시작하면, 함께 꽃을 심는 참여자가 하나 둘 늘어나고 언젠가는 모두가 즐기는 아름다운 꽃밭이 만들어질 수 있다. 그렇게 같은 생각을 하는 소수의 노력이 공동체의 문화를 변화시킬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 쉬운 일은 아니겠지만 성큼 자라난 우리의 행복나눔 텃밭 공동체 활동이 지속되어 우리 아파트를 더 살기 좋고 아름다운 삶터로 만드는 원동력이 되길 바란다.



원주시

마을안전 서포터즈

마을안전 보안관, 여성안심귀가 동행, 불법카메라 점검



- 📍 **지 역** 강원도 원주시 단계동
- 📁 **프로그램** 마을안전보안관, 여성안심귀가 동행서비스, 불법몰래카메라 안전점검
- 📅 **지원기간** 2017년 ~ 2019년
- 👥 **참여인원** 마을주민 39명



공동체 형성 과정

우리마을 안전 지킴이

원주시 단계동은 도시개발구역으로 식당과 유흥업소가 밀집되어 있다. 주변에는 시외버스터미널, 고속버스터미널, 학교, 주택가, 상가 등이 분포되어 있는데 강원도에 하나밖에 없는 1종 업소라고 하는 유흥가가 여기 단계택지에 있다. 1년에 보통 원주에서 발생하는 사고 건수가 2017년도 통계로 한 4,700건쯤 되는데 그 중 1,700건 정도가 단계동 단계택지에서 발생할 정도로 범죄 환경에 많이 노출되어있다. 그래서 2016년을 시작으로 의식이 있는 주민들이 모여 ‘마을안전 서포터즈’라는 마을공동체를 만들어 마을 내 안전을 위한 환경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이렇게 많은 위험 속에 안전한 우리 마을을 만들기 위해 발 벗고 나선 주민들과 이전에 받은 도움을 돌려주고자 하는 주민들이 모여 사고예방과 안전교육을 실시하였다. 야간에는 부족한 경찰력을 도와 여성 안심 귀가를 위한 보안관 활동을 지원하면서 여성들의 귀가에 근심과 걱정을 덜어주어 안전한 마을환경을 조성하는데 일조하고 있다.



공동체 활동내용과 성과

마을주민의 힘으로 만드는 안전한 우리동네

한국방재안전교육협회와 함께 2017년 강원도 주민모임사업으로 시작하여, 2018년 강원도 마을공동체 지원 사업으로 연계하여 운영하고 있다. 내부적으로 공동체 구성원들 모두 보

안전 교육을 받고, 구성원들은 우리 공동체가 마을을 위한 사회적 공헌활동을 하는 것에 대한 자부심이 강하다. 마을안전 서포터즈는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크고 작은 재난 및 안전 사고에 대한 대처를 위해 사전에 사고가 발생할 소지가 있는 요소를 예측하고 위험 상황에 대처하도록 신고·제보 활동을 하고 있다. 또한, 안전부주의와 안전 불감증 등 주민들의 안전의식 수준을 높이는 안전문화 생활화에 대한 실천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여기에 단체나 지역 업체(카페, 식당 등)에 심폐소생술 교육과 여자 화장실 불법 촬영 카메라 안전점검 사업을 진행하고 이수한 업체는 마을안전 패치를 달아준다. 마을이 '여성들이 안전한 장소'라는 이미지를 만들어 마을 전체 이미지를 고양해 경제적으로 어려운 시기에 마을의 경제활동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기여하고 있다.



마을안전 서포터즈의 안전활동은 내부적으로 주민들의 인식개선과 안전마을이라는 이미지를 마을 내·외부로 확산시켰다. 외부적으로 원주문화재단에서 주최한 국제행사인 '댄싱 카니발'에 10일간 주요시설의 안전점검 활동 및 마을안전 보안관으로 참여하였다. 불법 몰래카메라에 대한 점검과 순찰 활동을 함으로써 외국 및 국내에서 방문한 여성들과 지역주민들에게 좋은 평가를 받았다. 그 공을 인정받아 '댄싱카니발 유공자 포상'을 수상하는 등 지역과 마을에서 입지를 다지고 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단계동 행정복지센터, 마을주민, 지역 예비군대, 지구대, 방범대의 적극적인 협조 및 협업 관계를 형성함으로써 안전에 대한 공감대를 만들어 <강원도 마을공동체

지원사업>을 성공적으로 운영하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여성 안심귀가 보안관은 지역주민들과 여성, 아이들에게 큰 인지도가 있으며 귀가 도움을 받았던 여성분들과 아이들이 반대로 여성 안심귀가 보안관 활동을 하게 되는 경우가 있어 매우 인상이 깊었다. 또한, 안전 관련 외부전문 기관(한국 방재안전 교육협의회) 및 전문가와 협력을 통해 안전교육지원, 장비지원(불법 도청, 몰래카메라탐지기, 응급처치 장비, AED 등), 전문인력(방재안전 관리사 2명, 응급처치 강사 3명, 소방안전관리사 2명, 전문 경호 인력 3명)을 지원받아 활동하고 있다.

공동체 향후 계획

마을은 우리가 지킨다

사업을 운영하면서 마을안전 서포터즈는 안전과 관련된 전문성이 없으면 시민들의 신뢰와 참여를 이끌어 내기 어렵다는 것을 느꼈다. 그래서 공동체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기본교육을 강화하고 실무전문가를 양성할 예정이며 장비 부족 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방안도 고민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향후 연계 가능한 사업을 유치하여 관련 단체들과 협업을 추진한다면 마을 내 사회안전망을 구축하는데 더 큰 효과가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우리는 지속적인 교육과 전문성을 확보하여 시에서 이루어지는 행사에서 안전에 대한 영역을 책임지고 전담할 수 있는 공동체로 성장하고자 한다. 더 나아가 공동체 활동을 일자리 창출로 연결시켜 보려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 활동 범위를 원주뿐만 아니라 강원도로 넓히고, 활동하시는 분들 중 퇴직하신 분들 및 55세에서 65세 사이의 연령대 분들을 대상으로 하는 계획도 고려해 볼 사항이다. 이처럼 마을안전 서포터즈의 활동에 지속성을 확보할 수 있는 다양한 연결고리가 생겨나 앞으로 더 안전한 단계동, 안전한 원주, 더 나아가 강원도가 될 수 있기를 바란다.



강릉시

입입1주공아파트

목재 우편함 만들기



- 📍 **지 역** 강원도 강릉시 강변로
- 📁 **프로그램** 목재 우편함 만들기
- 📅 **지원기간** 2017년 ~ 2018년
- 👥 **참여인원** 마을주민 20명



공동체 형성 과정

입주민의 무관심과 공동체 깨우기

입암1주공 동 대표회 공동체는 1986년에 뿌리를 내려 2년마다 구성원이 바뀌었다. 어느덧 시간이 흘러 우리 공동체는 33살이 되었다. 이런 우리 아파트의 가장 큰 문제는 주민들의 관계단절과 무관심, 그리고 공동체 구성원들 간의 화합이 결여된 것이다. 이렇게 된 가장 큰 원인은 2년에 한 번씩 동대표 구성원과 통·반장이 교체되었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무엇보다 입주민들의 무관심을 관심으로 바꾸고 동대표구성원들의 의식을 깨우는 것이 관건이었다. 이에 우리는 주민들의 욕구가 무엇인지 관찰하고 변화와 성장을 통해 살기 좋은 마을을 만들면서 이로 인해 관계를 형성하고 유지하는 것을 마을의 목표로 삼았다.

만약 주민들이 삼삼오오 모여서 담소를 나눌 수 있는 공간이 있다면 관계가 단절되지 않고 소통과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었다. 또한, 단지 내 쓰레기 문제, 주차 문제 등 생활하는데 불편한 문제가 많았다. 이같은 문제를 단순히 관리비로 해결하기보다는 근본적인 해결을 위하여 주인의식을 갖고, 배려와 양보의 가치를 배울 수 있는 공동체 활동이 필요했다. <강원도 마을공동체 지원사업>은 우리가 공동체성을 복원하고 주민 간 관계를 회복하는 출발점이 되었다.



공동체 활동의 시작

관심은 참여의 시작

아파트는 대부분 우편함은 철재 우편함으로 되어있다. 우리는 아파트 우편함이 철재여야만 한다는 고정관념을 깨고 목재로 우편함을 만들어 보기로 했다. 목공예 기술도 배우고 우편함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도 알게 되고 무엇보다 직접 만들어 본다는 것에 기대감이 부풀기도 했다. 가장 먼저 주민들의 호응과 관심을 유도하기 위해서 우편함 디자인 공모를 열

었다. 디자인 안 2개를 채택하여 게시판에 부착하고 방송을 통해서 홍보했다. ‘아파트 주민 여러분, 우체통 디자인 두 가지 중 맘에 드는 것에 투표해주세요!’ 서로 얼굴을 보며 담소를 나누기도 하였고 서로 이게 예쁘네, 저게 깔끔하네, 이야기도 했다. 그 중엔 목재로 우편함을 만드는 것에 놀라는 주민들도 있었다. 단독주택에서만 볼 수 있는 우편함을 아파트에서도 가능한지, 아파트와 어울릴지 의아해하는 주민들을 보면서 잘 만들어봐야겠다고 다시 다짐했다. 투표는 주민들이 공동체 활동에 관한 관심을 끌어내는 계기가 되었고 우편함을 만드는 데 동참을 하고 싶다는 주민들도 생겼다. 모든 것은 관심에서 시작된다는 말이 있듯이 주민들의 관심은 참여의 시작이 됐다.

공동체 활동내용과 성과

우편함을 통해 공동체 의미를 되새기다

공방을 빌려 작업을 할 수밖에 없는 열악한 환경이었지만 시작은 미약하나 끝은 창대하리라는 말에 희망을 걸었다. 처음에는 나무 자르는 법과 공구를 사용하는 법을 익혔다. 마음대로 되지 않을 때는 여기저기 한숨 쉬는 소리와 함께 그냥 맞추면 되는 걸 왜 고생을 사서 하느냐는 목소리가 나오곤 했다. 젊은 사람들은 직업을 가지고 있다 보니 직업에 참여할 시간은 많이 부족했고 많은 시간을 투자한 주민은 대부분 장년, 노년층이었다. 그럼에도 우리의 우편함 만들기는 밤에도 계속되었다. 아파트 우편함은 개인 주택의 우편함과 달라서 크기가 크고 조각들이 많아 분량이 많았다. 재단한 나무를 다듬으려면 기계 사포와 손 사포 모두 사용해야만 했다. 손 사포로 잔가시를 제거한 후 기계로 말끔한 결을 만들었다.



작업의 마무리는 우편함에 들어갈 은행 나뭇잎과 단풍 나뭇잎 그리고, 동호수를 구별하는 숫자를 색칠하는 작업이었다. 색칠 후 관리소 직원들의 힘을 빌려 1동부터 기존의 우편함을 철거하고 우리 손으로 직접 만든 우편함으로 교체하였다. 모두 설치되자 우편함 제작

에 참여하지 않은 주민들도 그동안 고생했다고, 너무 예쁘게 잘 만들어 주어 감사하다고 했다. 관심을 보이지 않던 주민들이 건네주는 말 한마디는 큰 힘이 되었고 공동체라는 의미를 다시 한번 되새기게 되었다. 또한, 과정은 힘들었지만 힘을 모아 무언가를 이뤄냈다는 것이 놀라웠고 이러한 계기로 주민들과 소통을 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었다.



우리에게 찾아온 마음속 봄날

주민들의 참여가 있다고 해서 눈으로 볼 수 있는 큰 변화와 성과가 바로 생긴다는 생각은 하지 않는다. 다만, 조금씩 변화하고 있을 뿐이다. 마을공동체 활동을 통해 알게 된 사실은 첫 번째로, 주민들의 참여와 관심이 미세하게나마 있었다는 것이다. 두 번째로, 책임의식이 조금 생겼다는 것이다. 예전에는 '나 하나쯤이야'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지금은 '무엇을 하면 되나요?'라며 먼저 와서 물어보곤 한다. 스스로 아파트 일에 관심을 가지고 참여도를 보여준 것이다. 우리 구성원들은 앞으로 주민들의 지속적인 소통으로 주민들의 욕구가 무엇인지 늘 고심할 것이다.

<강원도 마을공동체 지원사업>을 계기로 주민들의 마음속에 봄날이 찾아왔다. 아파트 입구를 청소하는 주민도 생겼고, 정자에 앉아 간식을 가져와 옹기종기 모여 담소를 나누는 분들도 볼 수 있었다. 또한, 활동이 알려지기 시작하면서 다른 아파트에서 벤치마킹을 오기도 했고 동사무소에서 찾아오곤 했다. 이러한 관심과 참여는 우리가 보았을 땐 크나큰 변화이고 성장이라고 생각한다.



공동체 회원들의 활동 후 한 줄 평가

- 최○○** 이번 활동을 통해 협동심을 볼 수 있고 무엇보다 환경이 깨끗해져서 좋습니다.
- 이○○** 입주민과 관리소, 동대표들과 협업하는 모습이 좋았고 앞으로도 관계가 유지되었으면 좋겠습니다.
- 윤○○** 많은 걸 기대하지는 않았지만, 주민들과 소통과 공감의 시간이 됐습니다.
- 고○○** 처음 시작은 의견도 분분하고 과연 될까? 라는 고민도 많았지만, 활동을 통해 힘을 합치면 하지 못 하는 일은 하나도 없다는 것을 느꼈고, 주민들의 관심과 협조 덕에 성공적으로 마무리 할 수 있었습니다.

활동을 마치며

아파트도 마을입니다!

모든 활동을 마무리한 뒤 선진지 견학을 다녀오고 평가회를 했다. 무엇이 모자랐는지, 잘못된 점은 없는지 성찰할 수 있는 시간과 새로운 방향의 제시를 통한 성장할 기회의 시간이었다. 우리는 이를 통해 중요한 결실을 찾아볼 수가 있었다. 첫째, 공동체 활성화를 위해서 너 나 할 것 없이 모두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이다. 둘째, 공동체가 제 역할을 하려면 역량이 강화되어야 하고 그 역량은 리더에 의해서 좌우된다는 것이다. 리더가 열의와 책임이 없으면 구성원들도 같아진다. 무엇보다도 리더의 역할이 크다. 마지막으로 리더는 마중물이 되어 주민 참여를 유도하고 공동체의 활력을 불어넣는 책임감이 강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2년의 세월을 되돌아볼 때 하나가 되지 않았다면 시작할 수도 없었다고 생각한다. 그렇기에 혹여, 구성원이나 리더가 바뀐다고 하여도 마을공동체 활동은 꾸준히 이어갔으면 한다. 앞으로 아파트가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 속에서 어르신들의 이야기 소리가 들리고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들리는 정겹고 따뜻한 공간이 되기를 소망한다. 활동을 마치며 너 나 할 것 없이 열심히 달려온 모든 분에게 감사의 인사를 꼭 전해드리고 싶고, 아파트 속 공동체가 많이 생기길 바라며 ‘아파트도 마을입니다!’라고 외쳐본다.

정선군

예미1리 마을발전추진위원회

교육공동체 활동, 생태도랑 재생, 정원 만들기 등



- 📍 **지역** 강원도 정선군 신동읍 예미1리, 3리, 7리
- 📁 **프로그램** 예미의림길 마을 교육공동체 '온마을학교' 사업, 우리동네 추억의 생태도랑 재생사업, 마을회관 재생사업 - '의림방(坊) 만들기', 마을공동체 정원만들기
- 📅 **지원기간** 2016년 ~ 2017년, 2019년
- 👥 **참여인원** 예미의림길 마을주민(예미1리, 3리, 7리)



공동체 형성 과정

마을을 위한 움직임의 시작

예미1리는 마을을 가로지르는 의림천을 배경으로 한 농촌문화와 함백광업소의 영향으로 형성된 탄광 문화가 어우러져 유동인구가 많고 상권도 잘 형성된 신동읍의 중심마을이었다. 그런데 마을의 읍사무소가 이전되고 정부의 석탄산업 합리화 정책으로 인한 폐광으로 급격한 인구감소, 상권 붕괴, 마을 공동화가 빠르게 진행되었다. 새까만 산, 물 그리고 탄 먼지, 흙먼지가 폴폴 날리는 마을이 되었지만, 골목 곳곳에서는 주민들의 소소한 이야기와 활발한 교류가 이루어지고 있었다. 하지만 상황은 점차 악화되고 자고 나면 한 집 두 집 이웃이 떠났고 그렇게 우리마을의 빈집이 늘어갔다. 이로 인해 마을의 경관은 생기를 잃었고 주민의 노령화로 마을 발전은 커녕 마을이 지속될 수 있는지 걱정해야 하는 처지로 전락했다. 그렇게 시간이 흐르면서 언제부터인가 마을환경을 바꿔야겠다는 의욕은 사라져 변해가는 마을을 안쓰럽게 바라보게만 되는 무력감이 마을을 병들게 했다.

2015년 11월 마을을 바꾸어 보자는 움직임이 시작되었다. 마을 청년(50세 중반~60대 초반 주민)을 중심으로 의견을 모아 마을공동체 활동을 위한 밑그림을 그리고 결정된 사항은 무조건 실행에 옮긴다는 대원칙을 수립하면서 마을공동체 활동을 시작하였다. 가장 먼저 그동안 마을에 조직되어 있던 유명무실한 마을개발위원회를 마을발전추진위원회로 확대 개편하였고, 마을주민이 직접 마을 발전 중장기계획을 수립하도록 했다.



공동체 활동의 시작

공동체 활동 기본 5원칙

마을공동체 활동 기본 5원칙을 바탕으로 마을 발전 중장기계획을 수립했다. 첫 번째는 자구노력이다. 마을주민 스스로 노력하지 않으면 외부 지원이 있어도 지속성을 유지할 수 없기 때문이다. 두 번째는 마을 의사결정 구조 정리이다. 모든 의사결정을 이중 삼중으로 체계화해 소통은 원활하고 진행은 신속하게 하였다. 세 번째는 인근 마을과 마을 내 기관들과의 연계 및 파급효과 고려이다. 인근 마을과 공조 및 마을 내 기관의 협력을 통해 마을공동체의 실효성을 극대화하자는 의도이다. 네 번째는 마을 전체를 세 공간으로 구획하고, 공간별로 계획적인 사업을 실행하기로 했다. 마지막은 이 모든 과정을 문서화하여 필요한 사람이 볼 수 있는 자료로써 활용할 수 있게 하였다.

마을 발전 기본 5원칙을 기반으로 ‘살고 싶은 마을, 문화와 경관이 어우러진 온마을 공동체형성’이라는 비전과 단계별 발전계획-도입기(2016), 확산기(2017~2019), 성장기(2020~2025)-을 실행하고 있다. 마을주민들은 ‘아라리 꽃길 따라~ 예미의림길 마을’이라는 주제를 정한 뒤 마을을 새롭게 변화시킬 방안을 모색하여 이를 실행해 나가고 있다. 또한, 실현하기 위한 마을사업의 핵심주제는 두 가지로 나뉘었다. 먼저 마을 생활 경관개선사업으로 함께 땀 흘리고 같이 먹을 기회를 통한 공동체성 형성이다. 그리고 마을과 학교가 함께 마주 보며 하나의 공동체가 되어가기 위한 온마을 교육공동체 사업이다. 이 사업에서 모두가 선생님, 학생이라는 주제로 마을과 학교에서 다양한 내용의 마을 수업이 진행될 예정이다.



공동체 활동내용과 성과

마을과 주민이 함께 변하라

2016년 마을벽화 그리기가 시작되었다. 또한, 마을 자원의 극대화를 위한 그물망 식 연계 사업 추진으로 매년 더욱 다양한 사업들을 진행했다. 우선 마을회관 재생사업-의림방(坊) 만들기 사업을 통해 세월의 흐름에 방치되었던 마을회관을 주민 소통공간, 마을 교육공동체 프로그램 운영 공간, 마을전시회 공간으로 탈바꿈했다. 깨끗한 농촌 마을 만들기 사업에서는 샘의 인근 마을 주민들이 물을 떠 가기 위해 다니던 옛길을 ‘산골 샘터길’이라는 이름으로 다시 복원하였다. 그 외에도 마을 정원 만들기, 마을 길 향아리 화분 만들기 등의 사업을 진행하기도 했다. 2018년까지 진행된 마을벽화 그리기 사업과 안전한 마을 길 만들기 및 시화 마을 만들기 사업의 연계로 마을 안길과 골목길 곳곳에 범죄예방디자인 시설물, 시화와 벽화를 만들 수 있었다.

주민들이 모여 활동을 한 결과 깨끗하고 아름다워진 의림천에 메기, 동자개 등 토종 민물고기 치어를 방류할 수 있었다. 마을공동체 활동을 통한 연계사업을 통해 온마을 학교사업, 모두가 마을작가 이야기, 우리마을 환경 재생 이야기 등 많은 프로그램을 진행했다. 2016년을 시작으로 작지만 알찬 마을공동체 활동을 하면서 2019년까지 더욱 다양한 활동으로 마을의 부족한 부분을 하나하나 채워나갔다. 우리는 <강원도 마을공동체 우수마을 발표대회>에서 장려상을 수상하였고, 2019년에는 농림축산식품부 주관 <행복마을콘테스트>에서 강원도 대표로 수상하는 등 공동체 활동의 성과를 인정받아 마을을 널리 알리고 있다.



마을공동체 활동을 하면서 마을의 생활 경관이 좋아졌을 뿐 아니라 주민들의 생각에도 큰 변화가 있었다. 의견 충돌이 있더라도 다양한 회의를 거쳐 조정되는 과정과 생업에 종사하면서도 각자의 상황에 맞게 마을 일에 참여하고 함께 구슬땀을 흘리는 과정을 통해 스스로 마을 일에 관심을 두게 되었다는 것이다. 이것을 계기로 그동안 3개의 행정리로 나뉘어 막연히 별개의 공동체라고 여겼던 생각이 변화되어 예전처럼 ‘예미의림길 마을’로 다시 묶이게 되었다. 마을주민들은 ‘훨씬 깨끗해졌다.’, ‘좋아졌다.’ 등 다양한 칭찬의 말을 많이 듣고 있다. 이러한 말을 들을 때마다 자부심도 느끼고 뿌듯함을 느낀다. 인근 마을주민들도 ‘뭔가를 만드는 것 같더니 바뀌었더라.’하고 격려와 응원의 따뜻한 말로 인사를 나누게 되었다.



활동을 마치며

힘을 모아 마음을 더해 예미의림길 마을

그냥 잘 사는 마을이 아니라, 100년이 흐른 뒤에도 문화와 감성이 숲이 되어 살아 숨 쉬는 마을을 만들고 싶다. 더불어 우리 마을만 잘 되는 것은 의미가 없다. 3개리 마을을 관통하는 의림천이 매개가 되어 예전의 ‘의림길 마을공동체’로 다시 묶이는 계기가 된 만큼 우리는 함께 할 수 있고 더 큰 자부심을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한다. 우리 마을의 중장기 발전계획이 성장기에 접어든 만큼 그동안 실행했던 다양한 활동과 사업을 통해 많은 경험을 축적했다. 앞으로는 마을비전과 연계한 사업을 찾아내고 참여해 조금씩 실행하려고 한다. 우리 마을의 모델을 지금보다 더 구체화하여 운영에 들어가고, 인근 마을과의 자원공유, 협업을 통해 마을공동체 활동의 지속기반을 더욱 탄탄하게 만들었으면 하는 마음이다.

삼척시

구공탄 새뜰마을

주민사진 및 마을과 지역소개 책자발간



- 📍 **지 역** 강원도 삼척시 도계읍 도상로
- 📁 **프로그램** 주민사진 및 마을과 지역소개 책자발간
- 📅 **지원기간** 2018년
- 👥 **참여인원** 30명



공동체 형성 과정

'함께'라는 그 시작을 위하여

탄광 일을 하며 먹고 살았던 마을 주민들은 탄광이 문을 닫자 새로운 일을 찾아 마을을 떠났다. 여기저기 빈 집들이 보이기 시작했고 관리하는 주민이 없는 마을엔 노숙자와 비행 청소년이 활개쳤다. 우범 공간으로 변해버린 마을의 환경 정비가 매우 시급한 상황이었다. 마을답지 않은 마을이 되어가던 중 변화를 원하는 사람들이 뜻을 모으기 시작했다. 주거지역으로서의 안전을 확보해야 했고 잃어버린 주민 공동체를 회복해야 했다. 우연히 <강원도 마을공동체 지원사업>을 알게 되었고, 이것을 발판으로 마을주민과 강원대학교(도계캠퍼스) 사회복지학과 학생들, 외부 자문위원 4명(마을활동가, 마을공동체 종합지원센터 센터장, 스토리텔링 전문가, 마을 미술작가)이 함께 '구공탄 마을 봉사단'을 결성했다. 내가 사는 이곳에서 조금이라도 깨끗한 환경을 만들기 위한 마음과 이웃 간에 '情'으로 주민들이 모이기 시작한 것이다. 마을의 역사를 기록하고 주민들의 이야기를 담아보자는 의견과 함께 주거 환경 정비를 최우선으로 하여 공동체 활동을 시작하게 되었다.



공동체 활동내용과 성과

잊혀 가는 세월을 찾아보기 위한 활동

마을의 상황과 공동체가 해결해야 할 사회적 문제를 배경으로 세 가지 정도의 목표를 세웠다. 지역의 환경을 가꾸고 변화시켜 정주여건을 만드는 것, 주민들의 의식을 개선하여 긍정적인 인식을 확산하는 것, 학생들이 지역을 사랑하고 애향심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었다. 이를 위해 다양한 회의가 진행되었는데, 80년대 석탄산업 전성기의 그리움을 다시 느낄 수 있는 벽화를 만들어보자는 의견과 지역난방 연료인 연탄재를 재활용할 수 있는 마을공동체 사업을 해보자는 의견이 있었다. 집집마다 버려지는 연탄재를 재활용해서 무엇인가를

만들어보자는 의견을 반영하여 협력단체의 도움을 받아 연탄 화분을 만들기 시작했다. 연탄재를 구워 화분을 만들고 그 위에 그림을 그려 모종을 심고, 블랙다이아몬드 페스티벌 등 축제에 부스를 마련하여 주민이 참여할 기회도 마련했다. 이후 좀 더 의미 있는 스토리텔링 벽화를 만들자는 의견이 나왔고 학생들과 주민들이 가장 많이 이용하는 보행로와 등·하굣길에 벽화를 조성해 폐광이라는 광산의 부정적 이미지를 개선하고자 했다. 이러한 의견을 모아 우리는 도계고등학교 봉사클럽과 느티문화회 미술작가 2명의 도움으로 쇠퇴해 가는 마을에 새로운 에너지를 불어넣을 수 있는 상징적인 벽화를 조성하였다.



또한, 마을의 역사와 주민들의 삶을 책으로 만들고자 하는 주민들의 요청에 마을 책자를 만들어 주민들의 삶을 담아내었다. 가장 먼저 이야기 특 교육을 실시했다. 대화자와 소통하는 방법과 글을 적는 방법 그리고 정리 및 수정하는 방법을 배웠다. 단순하게 말로 전달되는 이야기 방식이 아니라 사진을 통해 각자 인생의 역사를 함께 이야기 할 수 있는 자리를 만들어보자는 취지였다. 사진을 보며 사연을 말하는 시간에는 부끄럽다며 말쑼을 아끼시는 분도 계셨고, 사진 한 장으로 30대 청춘시절을 1시간 넘도록 말씀하시는 분도 계셨다. 사진을 통해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 동안 우리는 인생이라는 역사책의 한 부분으로 여행을 떠나 추억을 회상하였다. 먹고 살기 바빠 앞만 보고 살다 어느 순간 되돌아보게 되었을 때 아득했지만 생생히 떠오르는 기억이 있었다. 우리의 힘으로는 한 분, 한 분의 긴 인생이야기를 담기엔 부족하여 강원대 복지학과 학생들의 도움을 받아 기록하고 정리할 수 있었다. 몇몇 주민분들은 ‘행정이나 회사에서도 큰 관심을 보이지 않는데 지저분하고 위험한 곳에 주민

과 학생들이 참여해 벽화를 그려주어서 너무 고맙다.'라고 말씀하셨다. 또한, 참여 대학생들은 '공동체 사업을 통해 마을주민과 서로 이야기하고 지역을 위해 작은 손길이라도 봉사할 기회가 마련되어 너무 기쁘다.'라고 말하면서 우리 마을에 대한 뜨거운 애정과 응원을 보내 주었다.



공동체 향후 계획

볼거리가 있는 체험마을 조성

삼척 도계 4리 구공탄 마을은 새뜰마을 사업추진위원회 등 다양한 조직과 유기적인 협력을 하고 있다. 그래서 미래를 위해 함께 지역 개발 사업을 연구하고 지역주민 및 지역단체와의 활발한 의사소통을 통해 마을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활동을 추진하고 있다. 구공탄 마을의 비전은 '볼거리가 있는 체험 마을 조성'이다. 폐광지역의 아픔을 딛고 새롭게 거듭나서 사람들이 찾아오는 마을을 만들고자 한다. 그러한 마을을 만들기 위하여 구공탄 마을공동체는 거리 전체가 벽화인 마을을 꿈꾼다. 탄광 지역의 역사와 이야기를 그림으로 표현하여 의식교육을 해나가겠다는 것도 목표 중 하나이다. 주민들의 생각이 바뀌어야 사람들이 찾아오는 마을을 만들 수 있고 함께 사는 행복한 마을을 만들 수 있다는 것이 우리의 생각이다.





소득사업형

홍천 구만리 콩마을 영농조합법인

강릉 솔내마을

동해 동문산 새뜰마을 주민협의회

평창 산야초 꽃차연구회

고성 해상1리 마을회

홍천군

구만리 콩마을 영농조합법인

콩닥콩닥 프로젝트



- 📍 **지 역** 강원도 홍천군 북방면 구만리
- 📁 **프로그램** 콩닥콩닥 프로젝트
- 📅 **지원기간** 2015년 ~ 2019년
- 👥 **참여인원** 90명



공동체 형성 과정

가시오가피 농장 대신 골프장이 들어오라

구만리에 골프장이 들어온다는 소식이 들리자마자 주민들은 마을 회의를 열었다. 회의에서 ‘골프장이 들어오면 뭐가 좋고 나쁜지 우리는 알 수 없으니, 이미 골프장이 들어온 마을을 다니며 좀 알아보자’라는 결론을 내리고 마을 대표단이 여러 마을을 다녀보기 시작했다. 결론은 하나였다. 골프장이 들어오면 물이 오염되어 골프장 아래 위치한 땅에서는 농사를 지을 수 없을 뿐 아니라 시간이 지나면 마을의 공동체성이 산산이 조각난다는 것이었다. 대동회에서 ‘구만리는 골프장 건설을 반대한다’라는 결론을 내고 마을 사람들은 골프장 반대 투쟁에 돌입했다.

“모르는 사람이 오더니 도장 찍으라면서 천만원을 주고 갔어. 아무한테도 말하지 말고 땅에 묻어놓고 쓰라고 했어.”

반대가 본격화되자 골프장건설사는 주민들을 갈라놓기 시작했다. 사람들에게 돈을 주기 시작한 것이다. 농사를 통해서 쉽게 만질 수 없는 액수의 돈이니 얼결에 받기는 받았으나 마을 사람들의 뜻에 반하는 일을, 그것도 돈을 받고 하자니 할머니들은 손이 덜덜 떨렸을 것이다. 이후 마을에서는 돈을 받았다는 양심선언이 이어졌고, 구만리는 강원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돈다발을 구청 계단에 던져버렸다. 이는 마을을 이간질하고 농촌을 오염시키는 골프장 업체에 대한 경고이자 잘못된 환경영향 평가로 골프장 허가를 내준 행정당국에 책임을 묻는 자리임과 동시에 구만리에 절대로 골프장이 들어오게 만들지 않겠다는 결연한 의지의 표현이었다.



그 뒤 밭에 나가 일하다가도 공사팀이 산으로 올라간다는 소리만 들리면, 가파른 산기슭을 그들보다 먼저 달려 올라가 포크레인 앞에 드러눕고 용역들 다리를 붙들고 매달리기도 하며 온몸으로 산을 지켰다. 총 954일을 길에서 밤을 새우고 생전 처음으로 경찰서를 들락거리게 되었다. 땅과 하늘만 살피며 농사만 짓고 살던 사람들이 범죄자 취급을 당했다. 심지어 마을주민 27명은 알지도 못하는 각종 죄목으로 고소·고발을 당하는 일까지 겪으며 농사도 제대로 짓지 못하고 그렇게 십여 년을 살아야만 했다.



공동체 활동의 시작

산을 지키고 공동체를 지킨 사람들의 과제

결국, 구만리에 골프장이 들어오지 못했다. 그리고 마을재산 탕진과 고소·고발 벌금으로 인한 산더미 같은 빚도 남았다. 그러나 구만리는 공동체를 지켜냈다. 대대로 이어 내려온 땅을 지키고, 그 땅에서 생명을 키우는 농부와 농업을 지켰다. 그리고 무엇보다 서로를 지켜내었던 끈끈한 경험이 서로를 아주 단단하게 묶고 있었다. 우리에게 '우리'가 있었고, 현실적인 문제 속에서 '우리'를 지키기 위한 또 다른 일을 해야만 했다. '공동'보다는 '개인'이라는 단어가 더 친근하고 자연스럽게 느껴지는 시대에 구만리는 공동 경작지를 마련하고 함께 콩을 심었다. 세 알의 콩이 싹을 틔우고 일어나 서로 의지하며 바람과 해를 이겨내고 튼튼하게 자라듯이 콩마을의 공동체도 서로를 의지하며 그렇게 싹을 틔우기 시작했다. 함께 키운 콩으로 메주도 찌어 팔았다. 구만리에서 공동경작과 전통장을 담그는 공동작업은 끊임 없이 우리를 모이게 하고, 구만리라는 이름으로 서로를 결속시킴과 동시에 공동의 꿈을 꿀 수 있게 하는 매개체가 되어주었다.



공동체 활동내용과 성과

콩닥콩닥 프로젝트

메주에 이어 장맛이 소문이 나면서 매출이 발생하기 시작했다. 게다가 마을이 함께 만든다는 신뢰와 공동체의 가치까지 더해져 전화와 방문객이 급증하고 있다. ‘찾아 구만리’라는 마을기업의 브랜드 이름처럼 전통장, 공동체, 그것들이 주는 고향의 느낌을 찾아 구만리를 방문하는 사람이 늘어나고 있다. 그리고 우리는 그동안 마을을 위해 온 힘을 다했던 공동체 구성원들의 건강과 더불어 마음을 보듬고 내적 성장의 기회로 삼는 활동을 진행했다.

#1. 건강 찾아 구만리

중장년층 중심으로 모임을 만들자는 요구들이 나오고 탁구동호회와 탁구장이 생겼다. 그 이후 건강에 대한 참여가 높아지면서 걷기 동우회까지 확장하게 됐다.

#2. 행복 찾아 구만리

우리의 사는 모습과 이야기를 글과 사진으로 담아 서로 함께 보며 이야기 나눌 수 있는 소식지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늘 가지고 있었다. 하여 ‘행복 찾아 구만리’라는 마을 소식지를 발행했다. 소식지의 주요 대상은 마을 구성원이고 마을 구성원의 절반은 글자에 익숙하지 않은 어르신들이기 때문에 사진 중심으로 구성했다. 소식지를 재미있게 보시는 것을 계기로 하여 구만리 한글학교가 생기게 되었다. 학교에서 문장력을 열심히 기르신 어르신들께서 스스로 만드는 나의 소식지를 발행할 날이 오기를 기다려본다.

#3. 화합 찾아 구만리

소수이긴 하지만 골프장 건설을 찬성했던 몇몇 주민과 대다수 주민은 아직 서로에 대한 상처와 분노가 팽팽하게 살아있는 상태였다. 그러나 함께 마을에서 평생을 같이 살았던 사람들끼리 언제까지나 외면한 채 살 수는 없는 일. 이제는 화해를 시도해 봐야 한다는 어른들의 의지로 비폭력 대화와 회복적 정의 이념에 기초한 갈등관리 프로그램을 구성하였다. 이를 계기로 직접 서로를 만나고 설득하는 과정을 거쳤고, 우연히 얼굴을 마주쳤을 때 눈을 흘기거나 무시하던 태도에서 벗어나 적어도 덤덤한 눈빛으로 고개 인사 정도는 가능한 정도의 관계를 만들 수 있었다. 그러나 환경문제로 인한 갈등의 경우, 당사자들의 화해는 전국 어느 마을에서도 시도조차 하기 힘든 일이다. 실제로 이러한 사례는 아마도 구만리가 최초가 아닐까 싶다.



공동체 향후 계획

우리의 힘으로 설계하는 구만리의 내일

구만리가 마을기업을 설립했을 때, 일차적인 목표는 당연히 돈이었다. 그러나 빚만 갚으면 그 다음부터는 수익금을 배당금의 형태로 나누는 것이 최종 목표였을까? 그렇지 않다. 우리가 꾸었던 꿈은 따로 있었다. ‘모르는 동네 양로원에 가서 죽기 싫다.’ 나이 든 노인들의 가장 큰 두려움은 무엇일까. 바로 나고 자란 곳이 아닌 낯선 타지에 있는 양로원으로 가서 죽을 날을 기다리는 것이라고 한다. 평생을 정직하게 땅과 하늘과 더불어 농사를 지어 당신들의 삶을 살아내고, 자식의 삶을 지켜주어 우리의 오늘을 만든 분들이다. 구만리는 주간 보호센터와 양로원을 순차적으로 마련하여 어르신들이 가시는 날까지 마을에서 편히 계실 수 있게 만들어드리고자 한다. 또한, 마을 단위의 경제 활성화로 소득수단을 만들어 고향으로 돌아오는 사람들이 안정적인 삶을 살 수 있게 하는 것이 목표이다. 현재 구만리는 마을 구성원뿐 아니라 마을에 눌러 온 구만리의 2, 3세대가 서로 모여 교류할 수 있는 가족공원을 완공했다. 이런 잦은 만남을 통해 3세대의 고향을 만들어주고 자연스럽게 마을에 익숙해지게 한다면 구만리의 장기 계획이 앞당겨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활동을 마치며

구만리의 숙제

우리는 일회성으로 끝나는 것보다는 지속성을 염두에 두고 사업을 계획하고 실행했으며 현재까지도 잘 활용하고 있다. 그러나 공동체의 활성화를 위해 아직도 부족한 것이 많이 있다. 구만리와 같은 전통적인 시골 농촌 마을의 경우, 기존의 구성원들이 가진 공동체성은 도시나 새로운 공동체와는 다른 성격이다. 역사적으로 경제와 문화를 공유하며 살아온 구성원들이 가지는 공동체에 대한 책임감의 크기가 그렇거니와 공동체를 생각하는 마음과 실행력 또한 남다르다. 그러나 이런 대단히 훌륭한 공동체성을 가진 구성원들이 고령화되어 사라지고 있는 것은 농촌 공동체의 위기를 불러온다. 마을회관에 모이는 어르신들 숫자가 작년보다 줄어든 것을 보면 공동체의 붕괴가 멀지 않았다는 위기감을 피부로 느끼게 된다. 오늘을 즐겁고 행복하게 보내고 아름다운 공동체를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아름답게 꾸며줄 수 있는 공동체 자체를 잃지 않고 지키는 것, 그것이 농촌공동체, 즉 우리의 가장 큰 숙제이다.



강릉시

솔내마을

행복가득 신나는 마을



- 📍 **지 역** 강원도 강릉시 연곡면 삼산리
- 📁 **프로그램** 행복가득 신나는 마을
- 📅 **지원기간** 2019년
- 👥 **참여인원** 25명



공동체 형성 과정

오해보다 무서운 적(敵)은 없다

솔내마을은 진고개에서 두릉동까지 긴 6번 국도를 따라 양쪽으로 형성된 오대산 중산간 지역 오지마을이다. 농업, 임업, 식당, 민박, 휴게소 등 긴 도로를 따라 마을주민들의 경제활동이 이루어지고 집들이 멀리 떨어져 있어 서로 만나기가 어려운 구조로 이루어져 있다. 주민들이 모여야 협력이 이뤄지고 신뢰가 만들어지는데 모이기가 쉽지 않으니, 마을 공동사업 추진 자체가 구조적으로 어려운 마을이다. 또한, 영동고속도로의 완전개통으로 교통량이 줄어들면서 경제활동이 점점 어려워지고 있다. 이러한 사정으로 추진했던 백두대간 마을사업은 주민들의 소통 부재로 인해 전임 이장과 몇몇 주민들만의 사업으로 인식돼 공중분해되기 직전에 이르렀다. 소통의 부재는 오해를 만들었고 오해는 갈등을 부추기고 이것은 결국 불신을 만들어 최악의 상황이 되었다.

2009년에는 마을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거의 날마다 마을 회의를 했다. 주민들끼리 설전이 있었어도 그다음 날 다시 만나 끝장 토론을 이어갔다. 마을 소득을 높이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에 대한 마을주민 스스로 답을 구하는 가화합(假和合)의 공동체를 만들기 위한 지루한 과정이 반복되었다. 2009년 한 해만 216번의 마을 회의와 교육이 있었다. 이 과정을 통해 마을 내 11개의 작목반과 단체가 탄생해 기존의 마을회와 노인회, 부녀회를 합쳐 14개의 단체가 활동했다.

오대산자락 특산 임산물과 산나물 위주로 작목반과 영농조합법인을 구성하고 마을의 복지 문화 환경을 위한 다양한 단체가 만들어졌다. 주민들이 할 수 있는 사업이라면 소득, 문화, 복지, 환경 무엇이든 제한을 두지 않았다. 단체들과 함께 주민 자체적으로 시작한 마을 농로복구 사업, 수해 입은 농수로 복구 작업, 토종어류 방류사업, 환경보전회, 산불 조심 100만인 서명 캠페인 등은 관공서에 감동을 주고 주민들에게 마을공동체의 중요성을 일깨워 주기에 충분했다.



공동체 활동의 시작

실패를 통해 경험을 쌓다

주민들이 만든 14개의 소규모 공동체간 소통은 이루어졌으나, 역으로 공동체의 이기심으로 인한 다양한 사업 진행으로 단발성 실패를 거듭했다. 실패가 쌓여갈수록 주민들에게는 경험이 축적되고 있었다. 새로운 경험은 새로운 목표를 만들었고 주민들은 모기업 형태의 솔내마을 농업회사법인(주)을 설립하기에 이르렀다. 하지만 주민들의 삶의 질에 대한 주관적 만족도 중 쾌적성만 우수하고 주민 간 관계, 삶의 질, 문화, 여가 등 모든 여건이 다른 지역에 비교해 낮게 나타났다. 이는 삶의 질을 개선하려는 동질성을 찾아 공동체 문화를 만들어 점진적으로 소득, 문화, 복지, 환경의 생활여건을 개선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시사하였고, 주민들은 이에 공감하였다.

솔내마을은 가화합의 공동체를 추진하면서 주민들이 성과를 낼 수 있는 사업 방향을 잘 인식하고 있었다. 그러나 사업이 성공할 것이라는 확신이 없어 갈등이 있기도 했다. 약간의 두려움이 있었다. 농업회사에서는 새로운 상품과 서비스를 개발하여 보급하였고 시사회도 함께 추진하였다. 30가지 산 약초로 만든 30초 효소는 소화와 식욕 증진에 도움이 되는 건강 식품이다. 개발한 상품들은 마을에 보급되었으나 상용화하기는 어려웠고 다양한 상품을 개발하면서 실패도 많았다. 그러나 이러한 경험들은 가화합의 마을공동체로 가는데 중요한 밑거름이 되었다. 연구 개발이 잦아질수록 판매되는 상품들이 많아지고 주민들이 자주 모여 일하게 되었으며 점점 갈등이 치유되는 긍정적인 변화가 나타났다. 마을에서 주민들 간 신뢰가 형성되었고 마을 내에 일자리가 생기기 시작하였다.



가화합의 공동체를 만들자는 마을 비전과 전략은 앞선 실패와 고민 속에 새로 만들어졌다. 우리가 보여준 고민과 열정이 주민들의 닫혀있던 마음을 열게 하였고, 주민들이 마을 안에서 출근할 수 있는 일자리가 있는 마을로 만들어가고 있었다. 소득이 올라가면서 그동안 팍팍했던 살림살이가 펴지고 갈등은 소리 없이 사라지고 있었다. 지금도 우리는 ‘한 사람의 손님을 제대로 맞으려면 온 마을이 필요하다.’라는 슬로건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마을사업을 추진 중이다.

공동체 활동내용과 성과

배를 만들고 싶다면 바다에 대한 동경심을 심어줘라

교육을 듣고 선진지 견학을 다닌 것이 주민들에게 큰 동기부여가 되었다. 주민들은 너나 할 것 없이 솔내마을의 소득·문화·복지 수준을 향상하기 위해 나서고 있다. 선진지의 문화와 복지, 환경이 우리 마을과 어떤 차이가 있는지 눈여겨보며 노력한 끝에 마을 자치를 이뤄낼 수 있었다. 마을에서 생산되는 농산물 대부분은 소량으로 포장·가공하여 판매하고 있는데, 대략 마을 전체 1년 매출액이 50억 정도 된다. 깨끗하고 청정한 자연자원은 마을에서 생산되는 모든 농산물의 기반이 된다. 지역 자원의 소득화에 이어 자연환경을 활용한 관광 체험 프로그램 개발과 수익을 연계하는 작업도 점차 정교화되었다. 그 외에도 다양한 마을 사업과 상품개발을 통해 마을의 브랜드가치를 높이고 자산가치를 증대하고 있다. 마을에 일자리가 창출되면서 사계절 내내 노는 사람 없이 바빠졌다.



일자리 뿐만 아니라 마을의 고령화 주민들을 위한 복지와 문화 수준을 높이려는 방안도 열심히 모색했다. 어르신들이 편하게 쉴 수 있는 경로당 쉼터 같은 편의시설 확충과 어르신들이 소득 활동을 하며 지속적으로 소통할 수 있는 복지 마을을 만들었다. 이외에도 마을 내

에서 문화 수준을 높이기 위해 고민하다 난타 공연단을 만들었다. 난타 공연단은 부단한 노력으로 단원들 모두 타악 퍼포먼스 1급 자격증을 취득했고, 교육을 할 수 있는 조건을 고루 갖추었다. 노력 끝에 맺은 결실로 지금은 강릉시의 대표 공연단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가화합의 공동체, 솔내마을의 발전은 일하는 방식을 혁신적으로 변화시킨 데 있다. 일자리와 매출액이 늘어나고 성과를 내는 구조가 확립되면서 마을의 평판도 달라졌다. 작은 변화와 움직임으로 시작한 공동체 활동으로 우리 마을은 ‘살고 싶은 마을’이 되었고, 오는 사람이 많아져 이제는 마을에 빈집을 찾아볼 수 없다.

공동체 향후 계획

주민이 행복한 마을 자치를 꿈꾸며

솔내마을은 오해와 소통, 갈등과 화해, 실패와 성공을 거듭할수록 주민들의 자립도가 높아졌다. 특히 2018년 신년총회가 기억에 남는다. 강릉시 의원님께서 마을의 총회를 공식생활 할 때부터 지금까지 40년간 지켜본 회의 중에 이렇게 민주적이고 훌륭한 마을 회의는 처음 봤다며 칭찬을 아끼지 않으셨는데, 그간의 노력이 헛되지 않았음을 느끼게 해준 순간이었다. 2018년 이전에는 모이면 싸우고 회의는 결과도 없이 끝이 났다. 오해하고 갈등을 빚는 과정의 반복을 하던 회의의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게 되었다.

한번은 마을에 간이 상수도 식수 부족으로 이장님께서 마을관리 간이 상수도 확장 공사비를 강릉시에서 확보했다고 총회에서 보고했다. 노인 회장님께서 말씀하시길, 우리 마을에 돈이 없는 것도 아닌데 왜 시청에 손을 벌리느냐 우리 마을 기금으로 진행하자고 하여 마을 주민들의 ‘만장일치 찬성’으로 자체적으로 확장공사를 한 적도 있다.

우리는 주민이 행복 할 수 있는 방법을 알고 있다. 그동안 소득, 복지, 문화 사업과 공동체 복원 활동으로 이어져 온 동아리 활동을 통하여 훈련되고 주민 의식이 깨어난 것이다. 솔내마을의 비전은 주민이 행복하고, 주민이 주인이 되고, 주민이 진행하는 자치 마을을 만들어 가는 것이며 이 목표는 곧 실현될 것이라고 굳게 믿는다.



동해시

동문산 새뜰마을 주민협의회

지역음식 콘텐츠 발굴 및 음식이야기 책자 발간



- 📍 **지 역** 강원도 동해시 발한 동문산지구
- 📁 **프로그램** 과거 마을의 어르신이야기를 듣고, 기록화(책자발간), 조리외식 전문가와 함께 하는 로컬푸드 개발과 홍보 및 판매, 수요 작은음악회, Green-Food 생산을 위한 환경마련
- 📅 **지원기간** 2019년
- 👥 **참여인원** 동문산 새뜰마을 주민협의회 30명, 마을주민 10명, 협력단체 30명



공동체 형성 과정

마을 공간에서 만들어가는 공동체

밭한 동문산 지역은 낮은 구릉지형의 특성상 특유의 거주지 경관을 형성하며, 주변의 풍부한 녹지공간은 해안 도시지역으로서 차별화되는 경관을 보여준다. 또한, 오랜 시간 마을주민이 머물며 담소를 나누는 공간과 더위를 피해 바람이 통하는 골목에 나와 시간을 보내고, 고추를 말리며 이야기를 나누는 공간이 마을 골목 곳곳에 남아있다. 이런 공간은 우리마을만이 갖는 독특한 자연환경이자 문화적인 환경이다. 마을주민들은 공간의 소중함을 간직하고 있지만 한편으로는 ‘밭한 동문산 지역은 오래된 건축물, 재해 위험과 같은 안전문제와 함께 소방도로도 없어 생활하는데 부족함이 많다.’, ‘저소득층과 노약 계층 등 사회적 약자가 밀집되어 있으므로 기초적인 생활인프라 확충, 집수리, 공동체 회복을 중심으로 하는 최소한의 생활여건을 갖춰야 한다.’와 같은 아쉬움을 토로하기도 한다.

마을 주민 인터뷰 중에서 ...

‘마을 주민이 쉬고 이야기 할 수 있는 공간이 없어서 아랫동네까지 노인정시설을 이용하러 간다. 하지만 매일 이용하는 것은 어렵다. 주로 나무 그늘 벤치에 앉아 많은 시간을 보낸다. 그러다가 비라도 쏟아질라치면 급하게 집으로 돌아가는 일이 반복된다. 하루빨리 날씨에 구애받지 않고 주민들이 쉴 수 있는 공동체 공간이 마련되었으면 한다.’

공동체 활동의 시작

모두가 참여하는 건강한 마을 만들기

2015년 3월 정부에서 지원하는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의 대상지로 선정되어 지역의 특성과 수요를 고려한 맞춤형 재생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되었다. 이로 인해 주민들은 마을공동체 역할의 중요성을 알게 되었고, 2018년 동문산 새뜰마을 주민협의회 공동체를 구성하였다. 월 2회 정도 정기적인 정례회를 통해 공동체 활성화방안에 대해 논의를 시작했다. 대다수 회원은 70세 이상 주민분들로 ‘마을에 경로당이 있었으면...’하는 의견이 모여 4월에 경로당을 설립하였다. 경로당이 지어지자 마을공동체 활동을 위한 공간이 확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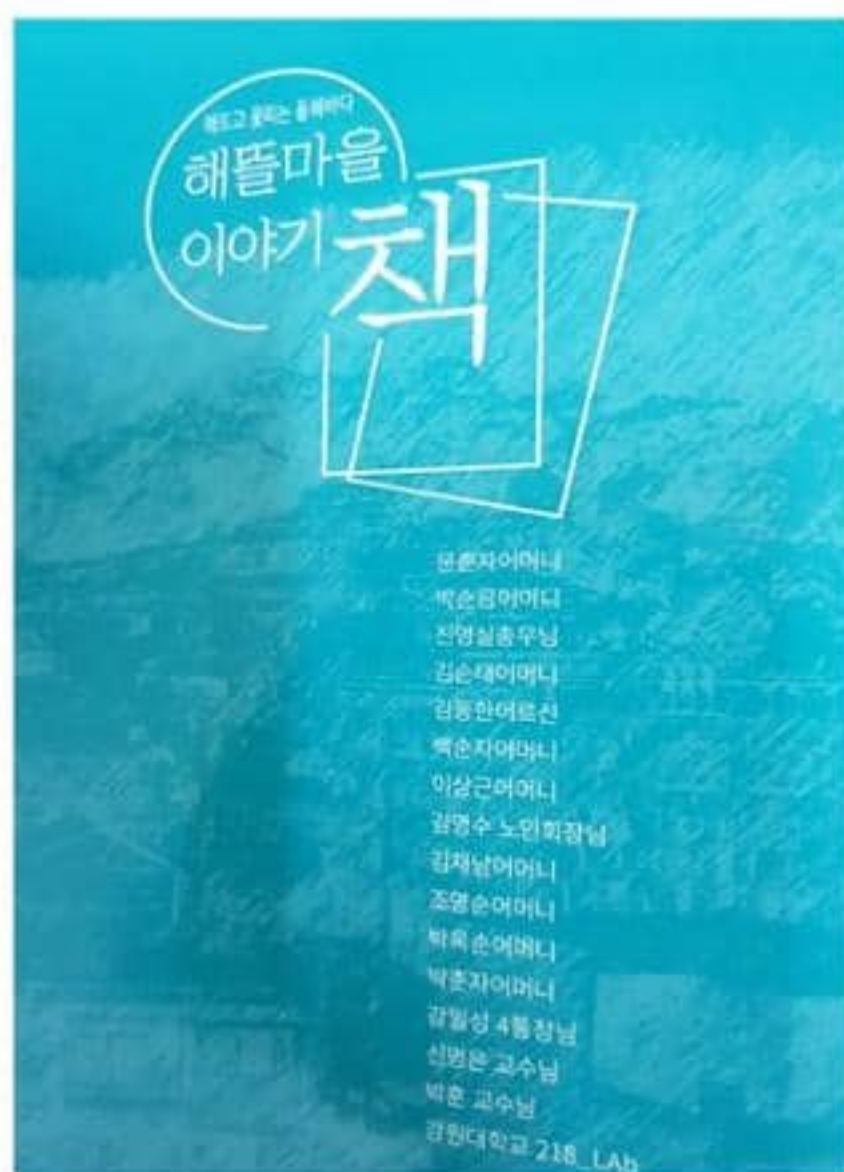
되어 본격적으로 공동체 활동을 수행할 수 있었다. 마을에서는 조리 외식 사업 분야에 도전하여 작업공간과 판매를 위한 공간을 마련하였다. 아직 체계가 잡히지 않아 주민들과 지속해서 운영할 방안을 함께 모색하고 있다. 우리 마을만의 특성을 반영할 수 있는 조리 외식 교육을 통해 어르신들이 경제적으로 자립하는 방안도 모색해 보았다. 궁극적으로 소외되는 주민 없이 마을 일에 참여하는 건강한 마을을 만드는 것이 우리의 가장 큰 목표이다.

공동체 활동내용과 성과

우리가 걸어온 길

공동체 마을 구성을 위한 시작 단계로 마을 이야기를 발굴하고, 분위기를 조성해 가고 있다. 세부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지역 어르신들의 이야기를 통해 과거 마을의 이야기를 듣고, 기록화하는 과정에서 강원대학교 삼척캠퍼스 건축학과 학생들이 참여하여 어르신의 마을 이야기를 책으로 묶어 마을의 기억을 되살렸다.



둘째, 조리 외식 전문가와 함께 하는 로컬푸드 개발과 홍보, 그리고 판매이다. 2019년부터 총 4회에 걸쳐 실전 과정으로 이어나갔다. 제육강정, 꼬마김밥, 북어채 무침 등 다양하게 만들면서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하고 야시장에서 판매할 메뉴를 정했다. 또한, 소규모의 모임을 예약받아 개발한 음식을 중심으로 메뉴를 구성하여 판매하는 케이터링 사업을 위해 시범 뷔페 상차림을 해보았다. 실습 중간에 텃밭에서 갓 따온 옥수수를 간식으로 먹기도 하고, 다 같

이 점심을 먹으면서 소통할 수 있는 시간이 많았다. 그 덕분에 우리의 유대감은 한층 깊어졌다. 음식을 만들고 중앙시장 야시장에서 판매를 시작하였다. 이틀이었지만 음식을 가져가는 족족 동이 날 정도로 인기가 좋았다. 특히 어떤 관광객은 감자 크로켓 맛을 보더니 이때까지 먹어 본 중에 제일 맛있다는 극찬을 하여 주민들의 기분을 한층 업! 시켜주기도 했다. 고령의 주민들이 모여 음식을 만들고 직접 판매도 해보면서 공동체 활동이 더욱 활성화되길 바라는 마음이 커졌다.



셋째, 마을 내 자투리 부지를 활용한 마을 공동정원 조성을 통해 주민들 간 공동체 의의를 다졌다. 공동체 단위에서 수행할 수 있는 활동 규모를 한 뼘이라는 상징적 용어로 표현하여, 작지만 소중한 공간으로서 의의를 담고자 하였다. 지역민의 접근이 쉽고, 이용이 편리한 공공 공간(public space)을 마련한 한 뼘 공원에서 주민들은 4번의 작은 음악회를 가졌다. 비가 오는 굳은 날에도 주민들은 이곳에서 음악회를 즐기면서 추억의 음악 여행 시간을 보냈다.



넷째, Green-Food(그린푸드) 생산을 위한 환경을 마련했다. 텃밭은 경로당 개인부지로 선정하였으며 개인부지는 그 주인에게 사용해도 된다는 승낙을 받았다. 비닐하우스를 설치할 때 짙은 날씨가 매우 추웠다. 주민들은 차가운 공기에 몸이 움츠러들었지만 힘쓰는 작업을 하다 보니 언제 추웠냐는 듯, 하나둘씩 겉옷을 벗고 일에 몰두했다. 이틀 동안 고생하니 비닐하우스를 완성할 수 있었다. (사)강원도 옥외광고협회 동해지부와 강원대학교 삼척캠퍼스 건축학과에서 지원을 받아 작업을 수월하게 할 수 있었다. 또한, 주민분들과 같이 텃밭과 비닐하우스 거름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공동체로서 제 역할을 한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비닐하우스 설치 후 같이 고생한 학생들 그리고 주민분들과 함께 마련한 동지팥죽을 나누어 먹으며 이야기하다 보니 이런 작은 경험들이 모여 화합이 되는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다.



공동체 향후 계획

해가 뜨고 꽃이피는 동해바다 새뜰마을

시작이 반이라는 말처럼 주민들의 관심과 참여를 유도하는 것만으로도 큰 의미가 있다. 마을에는 그 마을 고유의 이야기들이 있다. 어르신들이 들려준 재미있는 이야기들은 콘텐츠의 좋은 재료가 되기도 하고, 우리 지역의 특화 상품을 개발하여 독립적 경제 공동체가 될 수 있다. 이렇듯 마을주민들과 소통하고 함께 할수록 마을의 브랜드를 더 높일 수 있고, 여러 자원을 연계하여 지역의 부가가치를 만들어낼 수 있다. 강원도 마을공동체 활동을 통해 우리마을 어르신들은 경제적인 자립을 할 수 있게 되었다. 자기 역할을 하고 다양한 활동에 참여하면서 자존감을 회복하고 삶의 질이 올라가 행복감도 더욱 커졌다. 우리는 발한 동문산 지역의 공동체성이 확장되어 궁극적으로는 동해시 주변에 공동체를 중심으로 하는 복지 시스템이 확립될 수 있길 기대한다. 이에 우리는 건강한 공동체성을 유지하고 공동체가 활성화되어 젊은 층이 마을로 유입될 수 있는 구조를 마련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

발한 동문산 지구의 공동체는 주변의 공동체와 연계를 강화하고 공동체의 활성화에 이바지하기 위해 실행계획을 세우고 있다. 2019년 새뜰마을사업이 공식적으로 종료되었으나, 구성원 및 전문가와 함께 지속적으로 고민하고 실천할 것이다.



평창군

산약초 꽃차연구회

마을길 화단조성 및 꽃차 주민소득 창출



- 📍 **지 역** 강원도 평창군 미탄면 회동1리
- 📁 **프로그램** 마을길 화단조성 및 꽃차(약차) 주민소득 창출
- 📅 **지원기간** 2019년
- 👥 **참여인원** 마을주민 8명



공동체 형성 과정

막막한 시작, 그러나 첫 걸음부터

여러가지 이유로 10여 년의 오랜 시간 동안 쌓인 오해와 갈등의 골이 깊어 '다른 마을은 다 돼도 우리 마을은 안 된다'라는 주민들의 푸념을 심심치 않게 들어왔다. 그러나 시간이 지남에 따라 우리 마을도 이제는 지난 과거를 떨치고 더 나은 변화와 발전이 필요하다는 주민들의 생각이 모였다. 마을의 발전을 위해 구체적인 준비를 해야 하지 않겠느냐는 공감대가 이장님과 임원들 그리고 마을주민들 사이에서 시작되었다. 이를 위한 준비과정으로 외부 전문가를 초청해 기초교육 강의를 열었고, 주민들은 교육을 통해 더 나은 마을의 모습을 꿈꾸고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었다. 청정자연 이외에는 내세울 것이 변변치 않은 회동1리의 주민들은 '야생화 고향마을'이란 이름을 걸고 마을을 발전시켜 나가자고 의견을 모으는 단계까지 이르렀다. 오랜 시간 동안 마을의 흐름을 지켜봤던 주민들에게는 이만큼의 변화만으로도 놀라운 일이라고 칭찬할 만한 큰 변화였고 발전이었다고 입을 모았다.

그러나 겨울에 접어들면서 이러한 노력과 변화는, 마을의 변화에 동의하지 않는 소수의 주민과 이들을 통해 확산되는 부정적인 말들로 인해 조금씩 움츠러들게 되었다. 부정적인 말과 함께 앞서 마을 발전을 주도하는 임원들에 대한 근거 없는 부정적인 이야기들이 주민들 사이에서 퍼지게 되었다. 이러한 문제가 생긴 가장 큰 이유는 임원들조차 마을 발전에 대한 목표는 있지만, 무엇을 통해 목표를 향해 갈 것인지에 대한 뚜렷한 방향이 부족했기 때문이다. 마을이 가지고 있는 환경과 닦친 과제를 효과적으로 해결할 만한 인적 자원도 부족한 상황에서 임원들이 머리를 맞대고 의논해 보았지만, 미봉책에 불과할 뿐이었다. 꾸준히 주민들의 생각을 하나로 모으며 해결책을 찾는 데 집중하였으나, 문제는 해결되지 않은 채 시간만 계속 흘러갔다.



공동체 활동의 시작

모두 함께할 수 없다면 우리가 먼저 시작해 봅시다

이 같은 상황을 지켜보며 묵묵히 지원하던 마을 교회의 목사님이 어느 날 여러 가지 방안을 제안하셨다. 소수 주민의 부정적인 인식과 마을 발전을 위한 활동의 방향을 찾지 못해 벽에 부딪힌 와중에 목사님의 제안에 따라 뜻이 맞는 주민들이 하나둘씩 모이게 되었다. 그렇게 마을의 주제인 야생화를 매개로 행복한 마을을 만들기 위한 '산야초 꽃차연구회'의 첫 발을 내딛게 되었다. 첫 모임에서 크게 3가지의 활동 방향을 설정하였다. 첫 번째는 야생화 고향마을에 걸맞게 꽃을 매개로 한 마을 환경개선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두 번째는 꽃차(약차)를 배우고 마을에 보급하여 어르신들의 삶의 질이 향상되도록 하자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좋은 마을을 만들기 원하는 주민들이 따라올 수 있도록 우리가 먼저 시작하고 앞장 서야 한다는 점이었다. 작게나마 공동체 회원들의 뜻이 하나로 모여졌고, 기회가 될 때마다 모여 앞으로 해야 할 일들과 할 수 있는 일들을 상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사실 우리의 여건은 그리 좋지 않았다. 먼저 모임 장소가 마땅치 않다 보니 무언가를 시작할 만한 환경이 되지 못했고, 꽃차(약차)를 배우고 이를 위해 필요한 재료와 도구들을 활용하고 보관할만한 공간 마련이 시급했다. 그러자 공동체의 어려움을 알고 마을 교회에서 부속건물을 선뜻 무상임대 해주었다. 단, 공동체의 이익이 아니라 주민들을 위해 사용 시 개방하겠다는 조건이었다. 구성원들 모두 그 뜻에 동감했고, 비록 협소하지만 마을사랑방으로 만들어 언제나 꽃차 한 잔 나눌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어 가고자 했다. 다음으로 극복해야 할 어려움은 자금을 확보하는 것이었다. 주민들을 지원하기 위한 일이지만 일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자금이 필요했고, 이를 마련하려는 방법을 찾아야만 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부터 찾아가기로 했고 그러던 중 <강원도 마을공동체 지원사업>을 알게 되었다.



공동체 활동내용과 성과

품앗이에서 배움터로

우리 활동의 주된 목적은 ‘행복한 삶, 건강한 노년, 풍요로운 여가’를 뒷받침 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것이었다. 따라서 주민들이 새롭게 변화되는 마을의 모습을 눈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3가지 주요 활동을 결정했다. 우선 마을에 들어서는 입구 표지석 주변에 화단을 조성하고 가꾸었다. 화단을 조성하면 마을의 변화를 가시적으로 느낄 수 있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시작하였다. 항상 잡초가 우거져 풀이나 베어주던 곳이 공동체 구성원의 손길을 통해 예쁜 꽃이 심어진 화단으로 아름답게 조성되었다. 화단조성을 위한 기초작업과 코스모스 모종을 심는 과정에서 마을을 위한 일이라면 누구나 함께 논의하고 협력할 수 있는 기본적인 토대를 마련할 수 있었다. 두 번째로 꽃차(약차) 프로그램은 우리 마을이 앞으로 추진하게 될 야생화 모종, 재배, 보급 사업과 함께 재배된 야생화를 활용한 수익사업 연계를 위해 준비하게 된 프로그램이다. 즉, 야생화를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주민들에게 보급하고 활성화하면 마을 수익사업 차원에서 꽃차카페를 주민들이 운영하는 방향까지 고려한 것이다. 전문 교육 강의와 실습 과정을 통해 꽃차, 꽃 송편, 연잎 차 등을 만들며 배움의 뜨거운 열정을 불태웠다. 반려원에 프로그램 또한 야생화 재배를 소일거리로 제공하여 어르신들의 소득과 연계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진행되었다. 우선 1인 1화분 키우기를 목표로 화분을 만들고 꾸미는 과정과 화초 키우는 방법을 배우는 시간으로 진행되었다. 서로 화분을 자랑하는 어르신들의 모습에서 노년의 행복은 먼 곳이 아닌 가까이에서 시작될 수 있음을 확인한 값진 프로그램이었다. 마지막은 사실 계획하지 않았던 활동이었다. 마을주민 전체로 프로그램을 확대할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기획한 마을 축제 프로그램이었다. 연말 마을총회 때 그동안 진행된 공동체 활동내용을 소개하고 꽃차 시음 및 반려 화분을 전달했다. 이 시간은 우리가 함께했던 지난 1년을 돌아볼 수 있는 귀중한 시간이었다.



처음 활동에 오시라고 초대할 때 ‘이제 다 늙어서 뭘 배운다고 그래~ 다 필요 없어’라고 하시던 어르신이 요즘은 우리 구성원들에게 언제 마을회관에 가면 되냐고 물으신다. ‘이번 주 수요일에는 마을회관에서 안모여요?’라며 화요일 저녁 식사를 마치고 전화로 물으셨던 어르신의 기대에 찬 목소리도 귀에 생생하게 남아있다. 지난 1년 동안 우리의 작은 수고를 통해 마을주민들이 기대하고 기다리는 시간이 생겼다는 사실에 마음이 따뜻해진다.



공동체 향후 계획

내년부터는 마을 학교를 열어주세요!

우리는 이제 1년밖에 되지 않은 갓 태어난 아이와 같아서 아직 체계도 잡히지 않았고 어설픈 점이 많다. 지난해에는 <강원도 마을공동체 지원사업>을 통해 우리로서는 시도하기 어려운 일들을 할 수 있었던 한 해라고 평가한다. 2020년은 그동안 진행하였던 프로그램을 조금 더 구체화해 보고자 한다. 첫째, 꽃차 강좌를 통해 주민들이 꽃차 소믈리에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도록 진행하는 것이다. 둘째, 반려원예강좌를 통해 모종을 심는 것부터 수확하고 차의 재료로 만드는 전 과정을 차근차근 진행하여 내실을 다지는 시간으로 진행하고자 한다. 셋째, 아직도 마을의 변화에 선뜻 참여하지 못하는 어르신들이 계시기에 조금씩 다가가 손을 내밀기로 했다. 그리고 이 모든 과정을 통해 함께 나누며 함께 행복해지는 마을을 만들어 가고자 한다.

지난 연말 마을총회를 마친 후 이장님께서 꽃차체험 중 강좌 때 걸어두었던 ‘행복 가득 마을 학교’ 현수막을 보시더니 ‘내년부터는 마을 학교를 열어주세요!’라고 말씀하셨다. 고령의 어르신이 대부분인 마을의 특성상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한 문해(한글) 교육, 운동, 치매

예방, 취미 등의 주간 보호 프로그램이 진행되는 마을학교 운영을 우리 공동체가 맡아서 진행하는 방안에 대해 마을 임원들과의 협의가 상당히 진척되고 있다. 우리에게서 주민 한 사람 한 사람의 행복을 위해 서로 힘을 보태고 나누는 아름다운 마을을 이루고 싶은 꿈이 있다. 홀로 생활하시는 노인들이 많은 우리 마을에서 영양가 있는 점심 한 끼는 마을회관에 함께 모여서 드실 수 있으면 하는 마음이다. 마지막으로 마을이 책임지는 복지공동체를 이루는 회동1리가 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우리 공동체가 뒷받침하며 노력할 것이다.



고성군

해상1리마을회

메밀꽃 축제로 하나 되는 행복 마을



- 📍 **지 역** 강원도 고성군 간성읍 해상1리
- 📁 **프로그램** 메밀재배, 메밀꽃 축제, 메밀국수 눌러먹기 행사
- 📅 **지원기간** 2016년 ~ 2018년
- 👥 **참여인원** 35명



공동체 형성 과정

행복한 마을 만들기의 출발

우리 마을은 전국 4대 사찰 중 하나인 건봉사로 가는 길목에 있고, 무엇보다 마을에 애정이 깊은 38세대 70여 명의 주민이 살고 있다. 각자 바쁘게 살다 보니 모이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니고, 귀농인들이 전입을 왔는데 서먹서먹하고 화합이 잘 안 되는 상황이었다. 이런 갈등을 해소하고 행복 가득한 마을을 만들고자 주민들이 모이기 시작했다. 마을 활성화를 위해 주민들은 건봉사와 메밀이라는 자원을 활용하여 어떤 사업을 할 수 있을지 여러 방면으로 고민을 했고 메밀꽃 축제를 운영하는 건 어떻겠냐는 의견이 나왔다. 이미 메밀꽃 축제로 건봉사는 매년 많은 관광객이 찾고 있으므로 관광객의 발길을 붙잡을 수 있다면 마을과 특산품을 홍보하기 위한 좋은 기회가 될 것으로 생각했다. 그러나 건봉사와 해상 1리 사이에는 볼거리나 즐길 거리가 매우 부족하고 식당도 거의 없어 관광객들은 바로 마을을 빠져나가고 있었다. 우리는 머리를 맞대고 어떻게 메밀밭을 조성하고 메밀꽃 축제장을 만들까에 대한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다.



공동체 활동의 시작

7월부터 11월까지

가장 처음으로 시작한 일은 메밀밭 조성이었다. 메밀밭 조성은 7월 중순쯤에 마을에 있는 공지 및 개인의 밭 5,000㎡를 이용했다. 햇볕이 따뜻해진 봄이 되었을 때 하나둘씩 주민들이 모였다. 아무것도 없던 밭에 조금씩 메밀을 채워나가자 주민들은 제 손으로 사업을 진행할 기회가 생겼다고 기뻐했다. 여름이 오자 뜨거운 햇볕과 무더위에 땀 흘리며 고생했지만,

메밀의 푸른 싹이 높이 피어나는 만큼 마을주민들의 화합도 점점 커졌다. 메밀꽃은 9월 초 경에 핀다. 하얀 눈송이 같은 꽃이 몽글몽글 피어있는 것이 소박하지만 참 예쁘다. 그래서인지 사람들은 도로변에 있는 메밀꽃을 보고 그냥 지나치는 법이 없다. 가까이 가서 꽃을 보거나 냄새를 맡는 사람도 있는가 하면 사진을 찍어가는 사람도 많다.



11월 초에 마을주민들은 수확을 시작했다. 밭에 들어간 사람들이 메밀을 쥐고 한 움큼씩 베면 다른 사람들은 메밀을 가지런히 정리하여 단을 묶고, 메밀을 통풍이 잘되는 곳에 두고 말린다. 메밀이 적당히 마를 때쯤 주민들은 다시 모여 마을회관 마당 가득히 마른 메밀을 펼쳐 놓는다.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도리깨로 몇 번씩 타작을 반복하면서 한 알 한 알 모두 털고 메밀을 다 털고 나면 다음 작업이 시작된다. 한 사람은 큰 선풍기를 손으로 돌리고 몇몇은 키에 메밀을 담아 열심히 까불러야 하는데 그래야 껍질이나 티끌들이 날리면서 깨끗해진다. 마지막으로 잘 고른 메밀은 물로 깨끗이 씻어서 멥석에 고르게 펼쳐놓고 햇빛에 잘 말려야 한다. 혼자 하면 무척이나 힘들었을 일을 모두 모여 '우리 마을을 위해'라는 한마음 한뜻으로 정말 다들 열심히 했다.



메밀꽃 필 무렵 피어난 마을의 우정

그 무렵 핀 것은 메밀꽃뿐만 아니라, 마을의 우정도 꽃 피었다. 각자 살기 바빴던 주민들이 공동체로 모여 메밀을 재배, 수확하고 축제 준비를 해가면서 함께 일을 할 때 더 즐겁다는 것을 배우고 있다. 수확한 메밀을 활용하여 축제를 준비하기 위해 평창 효석문화제로 견학을 다녀왔다. 효석문화제 방문을 통해 축제에서 중요한 것이 세 가지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첫 번째는 볼거리다. 평창에 방문하였을 때 가장 눈에 띄는 것은 메밀꽃, 효석달빛 언덕 등 볼거리가 가득했다는 것이다. 두 번째는 먹거리다. 관광에 있어서 중요한 요소 중 하나로 메밀이 유명한 고장인 만큼 메밀을 이용한 먹거리가 다양하였다. 세 번째는 즐길 거리이다. 공연과 메밀 농사 놀이, 나귀, 깡통 열차 타기 등 즐길 거리가 다양했다. 효석문화제를 다녀와서 앞서 말한 세 가지의 중요성을 느꼈고 운영 방식을 직접 볼 수 있어 우리 마을 축제 준비에 많은 도움이 된 시간이었다.

선진지 견학을 통해 배운 것을 바탕으로 축제를 준비하기 위해 주민들이 모였다. 축제를 준비하는 과정은 한 명의 주도가 아닌 마을주민 모두가 참여하는 것에 중점을 두고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였다. 우리는 조별로 나누어 포스트잇에 각자의 의견을 적기 시작했다. 축제의 방향, 목표, 내용 등에 대한 생각을 자유롭게 적고 논의해가며 차근차근 계획을 세워갔다. 그렇게 축제에 대한 큰 틀을 정하고 주민 모두에게 각자의 역할을 배분하며 계획을 점점 구체화하였다.

축제는 건봉사를 방문하는 관광객과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이루어졌다. 볼거리로 메밀 축제를 준비하는 과정을 담은 사진전을 마련하여 우리 마을에 대해 긍정적인 이미지가 만들어지길 바랐다. 먹거리는 직접 수확한 메밀을 이용한 막국수와 지역 특산품을 준비했다. 특별하게 맛있지는 않지만 직접 키우고 만들어서일까? 투박하지만 정감 있는 한 끼를 대접하고 싶었다. 즐길 거리는 주민참여 노래자랑을 열었다. 아주 작은 대회였지만 주민 모두 함박웃음을 지었다. 이번 축제는 관광객들 대상으로 마을 특산품을 홍보하는 기회이기도 했지만, 주민 모두 함께 즐길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이었기에 더 의미 있었다.



활동을 마치며

메밀꽃 축제로 하나 되는 행복한 마을

김부영 노인회장님 _

“마을주민과 서로 협력하여 메밀 단지를 조성하고 땀 흘려 수확한 메밀로 축제도 하고 전통 방식으로 국수도 만들어 먹어 좋았다.”

최복자 부녀회장님 _

“이번 마을공동체 사업을 초석으로 앞으로 해상 1리 마을 홍보에 더욱 노력할 것이고 해상 1리가 잘 살고 건강한 마을이 되었으면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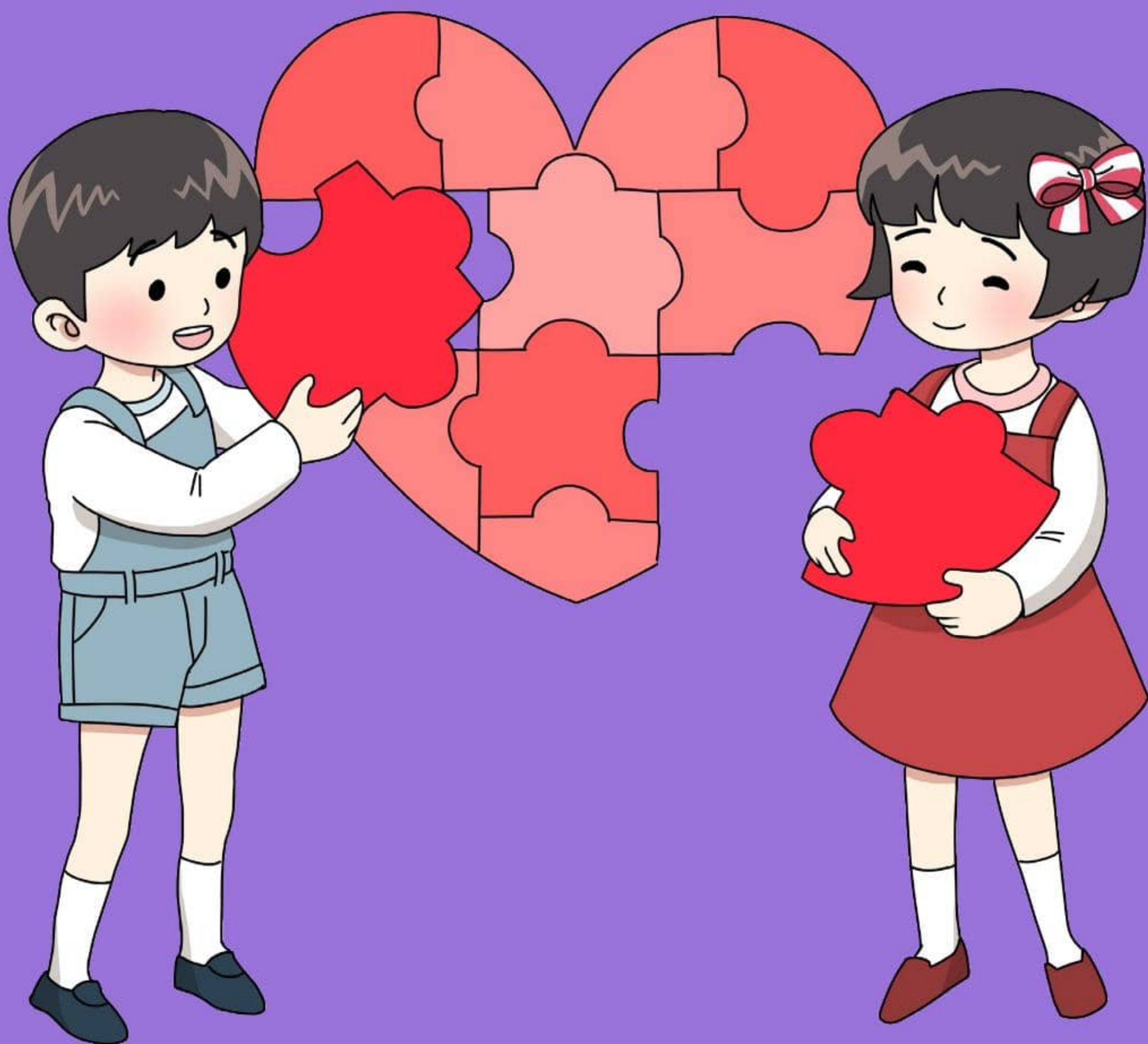
이번 사업은 배움의 과정이었다. 주민들은 마을의 문제가 있다는 것을 함께 인식하고 해결 방안을 찾고 역할을 나누어 문제를 직접 해결했다. 이러한 경험들을 바탕으로 문제 해결을 위한 체계가 만들어졌고, 앞으로 문제 상황이 생겼을 때 마을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기반이 되었다. 사업을 진행하면서 수월했던 부분도 있었지만 어려웠던 점도 많았다. 그 중 지속해서 주민참여를 유도하는 것이 가장 어려웠다. 대부분 본업이 있기에 시간을 내는 것은 생각보다 쉽지 않은 일이었다. 원활한 사업을 위해 지속적인 참여 기반 마련, 마을 차원의 자립기반을 조성해야 할 필요성을 느낀 계기가 되었다.

<강원도 마을공동체 지원사업>은 배움과 소통의 경험으로 우리마을에 정말 특별한 일이었다. 마을주민이 모여 마을의 문제를 생각하며 해결하기 위한 방법을 찾기 위해 토론하고 방안을 실현하는 데 필요한 것을 배웠기 때문이다. 토론을 통해 의견을 모아 주민들 간 역

할을 나누어 문제를 해결하면서 토론의 힘과 주민자치의 중요성에 대하여 알게 되었다.

아마도 이번 활동에서 주민 스스로 협력 기반을 조성했다는 점이 가장 긍정적으로 평가할 부분이라는 생각이 든다. 기획부터 집행까지 주민이 참여하지 않은 부분이 없다. 하나부터 열까지 우리의 노력이 들어간 사업인 만큼 주민들의 뿌듯함도 컸다. 마지막으로 스스로 마을 문제를 발굴하고 해결하는 경험을 통해 앞으로 어려운 문제에 부딪혔을 때 무엇이든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는 자신감이 생겼다.





복지봉사형

원주 나누리

강릉 포남2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삼수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원주시

나누리

우리는 개운동^愛 산다



- 📍 지역 강원도 원주시 개운동
- 📁 프로그램 우리는 개운동^愛 산다
- 📅 지원기간 2018년 ~ 2019년
- 👥 참여인원 마을주민 22명



공동체 형성 과정

작은 나눔의 시작부터

우리마을은 인구 14,000여 명이 거주하고 있는 교통의 요충지이며, 안정된 주거생활 중심 지역으로 생활여건이 그리 나쁘진 않다. 그러나 혁신도시의 형성과 원주시청 이전으로 지역주민이 계속 줄고 있고, 세대수 대비 65세 이상 고령 인구는 높은 편에 속했다. 그래서 우리마을은 어르신들을 위한 노인정이 부족하고 복지관이 없어 생활 활동 지원과 여가 생활을 즐길만한 프로그램 개발이 시급한 상태였다.

2003년 처음 명륜동에 식당을 열고 시작한 동네 경로당 점심 식사 나눔을 계기로 복지관 밑반찬 나눔을 하게 되었고, 그로부터 15년을 매주 반찬 2가지씩을 만들어 나눴다. 어떤 사람들을 대상으로 할까 고민 끝에 우리나라가 이제 고령사회로 진입함에 따라 마을에 칩거해 있는 독거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정했다. 주 1회 어르신들에게 밑반찬을 나눠 드리고, 가정방문을 통해 말벗도 해드렸다.

하지만 단순 반찬 나눔에 그치지 않고 소일거리라도 쉽게 할 수 있는 일을 찾아 드리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렇게 우리는 2018년 2월에 5~60대 어르신 11명이 모여 작은 마을공동체를 구성하게 되었다. 첫 만남엔 우리의 취지와 앞으로의 계획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었고, 홀몸 독거 어르신들에게 밑반찬을 제공하는 대신에 밖으로 나와 자율적으로 봉사할 수 있게 하는 것으로 시작했다. 그러자 경계심을 갖던 분들도 몇 번 음식을 배달하고 어려운 상황을 함께 고민하고 나누면서 마음을 여는 게 보이기 시작했다.



공동체 활동의 시작

오순도순 봉사단과 함께 힘을 합쳐요

처음에는 공동체 구성원을 모두 칩거해 있는 독거 어르신들로 구성하다 보니 자발적으로 참여하질 않아서 이들을 이끌어줄 또 다른 사람들이 필요했다. 음식을 만들어 배달하고 말벗이 되어줄 사람들이 필요했다. 그렇게 나누리에 봉사 오는 사람들이 모여 '오순도순 봉사단'이라는 하나의 단체를 만들게 되었다.

봉사를 다니면서 따뜻한 이야기와 더불어 필요한 것과 애로사항에 대해 사전 조사를 하였고, 이를 기반으로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였다. 그러자 독거어르신들이 한분 한분 집 밖으로 나오기 시작했다. 토요일 나누리 밥상에 직접 봉사를 하겠다고 나선 것이다. 그렇게 활동을 하면서 자부심과 함께 밖으로 나와야 하는 이유를 찾기 시작했다. 앞으로 마을에 계시는 더 많은 칩거 어르신들을 위한 프로그램 발굴과 지원이 필요하고, 이들을 위한 후원이나 봉사자들 역시 필요하다. 그중 어르신들의 자발적인 참여와 밖으로 나올 수 있는 용기의 북돋움이 가장 중요하다. 원주 나누리는 어르신들의 용기가 하나하나 모여 활동이 더욱 활성화되고 있다.

공동체 활동내용과 성과

봉사를 통한 어르신들의 변화

하나둘 집 밖으로 나온 공동체 구성원을 어떻게 위로하고 용기를 줄까 고민을 많이 한 끝에 그분들에게 역할을 주기로 했다. 거리 캠페인 봉사단장, 문화프로그램 보조 진행자, 안전도우미, 도시락 담당, 설거지 담당 등 각자의 역할을 부여해 주었다. 또한, 어르신들은 식사를 마친 후에 봉사자분들과 함께 대화도 나누고, 서로 잘한 점, 부족했던 점 등 앞으로 어떻게 운영이 되면 좋겠는지 의견을 나누면서 마무리를 했다.

비록 짧은 시간 봉사했다고 하더라도 나도 나가서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는 자부심과 누군가에게 도움을 주었다는 것에 대한 기쁨을 나눠주고 싶었다. 실제로 공동체 활동을 통해 너무 행복하다고 하시는 분도 있고, 이렇게 안 만났으면 아직도 집에서 홀로 칩거해 우울한 생활을

하지 않았을까 토로하시는 분도 있다. 그렇게 나누리는 형제들을 하나 더 얻었다. 사실 우리는 공동체 활동을 한 지난 8년 동안 형제 같은 사이가 되었다. 함께한 형제들과의 약간의 마찰도 있었지만, 공동체를 형성하고 2년 동안 많은 우여곡절을 겪으면서 이제는 하나로 융화되고, 서로 이해하고 배려해 주는 자세가 되었다는 가장 큰 성과를 얻었다.



공동체를 형성하고 처음에는 구성원들을 밖으로 이끄는 것이 급선무라 별다른 활동은 생각 못하고 그들을 도와주려고만 했다. 찾아다니면서 설득하고 말 없이 도움만 주자 별다른 발전을 기대할 수 없었다. 그래서 토요일 하루만이라도 나오도록 권유했다. 문화탐방을 함께 가면서 친밀해졌고 혼자서 못 하는 일들을 함께하면 해낼 수 있다는 것을 배울 수 있었다. 그 중 함께 여행하면서 많은 이야기를 했던 것이 가장 큰 도움이 되었다. 이렇게 이끌어 나간 활동을 통해 어르신 청춘 봉사단을 결성했고 그곳의 단장을 맡아 지금은 누구보다 앞장서 봉사를 하고 계신 분도 계신다.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우리의 활동내용은 아래와 같다.

- 독거 어르신 밑반찬 지원 및 말벗 봉사 (오손도손 봉사단이 지원 : 주 1회)
- 마을 정화 봉사 (매월 1회)
- 교통안전 캠페인 봉사 (주 1회)
- 출산 장려 캠페인 봉사 (주 1회)
- 나누리 토요 무료밥상 봉사 (매주)
- 어르신 여가 프로그램 활동 도우미 활동 (매주)
- 장애인 시설 점심 나눔 행사 참여 봉사 (월 2회)
- 독거 어르신들을 위한 지역사회 적응 프로그램 도우미 활동 (5월 어버이날 행사, 10월 어르신 운동회 봉사)



공동체 향후 계획

우리는 개운동愛 산다!

‘주민의 건강을 책임지고 찾아가는 맞춤형 마을공동체’ 라는 비전의 실현가능성을 위해 세 가지 목표를 설정했다.

첫 번째, 마을주민이 함께하는 공동생활센터 운영과 체계적인 여가 프로그램의 개발이다. 홀로 계시는 어르신들이 우울하지 않도록 활기찬 마을조성과 소외, 취약계층을 위한 마을 공동 작업장 조성을 목표로 늘 마을주민과 함께할 것이다.

두 번째, 마을 자활공동체 형성이다. 지역사회 여러 단체와 협약을 통해 취약계층에 필요한 집수리 및 도배 장판 교체, 필요 가전제품 제공은 물론 애로사항을 들어주는 등 정신적으로 지지해주는 사업을 전개할 계획이다. 지역주민이 편안하고 안전하게 마을에서 생활 할 수 있게 하고, 더욱 적극적인 자활 프로그램 개발로 중년 노인들이 자립할 수 있는 조금 더 발전된 공동체를 형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다.

세 번째, 마을 건강 멘토 공동체이다. 요즘 고령화 사회에서 홀로 지내는 어르신들은 아프면 요양시설로 향할 수밖에 없다. 하지만 요양시설에 들어가면 죽어야 나온다는 이야기가 있고, 이런저런 이유로 많은 제약이 있기에 신체적·정신적으로 구속될 수밖에 없다. 그러므로 마을에서 함께 관리해주고 보살펴 주는 공동체를 생각한 것이다. 요양시설과는 의미가 다른 공동생활, 내 집에 살면서 서로 보살펴 주고, 도움을 받는 형태의 건강 멘토 공동체 말이다.

당장 먼 미래의 이야기 일지라도 언젠간 모두 이루어질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는다. 내가 꿈꾸는, 우리가 꿈꾸는 나누리 마을공동체를 만들기 위해 우리는 오늘도 열심히 달릴 것이다.



강릉시

포남2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보래미 나눔공간 운영



- 📍 **지 역** 강원도 강릉시 포남2동
- 📁 **프로그램** 보래미 나눔공간 운영
- 📅 **지원기간** 2018년 ~ 2019년
- 👥 **참여인원** 협의체 구성원 19명



공동체 형성 과정

주민이 주민을 돕는 지원체계가 마련하기

2016년 1월 지역주민의 복지에 힘을 신고자 사람들이 나섰다. 자치위원, 통장, 부녀회원, 방범대원, 복지 관련 종사자, 자원봉사자 등 총 18명(남자 8명, 여자 10명)의 구성원들이 모여 현재까지 활동하고 있다. 포남2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지역사회 문제해결을 위한 인적·물적 자원을 발굴하고 육성하여 복지 사각지대 취약계층에게 지원함으로써 예방적 복지 강화, 복지수요자에 대한 서비스 연계와 지원, 지역 공동 협력사업 추진 및 지원, 그 밖에 지역주민의 사회보장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대해 발 벗고 나서고 있다.

포남2동은 타읍·면에 비해 독거노인, 장애인 등 복지대상자가 많고 복지 욕구도 다양하다. 또한, 복지 사각지대에 있어 위기가정은 긴급지원 대책이 요구되는 상황이었다. 평소 어려운 이웃을 돕기 위하여 작은 나눔을 실천하고자 하는 의지는 강했지만 나눔 행사는 연말연시, 명절 등 특정한 날에만 집중적으로 실시되고 있어 자율적으로 나눔 기부 창구가 필요했다. 이에 연중 상시로 물품을 기부받아 안정적으로 자원이 확보되어야 한다는 의견을 모았다. 복지 사각지대 발굴 및 지원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주민이 주민을 돕는 상시지원체계가 마련되어야 한다는 인식을 하고 구성원들은 곧바로 방안을 모색하였다.



공동체 활동내용과 성과

나눔 UP! 기부 UP!

우리는 2018년 2월 구성원들이 '보래미 나눔공간'이라는 마을공동체로 모여 활동을 시작했다. 보래미 나눔공간은 생필품을 자발적으로 기부하고 어려운 이웃에게 나눔을 실천할 수

있는 희망 나눔 공간이다. 아무래도 적당한 장소를 찾아보다 지역주민에게 자연스럽게 홍보되고 자발적으로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포남2동 주민센터 내 1층 우측 공간에 설치하기로 했다. 기초 목자재 재단 작업부터 사포 작업, 페인트 작업까지 모두 손길이 안 닿은 곳이 없다. 구성원들 모두가 적극적으로 활동에 동참하며 따뜻하고 부드러운 공간을 연출하기 위해 노력했다. 또한, 모두가 의견을 나누면서 외벽 색깔 선정부터 디자인까지 정해나갔고 공간이 완성되는 모습에 다 함께 기뻐했다.



2018년 8월 23일 보래미 나눔공간 완성 후 지역단체와 주민들에게 홍보하기 위하여 개소식을 했으며, 전단지를 나누어 주며 나눔 공간을 알리기 시작했다. 자발적으로 기부된 생필품 등은 유동적으로 긴급지원이 필요한 대상자가 생겼거나, 어려운 계층을 찾았을 때 꾸러미에 담아 즉각적으로 지원하는 방식으로 운영했다. 기부품목은 통조림류, 라면, 세면·세제류, 화장지, 곡류, 수건, 기타 생필품 위주로 이루어졌고, 곡류인 쌀을 기부할 때는 잘 말린 2ℓ 페트병 용기에 담도록 했다. 그래야 벌레가 생기지 않고 긴급지원과 장기간 보관에 쉬웠기 때문이다. 이렇게 공간에 기부된 쌀을 ‘나눔 공간미’라고 칭했다.



2019년에는 목공 공방체험 등 전문기술을 습득하여 목재 도마를 직접 만들었고, 이렇게 제작된 도마는 '보래미 나눔 도마'라고 불렸다. 총 70점의 도마를 가지고 보래미 나눔 품평회를 개최하여 공동체 활동과 취지를 설명하고 나눔 공간에 대한 홍보와 함께 판매했다. 또한, 보래미 나눔 장터를 통해 지역주민에게 도마 및 의류를 판매하면서 수익금을 공간에 기부하거나 관내 아동센터 및 독거노인에게 생필품이 담긴 선물꾸러미를 전달하는 '사랑의 보래미 산타 행사'를 하기도 했다. 우리끼리 했다면 부족했을 나눔들이 마을공동체 활동을 통해 더 다양하고 짝 찬 나눔으로 '나눔 UP! 기부 UP!'을 할 수 있었다.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 구성원들이 직접 지역 이웃에게 나눔을 실천하는 데 관심을 가지게 된 것이다.



활동을 마치며

아름다운 나눔, 함께 가는 우리

이번 활동은 구성원들이 모여 마을공동체를 만들고 이웃에 관한 관심과 교류, 자발적인 나눔을 실천하며, 마을의 변화와 발전을 위한 소통의 장을 이루는 기회가 되었다. 보래미 나눔공간 조성은 물론 활동에 참여하면서 직접 나무 도마를 제작하고 장터 및 플리마켓을 통해 제품을 판매하여 그 수익금을 공간에 기부하고 나눔으로써 상시체계를 구축하였다는데 큰 의미가 있다. 구성원들은 지역주민을 위한 활동에 재미를 느끼고 나눔에 대한 열정을 쏟았다. 특히 직접 어려운 이웃을 찾고, 이야기를 듣고, 도움을 주는 데 일조하면서 나눔 문화를 확산시킬 수 있었다.

우리는 아름다운 나눔을 위해 지속해서 지역주민과 함께 나누며, 혼자 사는 사회가 아닌 더불어 사는 사회로 발전시키기 위하여 노력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아름다운 나눔, 함께 가는 우리’라는 슬로건 아래 항상 어울리며 웃는 공동체가 되기를 바란다. 지역의 복지 욕구를 가진 주민을 위하여 인적·물적 자원을 나눔으로써 주민이 주민을 돕는 나눔 문화를 실천하고 ‘이웃과 함께 살기 좋은 보래미 마을’을 만들기 위하여 계속 함께 할 수 있기를 소망한다.



태백시

삼수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밑반찬 만들기 및 배달



- 📍 **지 역** 강원도 태백시 태백로
- 📁 **프로그램** 밑반찬 만들기 및 배달
- 📅 **지원기간** 2019년
- 👥 **참여인원** 협의체 구성원 15명



공동체 형성 과정

'지역공동체'에 눈뜨다

2017년 11월 지역보호체계 구축이라는 숙제에 대한 해답을 찾기 위해 '어벤져스' 12인이 주민센터로 모였다. 이들이 바로 삼수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이다. 몇 명을 제외하고는 대부분이 어르신들이다. 몇십 년을 이 지역에서 살아오면서 직장 생활도 하고, 결혼해서 자녀도 키운 지역 토박이로 검은 머리보다 흰 머리가 더 많으신 그야말로 나이 지긋한 동네 어르신들이다. 이제는 신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편안히 쉬실 법도 한 나이지만 내 고향, 내 이웃의 복지증진을 위해 힘써보겠다고 두 팔 걷어붙이고 이 자리에 계시니 고개가 절로 숙어졌다. 통장협의회, 주민자치회 등 사회단체에 2~3개 이상 참여하며 힘차게 활동하고 계시니 도무지 그 힘의 원천은 어디서 오는 것인지 알 수가 없었다. 그러나 그 누구보다 우리 지역에 대한 문제점에 대해 잘 알고 계시기에 회의 내내 재미라고는 하나도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진지했다.

삼수동은 태백시 면적의 37%를 차지하고 있는 광범위한 지역으로 고랭지 배추와 매봉산 풍력단지, 검룡소, 용연동굴 등 주요 관광명소로 유명하다. 주요 관광명소가 산발적으로 있다 보니 중심권이 숙박시설 및 식당가로 구성되어 있고 조금만 벗어나면 농경지와 산으로 넓게 덮여있어 지역주민의 생활권역이 매우 넓다. 또한, 전체 노인 인구 기준으로 만 65세 이상 인구 비중이 일부 동을 제외하고는 가장 높은 편이다. 그러다 보니 젊은 층을 위한 일자리 기반이 매우 열악하고 교육시설, 문화시설, 여가시설 등이 절대적으로 부족하다. 이러한 지역적 여건을 개선해 나가며 이들과 함께 어울리고 도움을 주는 방안을 찾아보자는 취지에서 오랫동안 논의를 했다. 마침내 우리는 건강상·형편상의 이유로 식생활 해결에 어려움이 많은 어르신이 많다는 지역의 특수성을 파악하고 '직접 찾아가는 정(반찬) 지원 사업'을 추진하기로 했다.



공동체 활동내용과 성과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한해를 기억하며

2019년 직접 찾아가는 정(반찬) 지원사업은 소중한 첫 삽을 뜨게 되었고, 한 달에 한 번 3시간 남짓한 시간 동안 정성스럽게 만들어진 음식들은 통장님들을 통해 추천받은 35세대에게 전달하였다. 이 사업을 진행하면서 참으로 재밌는 경험을 하게 되었는데, 그것은 바로 한 달이라는 기간이 참으로 짧게 느껴졌다는 것이다. 모든 일이 그렇듯이 과정은 길지만, 결과물은 참으로 간단하지 않은가. 새로운 달의 시작과 동시에 어떤 반찬들을 해야 할지 고민해야 했고, 영양소와 어르신들의 건강상태를 고려하는 건 여간 까다로운 것이 아니었다. 매달 정해진 날 아침부터 모여 40인분에 가까운 양의 4가지 반찬을 3시간 만에 만들고 하나하나 배달할 수 있도록 용기에 담고, 밀봉하고 포장했다. 밀반찬을 받는 대상자 대부분이 혼자 사시는 어르신들이라 보니 한번 찾아가면 참으로 반갑게 맞아주셨다. 오랜만에 말벗할 상대가 나타나서인지 어르신들은 연신 반가워하셨고, 우리는 어디 편찮으신 곳은 없는지 여쭙고 근황 이야기를 나누었다. 또한, 연탄불은 잘 피고 있는지 안방은 따뜻한지 불편한 곳은 없으신지 이야기를 나누는 동안에도 눈동자는 집안 곳곳을 살피며 고쳐야 할 곳이 있는지 구조물이 안전한지 확인하는 것도 게을리하지 않았다. 혹시 주변에 똑같은 어려움을 겪고 계신 어르신이 있는지 물어보는 것도 필수로 빼놓지 않았다. 그렇게 하루를 마무리해가면서 12월까지 같은 일상들이 되풀이되었고, 주민센터와 협의체는 떨어질 수 없는 협력관계를 유지하며 2019년을 보람차고 알차게 보내게 되었다.



우리는 단순히 저소득층에게 밀반찬을 연계하는 서비스가 아니었다. 제공·연계를 뛰어넘어 어려운 이웃, 외로운 어르신들을 직접 찾아뵙고 적어도 매달 한 번 이상은 무탈하신지 살펴보는 공동체 의식의 기반에서 출발한 것이다. 어느 날은 배달을 나섰는데 어르신 한 분이 문을 두드려도 기척을 하지 않으셨다. 평소에 거동이 불편하셨던 어르신이라 집을 비우시는 일이 없으시다 보니 이상한 마음에 저녁 무렵 다시 가서 문을 두드려 보았다. 여전히 미동

이 느껴지지 않고 평소와는 다른 느낌에 창문을 통해 안을 들여다보았다. 아나나 다를까 팔십이 넘으신 어르신이 보일러실과 안방 사이에 이미 숨이 멎은 채로 누워있는 상황을 목격하게 되었다. 만약 이 사업을 시작하지 않았고, 어르신의 안부를 확인할 수 없었다면 몇 주가 지나도 그 상태로 방치되었을 것이다. 그야말로 뉴스에서나 나올 법한 일들이 우리가 사는 지역에서 나타나고 있었으며 이러한 일들은 앞으로 더 많이 발생하게 될 것이다.

그 일이 있고 나서 우리는 어려운 이웃을 찾아내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지역 의제를 발굴한 뒤 그에 대한 충분한 인적·물적 자원을 확보하여 추진하였다. 서로의 피드백을 통해 서비스의 질과 양을 모니터링할 수 있도록 민관협력체계를 구축해 온 것이 결실을 맺게 되는 순간이었다. 이렇듯 탈도 많고 말도 많았던 우리의 사업은 구성원들의 십시일반 모아왔던 회비와 지원금을 통해 315세대에 반찬을 지원하는 실적을 거두었으며, 결과보다도 그 과정이 빛을 발했던 9개월이었다. 단순히 일회성에 그치지 않고 장기적으로 어르신들의 식생활 개선에 도움을 주었고 그로 인해 어르신들의 건강상태 또한 많이 좋아지셨다. 입맛에 맞도록 신경을 쓰고 혹여나 상할까 조리 즉시 배달하는 시스템 운영 덕분에 누구 하나 음식을 드시고 탈이나거나 맛이 없다고 불만을 표한 적이 없다. 매번 감사하다며 계속해서 지원되었으면 좋겠다고 두 손을 잡으며 부탁하시는 어르신들을 위해 2020년에도 우리는 올해보다 더 열심히 달려갈 것이다.



공동체 향후 계획

좀 더 전문적으로, 그리고 체계적으로

2018년~2019년은 보조금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되어 무리 없이 사업을 진행하게 되었지만, 앞으로도 보조금 지원을 받을 수 있을지는 아무도 확신할 수 없다. 그렇기에 활용 가능한 자원을 예측하고 확보해 나가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구성원들은 사회적 관계, 공동체, 공유, 돌봄, 사회적 자원 등 지역사회 관련 다양한 주제의 교육 및 프로그램에 관심을 가지고 학습자인 동시에 지역주민의 참여를 끌어내는 선도자의 역할도 담당해야 할 것이다. 지난 몇 년 동안 들어내 놓지는 않았지만 해왔던 일들인지라 어렵지는 않을 것이다.

2020년에는 지역의 자원을 최대한 활용해 보려고 한다. 삼수동에 거주 중인 다문화 이주민들이 한식 만드는 과정을 체험하며 배우고, 자신들이 만든 음식들을 어려운 이웃에게 나눠줄 기회를 제공하고자 한다. 대부분의 다문화 이주민들은 여성이고 농가 지역에 거주하고 있어 시내로 나올 기회가 많지 않다. 또한, 주변에 고령의 어르신들이 많다 보니 자신들과 비슷한 연령대의 친구를 만나서 맘껏 소통할 기회가 흔치 않았다. 이런 상태가 계속되면 자연스럽게 소외감과 우울증을 겪게 되고 고국에 돌아가고 싶은 ‘향수병’에 시달리게 된다. 실제로 많은 이들이 이러한 이유로 한국에서 살지 못하고 자신의 나라로 돌아가게 되는데 이들이 지역의 중심에서 구성원으로서 역할을 맡아 활동을 할 여건이 된다면 이 문제는 저절로 해결될 수 있을 것이다. 그들에게서 긍정적인 변화를 끌어낼 생각에 벌써 기대가 된다. 조금 더 나아가 가능하다면 이들에게 지역사회 내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것이 2020년을 맞이하는 구성원들과 주민센터의 바람이다.







문화예술형

홍천 맹글청소년교육사회 협동조합

정선 레몬트리 협동조합

인제 아미띠에

홍천군

맹글청소년교육사회 협동조합

"홍천! 미안 프로젝트" - 홍천! 미디어로 인사해요 "안녕"



- 📍 **지 역** 강원도 홍천군 내촌면
- 📁 **프로그램** "홍천! 미안 프로젝트" - 홍천! 미디어로 인사해요 "안녕"
- 📅 **지원기간** 2018년
- 👥 **참여인원** 마을주민 30명



공동체 형성 과정

마을공동체로 교육을 함께 나누자

한 아이를 키우기 위해서는 온 마을이 필요하다는 말이 있다. 한 생명의 성장을 위해서는 여러 사람의 축복과 관심이 필요하다는 말이다. 이처럼 우리 마을에도 아이를 키우며 살아가는 주민들이 많이 있고, 주민들이 소소한 이야기를 주고받는 공간이 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다. 꼭 물리적인 공간이 아니더라도 주민들이 서로 관심을 가지고 소통한다면 공동체를 회복하는 밑거름이 되지 않을까 싶었다. 그러기 위해서는 직업체험, 다문화 교육, 방과 후학교가 효율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는데 학교가 가지고 있는 인적·물적 자원으로만은 부족했다. 훌륭한 인적 자원과 좋은 시설을 이용하여 학생들에게 양질의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싶었다. 그래서 ‘마을공동체로 교육을 함께 나누자’라는 목표를 세우고 홍천읍 아이들이 행복한 교육, 창조적·진취적인 마을공동체 만들기와 함께 성장하자는 목표를 실현하기 위해 맹글청소년교육사회 협동조합은 다양한 활동을 시작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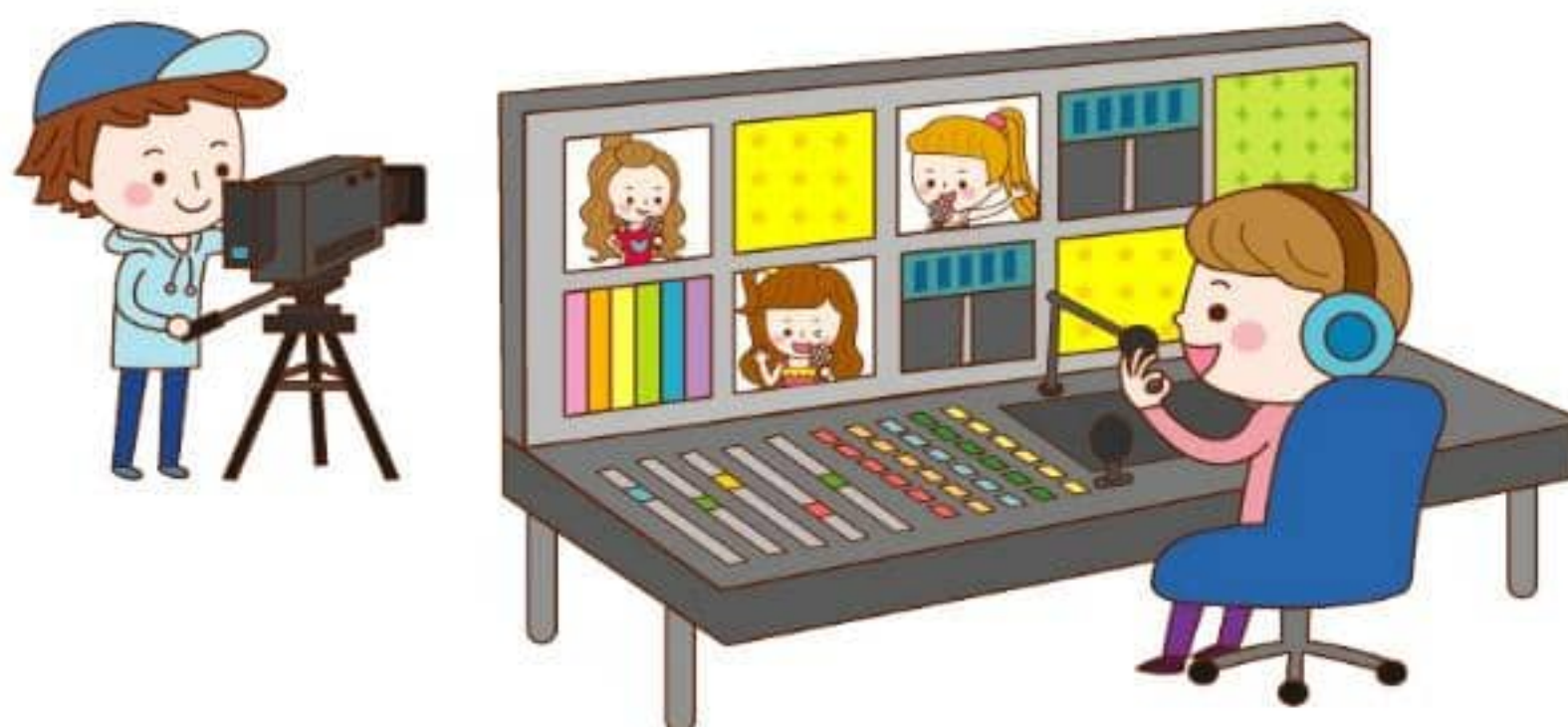
공동체 활동의 시작

미디어로 두드리고 촬영하고

요즘은 스마트한 환경 속에서 1인 방송, 라디오, 팟캐스트 등은 오디오와 비디오 파일로 다양한 콘텐츠를 인터넷망에 제공해준다. 우리는 ‘홍천아! 미디어로 인사해요 안녕’이라는 프로젝트로 구성원들이 공동체 안에서 미디어라는 도구를 통해 소통하고 자신을 표현하는 방법을 알려주었다. 가장 먼저 스마트폰이 아닌 다양한 토의 토론기법을 이용해 우리들의 이야기를 나누었다. ‘우리 마을의 이름은 왜 내촌일까?’, ‘우리 마을의 구성원들은 누가 있을

까?', '마을의 전설은 무엇일까?' 등 마을에 대한 여러 이야기를 나눴다. 그다음 시간은 야외에서 삼각대, 배경 등을 이용해 인물과 풍경을 촬영했다. 평소에는 눈으로만 보았던 것들을 하나하나 촬영해 보는 시간이었다. 자연스럽게 내가 바라보던 시선을 영상에 담고, 마을의 이야기를 담고, 주변 사람들을 담는 시간이었다. 가장 처음 나눴던 마을의 이야기를 바탕으로 촬영한 영상을 편집하고 보니 각자 영상의 온도가 매우 달랐다. 영상은 기술로 찍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그리고 스토리와 교감으로 찍는 것임을 배운 시간이었다. 짧은 준비시간이었지만 아이들은 몇 번의 교육을 통해 우리가 사는 마을 이야기에 관심을 가지고 옆 친구와 함께 경청하고 배려하는 시간을 가질 수 있었다.

마을의 영상 찍기와 팟캐스트 체험은 10회기로 마치는 짧은 일정이었다. 아이들과 마을의 이야기를 차례대로 진행하기에는 시간이 매우 부족했다. 더욱이 영상 수업이었으므로 이것저것 준비할 것도 많았고, 기술적으로 가르칠 것도 많아 시간이 더욱더 짧게 느껴졌다. 다행히 아이들은 이미 셀카, 유튜브 등 스마트폰과 영상에 익숙해져 있어서 촬영 장비를 다루는 것은 어려워하지 않았다. 하지만 한 장 한 장, 한 컷 한 컷 녹화 버튼을 누를 때면 손은 조심스럽고, 팟캐스트 녹음과 업로드 시간에는 귀를 기울이며 고개를 끄덕이기까지 했다. 이처럼 아이들은 마을의 이야기를 자신의 목소리로 소리를 냈으며, 표정으로 설명하고 섬세하게 촬영을 했다.



공동체 활동내용과 성과

렌즈를 통해 보는 마을공동체 (Q&A)

01. 마을의 팟캐스트를 강의한 장정우 강사의 기억에 남는 에피소드는 ?

‘마을의 영상을 촬영하고 편집을 끝낸 후 설레는 마음으로 시사회를 기다릴 때가 가장 행복해요’ 라는 김재현 친구의 말을 들었을 때를 잊을 수 없다. 내가 하는 일이 무척 보람차고 행복한 일이라는 걸 실감하는 순간이었다. 홍천군 내촌면 초등학교 학생들은 수업이 끝나도 서로 나누는 교감과 보람 때문인지 마을 이야기에 대한 영상을 만들었다고 봐달라며 연락도 왔다. 이런 아이들의 열정은 큰 감동으로 다가오고 힘을 낼 수 있게 해 준다.

02. 마을공동체를 준비하면서 가장 힘들었던 순간은 ?

어딜 가나 그렇겠지만 어른들은 굉장히 보수적이다. 그래서인지 마을 문화를 만드는 영상촬영을 위해서 마을의 이야기를 듣고, 기록하고 싶었지만 충분한 내용을 듣지 못했다. 아무래도 마을의 문화를 영상으로 만드는 새로운 형태의 교육에 대해서 생소하므로 어쩔 수 없는 것 같았다. 결국엔 아이들의 부모님, 학교 선생님, 역사문화전문가의 협조와 이해를 통해 우리가 원하는 영상을 모두 촬영할 수 있었다.

03. 우리 협동조합에게 마을공동체 미디어 교육이란 ?

아이들이 미디어로 내촌지역 영상제작 활동을 통해 얻고자 하는 게 뭐냐고 물은 적이 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은 내촌지역 마을 미디어 영상제작 활동으로 내촌지역에 관심을 가지는 사람들이 많이 생겨났으면 한다는 거였다. 지금 생각하면 이 답변이 활동에 있어서 플러스 요인이 된 것 같다. 우리의 활동을 통해 마을 미디어와 내촌지역에 관심을 가지고 활발하게 활동하는 사람들이 생겨나는 것, 이게 바로 마을공동체 활동을 통해 궁극적으로 소망하는 것이다.



활동을 마치며

따로 또 같이, 미디어로 소통하는 우리의 미래

‘마을공동체’란 말을 들으면 사람들은 어떤 이미지를 떠올릴까? 시골 마을에서 생활하는 가족? 아니면 여러 사람이 모여서 공동의 목표를 가지고 만든 공동체? 물론 여러 가지로 해석될 수 있다. 하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마을공동체’는 조금 특별한 의미로 쓰인다. 마을공동체의 역할에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중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두 가지를 고른다면 마을과 학교의 역할이다. 학교는 공동체에게 공간과 교육을 제공해 다양한 문화와 경험을 전수해주는 역할이라면 마을은 등지 같은, 든든한 후원자의 역할일 것이다.

또한, 이웃과 함께 하는 것들에 마을공동체의 의미가 없다면 마을에서 함께 살아가기는 힘들 것이다. 우리 지역의 아이들이 자라 사회의 지도자가 되기 위해서라도 마을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출발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이제는 마을공동체가 모여서 지역을 이루고 크게는 강원도, 더 크게는 국가를 이루기 때문이다. 마을공동체는 같은 길을 가는 어른과 아이들로 비유할 수 있다. 길이 눈으로 덮여있어 길 안과 길 밖이 구분되지 않을 때 앞서가는 어른들은 길 밖으로 나가지 않기 위해서 온 신경을 세워 길을 걷는다. 그렇게 길 위에 발자국이 선명하게 남으면 아이들은 길을 쉽게 찾아갈 수 있다. 이처럼 우리는 마을의 이야기, 아이들의 이야기를 기록하여 아이들이 걸어가야 할 길을 만들어 주고 싶다.



내촌지역은 지리적으로 먼 거리지만, 마음의 거리는 언제나 가까운 곳에 있다. 내촌초등학교 아이들은 즐겁게 영상촬영에 참여했고, 그 즐거움은 마을의 이야기만을 담아내는 즐거움은 아니었다. ‘마을공동체를 이야기하면서 나의 모습을 그려보는 소중한 시간을 가질 수 있게 해줘서 고맙다’라는 말을 들었을 때 마을공동체가 무엇인지 알 수 있어서 뿌듯했고 우리의 핑크빛 미래를 상상해 보게 되었다.



정선군

레몬트리 협동조합

마을 공동 공예체험 공간조성



- 📍 **지 역** 강원도 정선군 정선읍
- 📁 **프로그램** 마을공방조성
- 📅 **지원기간** 2017년 ~ 2019년
- 👥 **참여인원** 20명



공동체 형성 과정

사랑방으로 모인 엄마들

2010년, 정선읍 북실리 아파트 밀집 마을에서 결혼과 출산, 육아에 지친 공감대를 가진 여성들이 모이게 되었다. 지역의 엄마들이 커피 한 잔 마시며 혼자 가지고 있던 답답한 문제들을 함께 고민했다. 하지만 육아에 필요한 정보를 얻는 것은 한계가 있을 뿐만 아니라 육아로 인한 문화생활 단절과 소외가 가장 큰 첫 번째 문제로 나타났다. 또한, 출산과 육아로 인해 여성들은 자연스럽게 자기개발과 동시에 자아발전 기회까지 멀어졌다는 걸 알았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강원도 마을공동체 지원사업>으로 젊은 주부들의 원활한 커뮤니티가 이루어지고, 이웃들 간의 교류까지 확장될 수 있는 공간을 만들기 시작했다.



공동체 활동내용과 성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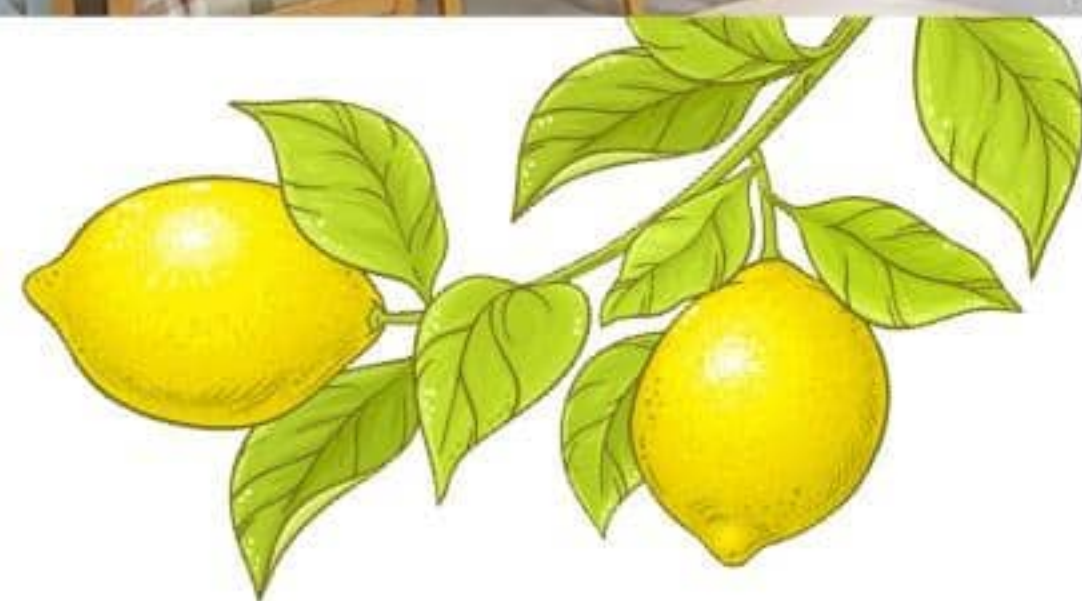
엄마들의 재능 발전소

공동체 활동을 위해 작업장 임대와 천 공예, 소품 등을 만들 수 있는 도구 및 기기들을 준비하고 구성원들과 함께 취미활동을 시작했다. 그러던 중 기존 사용하던 땅의 매매로 정선버스터미널 2층으로 공간을 이전하게 됐다. 수공예방, 북카페, 아이들 쉼터 등을 만들기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작업은 함께 참여해 레몬트리만의 공간으로 재탄생 되었다. 이 공간에서 여성들이 함께 모여 각종 공예를 배우고 공유함으로써 삶의 활력이 생기고 발휘하지 못하던 재능을 살릴 수 있어 삶의 만족도 또한 향상되었다.

구성원들이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는 공간이 생기고 안정된 여건이 만들어지면서 드디어 우리 공예품을 판매할 수 있는 플라마켓을 열기 시작했다. 이전 야외에서 1회 운영했던 마켓을 실내에서 계절과 날씨에 구애받지 않고 운영할 수 있게 되었다. 가장 많은 인원이 참여하는 플라마켓은 참가자를 자율적으로 모집해 2개월마다 개최하고 있다. 핸드메이드 제품부터 시작해 중고물품, 지역특산물 먹거리까지 판매 상품의 규모와 종류가 점차 다양해지고 있다. 그냥 만드는 것에 만족하던 우리는 수익이 나면서 상품을 개발하기도 하고 간단한 수업을 할 수 있는 능력도 키워내고 있다.

또한, 단순 공예뿐만 아니라 집에서 혼자 하기 힘든 목공예 활동으로 자투리 공간을 활용할 수 있는 수납장을 만들어보는 건 어떨까라는 의견이 나왔다. 그렇게 목공예 활동을 시작하면서 절단기와 드릴 등을 익혀보려고 노력했으나 절단기를 사용하긴 쉽지 않았다. 그래서 청년협동조합과 교류하여 절단은 청년들이 도와주고 우리는 드릴을 이용해 접이식 의자 및 피크닉 테이블을 만들었다. 그리고 이 시간은 '함께 모여 활동할 수 있다는 것에 대한 감사함'과 '새로운 것을 할 수 있다'라는 도전의식이 생긴 활동이기도 했다.



공동체 향후 계획

내 이름이 불리는 곳 '레몬트리'

2010년 모임 활동을 시작으로 마을공동체 공모사업까지 조금씩 변화를 만들어 온 것이 지금의 레몬트리를 탄생시킨 밑거름이다. 한 마음으로 꾸려온 지금의 공간이 지속해서 운영 되도록 하는 것이 공동체의 첫 번째 목표이다. 그리고 우리가 사는 지역에서도 새로운 것들을 습득할 수 있고, 자라나는 아이들을 바르게 키울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드는 것이 두 번째 목표이다. 세 번째 목표는 엄마랑 아이가 함께하는 시간을 만들고 아이들과 대화하고 소통하는 기회를 만드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엄마들의 재능발전을 통해 누군가의 선생님 역할을 함으로써 삶의 질을 높이는 것이 앞으로의 목표이자 미래이다.

'레몬트리'라는 공동체의 이름에는 특별한 뜻이 있는데 나무 원줄기는 여성을 뜻하고 가지나 열매는 가정에서 혹은 사회에서 엄마들의 역할이 많음을 의미한다. 레몬트리는 이처럼 누구의 아내, 누구의 엄마가 아닌 내 이름이 불리며, 수많은 열매처럼 수많은 재능을 발견하고 발전해 갈 수 있는 곳, 누구나 쉽게 문을 두드릴 수 있는 곳이 되길 바란다.



인제군

아보리디에

미술을 배우고 재능기부 수업 및 전시회



- 📍 **지 역** 강원도 인제군 서화면
- 📁 **프로그램** 재능기부 수업, 전시회
- 📅 **지원기간** 2019년
- 👥 **참여인원** 마을주민 7명



공동체 형성 과정

마을 사람과 함께 하고 싶은 욕심

2017년 공동육아 나눔터에서 시작한 아미띠에는 프랑스로 우정, 친절, 호의라는 뜻이 있다. 시골에 살면서 문화적 혜택을 받을 수 없는 아이들을 위해 엄마들이 우정으로 모인 작은 품앗이 그룹이다. 그렇게 시작한 아미띠에는 자녀들에게 많은 경험과 체험을 할 수 있도록 서로 돌아가면서 선생님이 되어 책 놀이, 공예 등 다양한 수업을 했다. 갑자기 선생님이 된 엄마들은 부족한 부분에 대한 공부와 역량 강화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또한, 우리 아이들뿐만 아니라 문화적 혜택을 받지 못하는 아이들에게도 기회를 주고자 하는 마음이 생겼다. 그래서 2018년 인제군 동아리 지원사업을 통해 역량 강화를 위한 미술공부를 시작했다. 매월 2회 모여 시간을 가졌고, 지원금으로 재능기부 수업을 시작했다. 그렇게 1년을 보내다 보니 아이들뿐만 아니라 마을주민, 어르신들 등 더 많은 사람과 함께 하고픈 욕심이 생겼다.

아미띠에는 인제에서 흔히 말하는 군인 가족으로 이루어졌다. 인제군 서화면은 군사지역이다 보니 여기서 10년을 살았어도 직업이 군인이면 그의 가족들은 군인 가족으로 분류되고, 지역주민으로 받아들여지기 힘들었다. 군인 가족들 역시 곧 이사 갈 것이라는 생각에 마을 어르신들과의 교류를 피했고, 마을행사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않았다. 우리는 이러한 인식부터 바꾸기 위해 마을행사와 지역주민, 남녀노소 연령층 상관없이 함께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강원도 마을공동체 지원사업>을 시작했다.



공동체 활동내용과 성과

우리는 아미띠에입니다!

가장 처음으로 시작한 일은 마을행사에 참여한 것이다. 우리는 면민 체육대회에 협조를 받아 체험 부스를 열었다. 지역의 특성상 인구수가 많지 않은 점을 고려하여 1부와 2부를 나눠 다른 아이টে으로 운영했다. 매년 해오던 체육대회에 체험 부스는 처음 있는 일이라 지역 어르신들은 낯설어하셨고, 해도 되는 거냐는 질문이 제일 많았다. 주민들의 우려와 걱정 속에서 우리는 체험부스를 운영하였다. 체험부스가 열리자 아이들은 너무나 즐거워하였고, 아이들이 북적북적하게 모이자 어르신들도 관심을 보이고 참여를 하셨다. 그렇게 우리는 마을 축제를 통해 '아미띠에'라는 이름을 성공적으로 지역주민들에게 알리게 되었다.



주민들에게 첫 소개를 마치고 우리는 계속해 오던 재능기부 수업을 이어갔다. 월 1회 이상 유아 수업을 진행하였고, 방학 기간을 이용해 집중적으로 초등학생 미술 수업을 했다. 그러던 중 서화면의 가장 큰 행사로 서화면 주민자치발표회에 아미띠에 이름으로 재능기부 체험 부스를 하게 되었다. 어르신들은 천 아트에 관심을 보이셨고 '이런 걸 우리가 어떻게 해', '나는 잘못해, 대신해줘'라고 하시던 어르신들도 스스로 마무리할 수 있도록 이끌었다. 다행히 어르신들의 만족도는 높았다. 직접 완성했다는 뿌듯함과 만족감을 느끼게 되었다. 그렇게 '아미띠에'라는 이름을 다시 한번 지역주민들에게 알리는 계기가 되었다. 우리는 이 행사로 힘을 얻어 지역행사 참여뿐만 아니라, 우리가 직접 행사를 열기로 하였고 연말 파티를 계획하게 되었다. 행사는 체험 부스 세 가지와 먹거리 부스를 운영하여 2019년을 뜻깊게 마무리하자는 의미였다. 아이들이 할 수 있는 체험 부스와 어른들이 할 수 있는 체험 부스를 나눠 아이들과 어른들 모두 참여할 수 있는 시간을 가졌다. 또한, 1년의 결과로 7인의 작가와 수업을 받은 7인의 초등작가 작품을 전시관에 채워 창립전을 열었다. 우리의 노력과 활동에 보답해주시듯 많은 주민분이 찾아주셨고 1년 동안의 고생을 보상받는 듯 뿌듯함이 생기는 순간이었다.

공동체 향후 계획

마을의 미래, 우리의 손으로

아미띠에는 2020년 더 큰 도약을 위해 준비 중이다. 군인 가족과 원주민의 경계가 없도록 더 많은 활동을 하기 위해 서화면 주민들이 계획한 마을 소규모 재생사업에 합류했다. 서화면 마을의 화합과 더불어 문화적 혜택을 받기 힘든 아이들을 위해 마을 소규모 재생사업을 이끌어가기 위해서다. 서화면은 고등학교가 없어서 청소년의 집이 성립되지 않는 지역이다. 그래서 아이들은 모둠 활동 및 동아리 활동을 할 공간이 없는 실정이라 마을 공동이용 공간을 마련할 계획이다. 공간을 다양하게 활용하기 위해 아미띠에는 수업을 계획하고 많은 사람이 이용할 수 있도록 운영할 것이다. 원주민, 군인 가족 구분 없이 인제군 주민이면 다 이용하고, 수업 참여를 통해 가치를 창출 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나갈 것이다. 마을 공동체 활성화를 위해 큰 노력을 하겠지만, 활동을 하다 보면 이익을 찾아가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재능기부라는 봉사에 지쳐가는 사람도 있을 것이다. 그렇게 되면 잠시 멈추고 조금 늦게 나아가더라도 천천히 한 발씩 나아가다 보면 우리가 원하는 마을을 만들어 갈 수 있을 것이라 확신한다.

우리는 같은 고민을 한 또래의 아이들이 모여 자기 생각을 이야기하고 있고, 그 아이들의 부모가 모여 아이들을 위해 서로 노력하고 있다. 또한, 비슷한 나이의 성인들이 모여 서로의 관심사를 공유하며, 비슷한 연배의 어르신들이 모여 서로 말벗이 되어주고 있다. 이처럼 지금까지 해 온 활동들을 기반으로 새로운 마을공동체가 구성되어 마을주민들의 화합을 위해 노력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공동체 활동 후 구성원이 느낀 변화와 소감

- 유은영** 공동체 활동을 하면서 힘든 부분도 있었고, 즐거웠던 일도 많았습니다. 직장이 있는 저에게는 직장 생활과 가정만으로 벅찼습니다. 거기에 시간을 쪼개 그림을 그리고, 수업을 준비하고 많은 계획과 회의를 하면서 지쳤던 것도 사실입니다. 내가 이 모든 걸 감당할 수 있을까 하는 부담감도 있었지만, 지금 이렇게 1년을 되돌아보면, 힘들었지만 그 안에 즐거움이 있었고, 새로운 도전과 봉사에 대한 설렘도 있었습니다. 내가 느낀 이 기분을 구성원들도 함께 느꼈을 거라 생각합니다. 이제는 구성원 외에도 많은 분이 함께해서 이 감정을 느꼈으면 합니다.
- 박정은** 그림 그리는 게 좋아서 사람들이 좋아서 아미띠에 모임을 하였습니다. 함께 전시회도 보러 가고, 마을 아이들과 수업하며 즐거운 시간도 보내게 되었습니다. 다들 바쁜 와중에도 다 같이 함께 할 수 있어서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이런 지원사업들이 많아서 여러 지역에 다양한 모임에 형성되었으면 좋겠습니다.
- 김여정** 천도리에 10년 남짓한 시간을 살면서 내 가족이 아닌 마을 어린이와 어르신들에게 미술이라는 분야로 조금이나마 재능기부를 하게 되어 의미가 깊었습니다. 체계적인 활동 계획을 위해 끊임없는 회의를 거쳐 무리 없이 실천한 덕분이라 생각합니다.
- 서현숙** 많이 배우고 느끼는 내 인생이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내가 과연 할 수 있을까?' 했던 저의 마음을 '할 수 있어!' 라는 마음으로 만들어 주는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 정선화** 2019년을 주민들과 아이들과 함께 소통하며 힐링 할 수 있었습니다. 전시회와 체험부스 재능기부로 뜻깊은 한 해를 마무리하게 되어 기쁩니다. 2020년에도 행복으로 가득 찬 마을공동체를 상상해 봅니다.
- 강화연** 사실 저는 아미띠에를 시작하기 전에는 누구의 아내, 누구의 엄마로 불리는 한사람이었습니다. 마을공동체 활동을 하면서 화연씨, 화연쌤 이라는 호칭이 생겼습니다. 늘 집에서 아이들만 보던 제가 나와서 연필과 붓을 들고, 오르지 나만의 시간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재능기부 수업을 통해 아이들을 가르치니 누군가에게 도움이 된다는 것에 뿌듯함도 생겼습니다. 마을공동체 사업으로 좋은 기회가 생겨 너무 감사하고, 활동하는 동안 너무 즐겁고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기회가 많이 주어졌으면 좋겠네요.
- 김지연** 마을공동체라는 말이 낯설고 어렵게만 느껴졌는데, 다른 분들과 같이 활동해서 재미있고 즐겁게 활동 할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해서 공동체 활동이 활성화되고 발전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짧은 기간이었지만 공동체 활동을 하면서 많은 분을 알게 되고, 많은 것을 배워서 의미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슬기로운 마을생활

주민들이 들려주는 우리마을 이야기

편집후기



이번에 발간된 「슬기로운 마을생활」은 전년도 우수사례집인 「함께 만드는 우리 마을 공동체」에 이어 강원도 마을공동체 종합지원센터(이하 강마공)의 두 번째 우수사례집입니다. 그 간 강원도 마을공동체 활성화를 위해 애써주신 마을주민과 마을활동가께 감사 인사드립니다. 사례집을 발간한 지금 강원도 마을공동체에도 변화의 물결과 희망의 바람이 봄 햇살처럼 따스하고도 강하게 밀려오는 것 같습니다. 공동체 모든 분들의 한 걸음 한 걸음이 강원도 그리고 우리사회의 희망임을 다시 한 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최근 마을의 자생력 확보 및 지역소멸 예방을 위한 새로운 대안으로 마을공동체 활성화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올해로 7년차를 맞이하는 강원도 마을공동체 지원사업에는 그동안 많은 주민 분들이 다양한 공동체의 유형으로 활발하게 활동해주셨습니다. 이에 저희 강마공은 이웃과 함께 꿈을 이루고, 이웃과 함께 행복을 나누는 마을을 만들기 위해 “주민과 같이, 마을의 자치, 강원 가치”라는 비전을 달성하고, 그간의 성과들을 기반으로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 중간지원조직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코로나19(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확산으로 인해 외부활동의 경계심과 불안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끝까지 긴장감을 놓지 않고, 방역 수칙을 잘 지키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어려운 시기에 따뜻한 마음으로 우리 함께 잘 이겨내어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 뵙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최지은 연구원



마을공동체가 복원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많이 했지만 사실 그 가능성에 대해서는 비관적인 편이었습니다. 빠르게 변화하는 현대사회에 적응하면서 먹고 살기에도 바쁜데, '누가 마을공동체를 회복하고자 활동을 할까' 라는 생각을 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마을공동체 관련 일을 하면서도 마을공동체는 옛날 농경시대어나 가능한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독거노인, 고독사, 1인 가구, 나홀로족 등 이웃사촌이란 말은 온데간데없고, 개인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요즘입니다. 그러나 이번 우수 사례집을 편집하면서 사회적 관계의 회복을 통한 마을공동체의 복원 가능성을 보았습니다. 알아주는 이 없어도, 성과가 없어도, 사회적 관계를 회복하고,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자신과 공동체를 위해서 누구보다 열심히 땀 흘리고 계시는 분들이 많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공동체성을 회복하고, 마을공동체를 복원하는 것은 단순히 돈만으로 해결될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무엇보다 근본적인 사회적 관계의 회복을 통해서야 가능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사회적 관계 회복을 위해 각자의 역할에 맞게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시는 분들이 강원도에는 참으로 많은 것 같아 마음이 따뜻해집니다.

이 우수사례집에는 마을의 시대를 열어가기 위해 묵묵히 활동하시는 분들의 열정 가득한 이야기가 담겨 있습니다. 많은 분이 사례집을 읽고, 마을공동체 활동에 동참하여 상생의 지혜와 협동의 즐거움을 나눌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고혁근 연구원



'마을'을 위한 공동체 활동 속에서 참여와 학습, 지속적인 의사소통을 통해 수많은 이야기를 만들어내 주신 모든 마을주민과 마을활동가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이번 사례집 편집은 공동체의 필요성과 마을을 위해 노력하시는 분들의 모습을 통해서 진정한 마을공동체에 대해 배울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슬기로운 마을생활>은 마을 안에서 주민들이 삶을 공유하고 그 안에서 삶의 가치를 만들어내는 이야기들로 가득합니다.

주민들은 짧게는 1년, 길게는 4년이라는 시간 동안 한 공간에 모여 필요한 교육을 하기도 하고, 축제를 열어 다 같이 즐기기도 하면서 서로의 일상을 채워나갔습니다. 이처럼 마을공동체 활동을 통해 마을들은 저마다 공감대와 정체성을 형성했으며 그 안에서 가치실현을 이루어 나가고 있습니다.

이번 사례집을 통해 제가 가져야 할 마을공동체에 대한 가치와 앞으로의 방향에 대해서 그릴 수 있었습니다. 주민 한 사람 한 사람이 모여 마을공동체를 만들고 마을공동체들이 모여 강원도를 변화시키길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나을 연구원



먼저, 소중한 글 보내주신 공동체 활동가 및 주민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내주신 글을 보며 마을공동체가 어디서부터 시작해서 어떻게 활동이 이루어지는지 배울 수 있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마을공동체 주민들이 직접 활동한 경험을 바탕으로 작성된 사례집은 마을공동체 활동을 시작하신 분이나, 공동체 활동에 관심이 있는 분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주민들이 직접 적어주신 공동체 활동 사례를 보며 마을공동체 사업의 가치는 어디까지일지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마을공동체 사업은 마을의 문제를 마을 주민 스스로 해결해나가는 과정으로 정의해볼 수 있습니다. 사례집에 실린 스물세개의 공동체들은 활동을 통해 마을의 문제해결을 이루어내는 것에 그치지 않고 그 이상의 가치를 만들어내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특히 활동이 이루어짐에 따라 공동체 사업이 몇몇의 구성원에게만 진행되지 않고 외부로 확장되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습니다. 공동체 활동이 마을, 나아가 지역에 큰 가치를 만들어낼 수 있는 모습을 기대해 볼 수 있었습니다. 코로나19로 모든 지역에서 힘든 시기를 겪고 있습니다. 서로가 서로를 도와 더 큰 가치를 만드는 공동체 활동처럼, 우리 모두 함께 힘든 시기를 이겨냈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박흥열 연구원



육아 고민을 나누던 부모들, 이웃을 도와주고 싶어 모이게 된 사람들, 이처럼 우리 주변에서 쉽게 볼 수 있는 사람들의 모임이 바로 공동체의 시작입니다. 이번 사례집을 발간하면서 혼자서는 힘들지만 함께 하면 이룰 수 있는 것들이 많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또한 마을주민 누구나 마을의 긍정적인 변화를 위해 하나 둘 힘을 합친다면, 살기 좋은 마을, 살고 싶은 마을 나아가 행복한 강원도가 될 수 있다는 희망을 보았습니다.

마을 주민들의 다양한 공동체 활동을 통해 마을 문제가 해결되고 주민 간의 신뢰가 두터워져, 마을이 더욱 발전하였다는 사례들을 보면서, 비슷한 문제를 겪고 있는 마을주민들에게 도움이 될 것 같아 더욱 보람 있는 작업이었습니다.

또한, 공동체 활성화의 필요성뿐만 아니라 알지 못했던 공동체의 어려움을 알게 되어 앞으로 센터에서 해야 할 일, 극복해야 할 것들이 많아 아직 갈 길이 멀다는 것을 느끼며 다시 한번 마음을 다잡게 되었습니다. 많은 이야기를 해주신 공동체 여러분들에게 감사 인사를 전하며 항상 가까이서 응원하는 강원도 마을공동체 종합지원센터가 되겠습니다.

윤고은 연구원

주민과 같이, 마을의 자치, 강원도의 가치



이웃과 함께
행복을 나누는
마을

강원도 마을공동체 종합지원센터

즐거로운 마을생활

주민들이 들려주는 우리마을 이야기

2018 ~ 2019
강원도 마을공동체 우수사례집

즐거로운 마을생활

주민들이 들려주는 우리마을 이야기



강원도 마을공동체종합지원센터
Gangwon Community Support Center

